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20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훈독교육과 조국광복	9
조국광복의 기수	34
남북통일은 투입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70
풀어야 할 죽음의 고개	74
참사랑과 영계	81
제3이스라엘과 조국광복	87
참감람나무 열매가 되라	111
가정 이상의 정착	127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	145
주체 대상의 일체권	163
제41회 참부모의 날 기념예배	180
하늘 주권을 성립해야 할 때	221
천주 통일은 몸 마음의 통일에서부터	238
하나님의 조국	260
미국 청소년 교육과 체육분야 육성 방안	274
세계 통일은 종교권 통일로부터	286
지상생활의 중요성과 판타날의 자연박물관	309

훈독교육과 조국광복

(남북통일전진대회에 대한 황선조 회장과 박정환 회장의 보고)
결론이 뭐예요? 통반격파예요? 통반격파.

우리 조직은 인원동원에서 어느 조직보다 우위에 설 수 있어

지금 어느 나라나 자치제가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따로, 도의원 따로, 전부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때가 왔다구요. 옛날에는 꼭대기에서 밑창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났어요. 아래는 아래대로 위는 위대로 따로따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미줄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만 시키면, 연결된 우리 줄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상적인 기준에서 연결시키면 이것이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구요.

그런 입장에 서면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로 올라가고, 거꾸로 반에서부터 통으로 리로... 통하고 리는 같아요. 리가 도시에서는 통이에요. 그 다음에 면이에요. 면은 동하고 같아요. 그렇게 조직되어

2000년 3월 24일(金) 저녁, 천성왕립궁전.

* 이 말씀은 국가 메시아, 교구장 특별수련회에서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있는데, 국가 자체가 전체를 관리할 수 없어요. 국가 자체도 지금까지 군을 중심삼고 면의 몇몇 사람을 중심삼고 서울이든 어디든 대회를 하게 되면 참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 나왔다고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가정 전체가 동원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수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같은 행사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언제나 우위에 서는 거예요. 숫자놀음을 하는 데 있어서, 선거문제나 여러 가지 인원동원 문제에서 앞섬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아래에서 승리의 기반을 닦아 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히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를 많이 따라올 거예요. 국회의 훌륭한 사람, 당수, 총재, 모모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하는 꿈무늬에 달려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한 것은 나라를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

그러면 왜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했느냐? 이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이에요. 섭리의 모든 전부를 보더라도 이제는 나라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전요원들은 이제부터 반장 놀음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국가 조직에 반장이 있고 이장이 있어요. 면에 가면 이장이 있고, 도시에는 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1동, 2동 해서 동이 되어 있어요.

원리적 조직을 두고 보면, 반이 소생이라면 통이 장성이고, 동이 완성이에요. 시골은 반장을 중심삼고 이장과 면장이 있어요. 이것이 소생이에요. 복귀과정에 있어 개인을 완성해서 가정을 복귀해 나가지요? 가정을 복귀해서 반 형성을 거쳐 가지고 리라든가 동을 거쳐 종족적 기반으로 나간다고요.

우리는 7대를 중심삼은 180명 이상의 관계를 중심삼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위에서가 아니예요. 통일의 세계는 미국이라든가 소련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예요. 꼭대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맨 밑바닥, 몸 마음에서부터 하나되어 가지고 부모를 중심삼고 형제 자매가 하나된 가정을 중심삼고, 반을 중심삼고, 통·동·구로 나오는 거예요. 지방 같으면 반을 중심삼고, 라면을 중심삼고 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다가요.

우리가 최후에 청산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통반격파를 하는 거예요. 통반격파가 벌써 몇 번째예요? 통반격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13년 전부터 두 번씩이나 막대한 자금을 쓴 거예요. 그때 오늘날같이 내놓고 우리가 가야 할 정치적인 기반을 닦는다고 광고하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또 정교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가요.

통일교회가 정치한다면 대번에 종교권에서 이탈돼야 된다가요. 그런 면에서 그런 놀음을 했지만 성사 못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3천2백 곳까지 강의했다구요. 41만 반을 40일 이내에 해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세 번, 네 번 강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때에 그렇게 해서 자리잡으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 가지고 들어와서 재차 40년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80세 되는 이 해를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적인 정착이 벌어져야 돼요. 섭리로 볼 때 가정적 가나안 복귀를 중심삼아 가지고 목표는 세계복귀예요.

재림시대에 가정을 완성해 국가 복귀를 해야 하는 섭리적 이유

모세 때에는 개인적 민족 복귀와 국가를 향해 전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달성 못 해서 독수리

밥이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시대에도 가정복귀 시대예요. 구약이 뭐냐? 가정 완성을 못 했어요. 결혼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그런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 못 이루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정을 못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를 못 가졌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을 이루어 국가 형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가 하나되었더라면, 예수님을 중심삼고 국가가 형성되었으면 크나큰 로마를 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그때 피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주변의 아시아에는 유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 종교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만 형성하면 이 종교권을 포섭해서 인본주의 사상의 로마를 흡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부터 종교권을 중심삼고 예수님이 40세에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 해서 구원섭리가 연장되어 2천년 역사 동안 얼마나 희생했어요?

재림시대를 중심삼고 희생한 수확의 결과가 뭐냐? 재림의 때가 오더라도 영육을 중심삼은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뚱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 없는 국가 형태를 갖춰 가지고 2천년간 몸뚱이가 피를 흘리면서 나온 거예요. 사탄세계에서 2천년 동안 그렇게 희생해 나오면서 기독교 영적 문화권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간 예수님도 낙원에 갔다고요. 알겠어요? 낙원에 가서 결혼해서 살겠어요, 혼자 살겠어요? 어때요? 모세니 공자니 석가니 할 것 없이 전부 홀아비 생활을 해요. 여편네니 아들딸이니 가정이 전부 헤쳐져 가지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일방도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종교권을 모르게 된다면, 종교권과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 있는 세계의 수많은 단계권의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의 부부가 되어 있고 한 식구가 되어 있더라도 전부 나뉘지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남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고독단신,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혼생활을 해서 가정을 가졌었는데 그 반대 입장이니 얼마나 고충이 크겠어요? 그렇다고 만날 수 있나요? 가정을 가진 게 십자가예요. 그런 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림시대에 주님이 와서 가정을 편성하는 거예요. 개인적 기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권을 중심삼고 이루지 못한 것을 기독교가 제2이스라엘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해서 계승해야 될 텐데 기독교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중심삼고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실제의 나라가 없고 영적인 나라만 있기 때문에 지상 세계의 나라는 사탄권 내에 속해 있으므로 전체 핍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방 이후 기독교와 하나됐다면 모든 것이 끝나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이 천주교하고... 그런 역사를 얘기하려면 길어요. 천주교와 신교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축복했더라면 거기서 가인 아벨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와 신교는 세계 국가 형태를 갖고 있다구요. 영육을 중심삼고 일체화 축복 기반으로 결속했더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텐데 반대했어요.

반대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심 기독교 국가가 돼 있다구요. 아시아에 있어서 중심 기독교 국가는 한국이에요. 이 한국이 일본에 4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일본이 섬기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 <일본신화>의 해의 여신)는 여성신이에요. 이것은 탕감시대에 있어서 타락한 인류를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에서 오시는 주님 몸뚱이를 해와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알겠

어요? 「예.」

몸뚱이를 점령해서 사랑 관계를 맺어 영(靈)까지도 무너뜨렸으니 일본 나라가 메시아가 올 한국을 완전히 40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래, 이 한국을 일본 문화권으로 만들어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3일만 늦었으면, 1945년 8월 17일만 됐다면 기독교 신자 20만이 학살 되게 돼 있었어요. 일본이 완전히 나라 형태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국가적인 살육을 용서할 수 없으니 3일 전에 해방시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해방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라를 찾아야 돼요. 파탄시켰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면 너나할것없이 하나되어야 돼요. 무슨 당이니 무엇이니 해서 패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하운동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예요. 중국에 간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소련에 간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일본에 간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미국에 간 사람도 기독교인이예요. 기독교인을 중심 삼아 가지고 신사참배 문제에 대처하고 그랬는데, 그 배후 조종을 미국이 해왔어요.

미국이 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해와와 대치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섭리사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반적인 책임을 진 거예요. 한국이 독립되면 지금까지 신사참배 하던 종교도, 그때까지 세계에 나타난 종교권도 끝날이 되면 전부 다 정비해야 돼요. 많이 갈라진 것이 끝날에는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 단결을 해야 돼요. 그건 외적인 면에서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래, 나라가 독립되니까 공산당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배후 역사의 자기가 살던 생활 환경이라든가 전통, 각국에 망명해서 운동하던 그 사상 기반을 우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면을 들고 나와서 자기 계열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 뜻은 종파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열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했어요.

선생님은 그때 지하운동을 했어요. 지하운동을 하던 때도 3단계가 있어요. 에텐복귀 때도 구약 에텐복귀 패, 신약 에텐복귀 패, 본연의 아담 해와 에텐복귀 패, 3단계예요. 그렇게 모두가 갈라져서 역사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것을 다 알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삼고 묶어서 그때 새로운 복귀를 책임질 수 있는 단체만 되었으면, 전체를 포섭할 수 있고, 3년간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 안 되어 짹짹 짹 된 거예요.

정부 수립 후 기독교권 정부와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는데 이화여대 사건이 난 거예요. 이화여대 사건이 뭐냐? 그때 박마리아하고 김활란, 선생님과 하나될 수 있었던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가 삼위기대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되었던데, 이들과 연결만 되면 강원도 정선에 있었던 우리 작은할아버지가 이박사와 친구였기 때문에 말만 해도 얼마든지 데려와서 중간 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다 막혀 버린 거예요.

우리 작은할아버지는 한학자로 이름나고, 시도 잘 쓰고,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했어요. 오산학교를 이승훈 씨가 세웠는데 지금 초등학교보다 나은 거예요. 오산학교를 만들어서 애국자를 많이 길러냈어요.

그런 기반이 된 모든 사실들이 이화여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김활란 박마리아가 하나되었으면... 박마리아의 남편 이기봉은 그때 국회

의장이었고, 아들 이강석은 대통령의 아들이 되어 한 집안이었다구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독교가 나를 반대하니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래서 통일교회 가정적 가나안, 가정적 천국 출발이 가정적으로 몰려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다시 착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40년노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되었으면 중국 패니 일본 패니 전부 하나되는 거예요. 통일문화를 한꺼번에 이뤄서 원수는 원수끼리 결혼해 주는 거예요. 중국 패와 소련 패가 원수라면 서로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3년 반 동안에 그런 기초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남한이 혼란 되고 하나 안 되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34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었지요? 예수 대신 외적 왕권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박사가 반공 포로를 미국을 쳐 버리고 강제로 석방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반이라도 닦은 거예요.

그 정부가 나를 반대했어요. 북한도 나를 반대했고, 남한도 기독교를 중심삼고 반대했어요. 둘 다 합해서 나를 세계까지 몰아낸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데모 같은 것을 하면 천주교나 기독교의 아줌마들이 밥을 해주고 떡을 해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해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40년 만에 새로운 봄을 맞았으면, 재봉춘했거들랑 통일적 기독교를 수습해야 돼요. 요즘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성교회 장로나 집사에게 ‘동생아!’ 하더라도 ‘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나라를 2대가 나서서 찾아야

보라구요. 선생님이 참부모를 선포했다구요. 소련에 갔다 와서 1990년 4월에 참부모를 선포했으니 이제는 참형제를 선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나는 형님이다! 너는 동생이지! 80세 이하는 모두 내 동생이다!’ 한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우리는 출발이 아니에요. 가나안 복귀 가정천국이에요. 경계선을 뒤집어 박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이북까지 뒤집어 박아야 돼요. 정부가 반대하든 뭐하든 뒤집어 박아서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원리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재봉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현재 한국 대통령이 8대 대통령이에요. 8대에 돌아서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3대로 보면 형제 다음에는 뭐예요? 손자시대예요. 선생님이 1대라면 오래된 노틀들은 둘째고, 2세들은 손자시대예요. 2세를 내세워야 할 때라고요. 2세를 누가 내세우느냐? 어머니가, 여편네가 내세워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누가 내세워야 돼요? 「어머님이 내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아들딸을 결혼시킨 사람 손 들어 봐요. 하나님의 한이 뭐냐? 3대를 못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1대고, 선생님이 2대고, 선생님의 아들딸이 3대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잘못하면 선생님의 아들딸도 타락권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갈 수 있는 전통을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의 가인적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아들딸을 뒤에 내버려두고 그랬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인 나라를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 아들딸들이 가담해서 여러분이 나라를 찾아서 아들딸 앞에 연결돼야 복귀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선생님의 아들딸이 뭐 어떻고 어떻다고 하고, 성진이 뭐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서, 분이 안 되니까 만나지 말라고 경계선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들이 생사지권을 놓고 선생님 가정을 지켜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책임을 못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사랑을 다 받고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 관리권 내에 두면서 그 선생님이 아들딸 앞에 상속해 줄 것을 다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 선생님의 아들딸은 지금 가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총생축헌납제는 참부모 자녀를 통해 바쳐야

여러분은 총생축헌납제를 알지요? 그것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 바쳐요. 알겠어요? 선생님의 아들딸을 통해서 바쳐야 돼요. 아들딸 앞에 ‘내 재산, 내 나라를 전부 바칩니다.’ 할 수 있는 절대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지요? 지금까지 뭐 어떻고 어떻고 하며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왕자예요, 왕자. 나라를 잃은 왕자예요. 안 그래요? 36가정 대가리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확실히 알라구요.

원필이 자체도 그래. 효원이 자체도 그렇고. 자기 아들딸 이상 위하고, 자기 여편네를 희생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희생시키고 유대교를 희생시켜서라도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강한 힘을 보급해 줘야

돼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판도와 유대교의 판도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했어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여러분이 제2이스라엘 입장에 서 가지고 제1이스라엘 선생님 아들 딸을 중심삼고 결속해 줘야 돼요. 그걸 선생님이 나라나 무엇이나 전부 다 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까지. 축복받은 가정을 선생님 아들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빠요.

남북이 내일 모레 통일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런 것이 하나 안 되면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선생님이 손 안 대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선생님의 관이라구요. 그게 원리관입니다. 그거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자기 아들딸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선생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들딸은 타락 안 시키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던 놀음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 선생님이 성격이 급하면 뺨을 갈기면서 '이놈의 자식!' 하고...

이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후려갈길 거라구요. 성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 자식 뭐냐고 다그쳤다고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세계 사람들을 때가 될 때에는 후려갈겨 가지고 강제로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을 들이 패 가지고 죽을 사지에 몰아넣어서라도... 선생님이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해야 돼요. 안 되면 '뭐야, 이 자식아!' 해서 굴복시켜야 돼요. 형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가리를 벌리면 아가리를 썰 버리는 거예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여러분 아들딸을 팔아서라도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독교의 예수님 시대를 두고 보면, 예수님의 120문도가 죽어도 선생님 아들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결혼도 못 했다고요. 여러분의 180가정을 희생시키더라도 선생님 아들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선생님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애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라먹었어요. 그러니 그걸 두고 원한이 많아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선생님의 3대, 선생님이 사랑했던 여러분의 아들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남북을 통일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아들딸이 살 수 없어요. 헌법을 제정해서,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법을 정해서 즉각적으로 대가리로부터 전부 처리하는 거예요.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교회 중심한 혼독회와 사회 중심한 혼독회로 교육해 나가야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인들을 결혼시켜 줄 때도 원수였던 사람하고 해준 거예요. 그래, 유관순을 일본 사람하고 결혼시켜 줬어요. 국경철폐를 하라는 거예요, 국경철폐. 영육 세계에서 그런 놀음을 하니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우리가 밀고 나간다고 해도 반대할 것이 없어요.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서 나가면 김정일은 안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런 운세가 지금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김정일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살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음력 8월까지 고비라고 봐요. 어떻게 하든지 이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 심각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체제로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혼독회예요.

교회를 중심삼은 혼독회가 있고, <워싱턴 타임스>의 사회를 중심삼

은 훈독회가 있어요. 상하원을 중심삼고 주로부터 군까지 훈독회 하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도 두 훈독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듣게 되면 ‘이놈의 자식들, 네 마음대로 했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약속해 놓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어?’ 하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속지 마요. 알겠어요? 「예.」

뭐 신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방향이 틀릴 때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야 된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송곳이면 갈라지지요? 남자 여자가 있다면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가지를 잡으면 끌려나가게 되어 있다구요. 둘이 하나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우선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때는 여자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니 자리에서 가인 아벨을 교육해야 될 때예요. 내 말을 절대 믿는 사람은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세계의 싸움을 조건으로 하는 정치의 야당 여당, 가인 아벨이 아니에요. 통일당이예요. ‘집 당(堂)’ 자 통일당이예요.

어머니 책임을 해서 이들을 수습해서 정성을 들여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할 때는 사흘은 나가서 자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가서 개인 트라이(try)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사람 네 사람을 우리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훈독대회의 목적은 기독교와 종단을 하나 만들기 위한 것

왜 나흘만에 집에 들어가느냐? 예수님도 세 제자를 축복 못 해줬어요. 세 아들딸을 축복 못 하면 실패예요. 여러분 시대는 예수 시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 시대니만큼 120가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섭리시대는 180가정이예요. 180가정을 중심삼고 세 제자로부터

전부 다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을 다 해줬지요?

그래, 가인 계열인 동시에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묶어 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지요? 축복가정들을 다 내버려두었지요? 신앙적 믿음의 조상 계열을 조직화해야 돼요.

자기들이 축복해 준 믿음의 아들딸을 조직화해서 그들이 가인이니 자기의 직계 혈통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남북이 하나되기 전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원칙적인 면에서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독교하고 하나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종교권과 하나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반대하겠으면 반대하라는 거예요. 종교권만 하나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탄세계의 어느 정당이든 밀면 밀려 나가야 돼요, 별의별 녀석이라 해도. 알겠어요? 갈 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통반격파를 알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동회입니다.」 혼동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와 하나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앞에 기독교가 하나되어야 돼요. 기독교와 하나되면서 각 종단과 하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종단장들을 모아 가지고 형님 동생으로 다 만들어 주었지요? 「예.」 그래서 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조상을 모셔야 돼요. 셋째 번 아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위기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손자로 서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놈의 자식들, 자기 아들딸을 취직시켜서 밥벌이해 먹게 하겠다고? 대가리를 깨 버려야 돼. 이번에 안 나시면 통일교회에서 제적해 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예.」 딴 데 취직해서 해먹는 녀석들을 일선에 내세우라고요. 다른 교인들은 밥을 굶으면서 고생했는데 그 동안 월급 받아 가지고 잘살았으면 집을 팔아서 쓸어 바치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정비가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법이 생기면 법으로 처리할 때가 와요.

김영희, 아들딸이 뭘 해? 또 한번 물을 거라구. 원리가 이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똑똑히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청산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중성을 중심삼고 다리를 걸고 있으면 두 다리를 가지고 못 가요. 이번에 회개하면서 자체 가정을 정리해야 돼요. 여기가 천왕궁이에요. 천성왕림궁전이에요. 하늘나라의 출발 기지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못 한 사람은 여기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 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제는 반대가 없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해 나가라

아들딸들이 축복받은 사람 손 들라구요 교회 일을 해요, 밥벌이를 해요? 손을 계속 들라구요. 다 일어서요. 아들딸이 교회 일을 해요, 밥벌이를 해요?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 일 하는 사람은 앉으라구요.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괜찮아요. 졸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앉으라구요.

이놈의 간나들! 선생님의 아들딸이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다 걸려 있어요. 먼저 박사학위를 땀다고 자랑하면 다 걸린다 이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 탕감을 해라 이거예요. 선생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성진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 간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원리원칙을 착지시켜야 돼요, 착지. 알겠어요? 「예.」

오늘 여기에 왜 모였느냐 이거예요. 이 원리원칙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참부모를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셋째 번은 재림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난을 안 당해요.

핍박이 없어요.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 부모가 있으니 밀어줄 수 있어요. 대담하게 일선에 나서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강제가 아니예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영계에 걸려 버려요. 내려요.

이번에는 집에서 못 자요. 나흘마다 한 번씩 집에서 자는 거예요. 셋이 하나되어야만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자리가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했지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해 준 일족이 있다구요. 180가정을 축복해 줬고, 아들딸도 있고, 또 일족도 반대하지 않고 잘 했다고 지지한다구요.

그래서 뭘 하느냐? 조국광복을 이뤄야 돼요. 결론이 뭐라구요? 「조국광복입니다.」 그 조국의 삼팔선이 뭐예요? 하늘땅의 삼팔선이예요. 개인·가정·종족·민족·세계·우주가 삼팔선으로 갈라졌고, 하늘땅이 삼팔선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사탄이 만든 거예요. 이제 사탄까지 굴복했어요. 사탄 졸개들이 패잔병이 되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후려갈기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예.」

자기 역량을 중심삼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야당 여당을 소화하고,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려니까 교회 내의 종교인 대표 교육, 그 다음에 외적 지식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바람잡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두 면을 교육해서 자기들 갈 길을 잡아 여러분 가정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정착시대에 왔다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구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 선생님을 믿지 마요.

이미 부과된 책임을 중심삼고 자립할 수 있는 모든 안팎의 내용을 다 알아요. 개인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위해 살아야 된다고 했지요? 가정을 어떻게 하나 만드는지 모른다는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의 없이 절대신앙사랑복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이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뭐예요? 「축복으로 이어받은…」 승리적 실적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참부모님의 승리적 실적이 내 실적이 되어야 돼요. 조국광복을 해야 그 일이 벌어져요. 참부모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축복가정 아무개’ 하면 된다구요.

여기에 참부모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예요? 조국광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복을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어요? 이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미국일본중국소련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반이 다 돼 있어요. 소련이 반대하더라도 형제끼리 보호해서 나간다면 깨뜨려 버릴 수 없어요.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을 선교 보낼 때 열 사람씩, 열두 사람씩을 보내면서 대사관을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대사관을 전도하라고 보냈다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대사관을 전도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대사관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판뚜(판전) 했어요. 어렵다고 헨드레이징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다 망쳐 놓은 거예요.

대사관을 전도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대사관들이 후원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잘 하라고 후원하는 거예요. 각국에 나갔던 국가 메시아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들이 합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얼마나 항의하겠어요? 왜 후원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기반도 없잖아요? 고독단신이에요.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별의별 놀음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니는 녀석, 옆으로 굴러다니는 녀석, 별의별 녀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통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 가지고 고생하는 선교사를 자기 아들한테는 안 시키겠다고 별의별 학교에 보냈어요. 그놈의 자식이 하늘 앞에 선 사람이예요?

선생님은 죽을 사지에 간 거예요. 푸에르테 올림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아요? 아메리카노 호텔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아요? 남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강도범들, 법정에서 서면 사형 받을 사람들이 피신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한 주일이면 한 사람씩 총살당해 죽어요. 우리가 산 농장에 서도 두 녀석이 죽었다구요. 그런 판국에 선생님은 맨발 벗고, 맨발이 아니예요. 맨몸뚱이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가 염려를 했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 북한이 문제가 아니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어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예요. 내 무슨, 여편네 무엇, 아기 무엇? 군대 소집에 출정하는데 어머니가 죽었다고 보류돼요? 사탄세계도 하고 있는 그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결심이 안 서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구요. 앞장서서 가야 할 사람들이 길을 망치는 놀음을 해서는 안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미국의 혼독대회 내용을 숙지하여 그대로 교육을 정착시켜야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이번에 나가야 돼요. 미국에서 1차, 2차, 3차... 7차 대회까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1차, 2차, 3차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했던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정착해 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예.」

유종관 하면 유종관 일파를 중심삼고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끌어서 심부름시키라는 거야. 월급 주는 것이 아니야.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나? 「예.」 둘 다 합해 그 아들딸이 뭉쳐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축복받은 외적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야 된다고요.

생사지권으로 교류해서 그런 환경적 여건을 일체화시켜야만 그 앞에 남북의 큰 나라, 종족적 기반이 일체화됨으로 말미암아 남북통일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는 통일돼요. 세계적 기반은 선생님이 이미 다 닦아 놓았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선생님은 떠나는 거예요. 국가시대에 국가를 넘어서라고 하는데 못 넘어서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선생님 이름도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정열, 내 일가, 문씨, 아들딸을 희생시킨 거예요.

기독교가 받들었으면 성진이 어머니와 성진이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놈의 간나 자식들이 파탄시켜 났어요. 문씨가 천대받고, 레버런 문의 나라라고 한국이 천대받았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알겠어요? 「예.」

천대받았다고 내가 천대받았다고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를 하려면 세상을 복수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복수해야 돼요. 피눈물이 맺히게 한 일이 그들보다도 여러분이 많아요. 선생님이 있는 정력을 다 해서 틀림없는 훈시를 했는데 이걸 뺏아치우고 넘어가고 한 거예요. 여러분부터 처단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떠날 때 그랬어요. 미국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굿바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일본도 그래요. 유정옥, 알겠나? 「예.」 너희들도 그렇다 말이야.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자기 소유를 교회 재산으로 하라는 것이 원리적 결론

지금까지 수련회 하면서 보따리를 싸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르딘에서 수련할 때 보따리를 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보따리 싸는 것은 교회 재산이에요. 나라 재산이면 선생님 마음대로 못 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영계 육계에 누시엘의 잔당이 활동을 못 해요. 딱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했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하늘땅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최후의 고비가 남북 통일이에요. 알겠어요? 「예.」

내가 부흥회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오빠고 형님이다!’ 한 거예요. 형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장자권이 돼야지요? 오빠가 되고 형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가 제물을 바쳐야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탕감돼요. 자기 소유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언어떡 더라도 전부 깨끗이 팔아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적 결론이에요. 원리적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그것을 했어요.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다 뿌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아들딸을 사랑하면서 희생해 나왔어요. 희생하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기독교와 하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광야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누가 보호했느냐? 통하는 할머니들이 보호한 거예요. 예

수 때의 만나와 마찬가지로요. 할머니, 아줌마, 딸 될 수 있는 여자, 이 3대가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연도 많고 분함도 억울함도 많은 생애를 거쳐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이 뜻이 알게 되면 복수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여러분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많이 달렸더라도 가을 때까지 잘 익는 것만 따는 거예요. 7부가 익었더라도 거름더미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3대가 하나되어 움직여라

곽정환, 알겠어? 「예.」 이제부터 혼동회한 것을 알려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것을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입니다.」 원래는 26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서두르라고요. 28일까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28, 29일에 등록합니다.」

국가 메시아들은 옛날 선거 때 우리에게 신세 지고 따라다닌 사람들을 다 알아요. 이제는 본격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야당에나 여당에나 들어가서 자기 발판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나라를 목숨 걸고 찾아야 돼요.

질문 없어요? 질문할 것이 없지요. 가자마자 여러분 아들딸이 취직이고 무엇이고, 얻어먹든 말든 일선에 내세워요. 3대가 하나돼야 돼요, 3대. 알겠어요? 「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하나돼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을 중심삼고 아들딸 손자까지 3대예요. 3대가 하나되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딸과 손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져요. 패자의 명찰을 달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못 했다고 해서 참소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있는 정성을 다 했

어요. 선생님이 책임 못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말해요. 책임을 다 했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곽정환, 프로그램 짜서 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몇 사람이 올 거예요. 「예, 오늘밤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역시켜서 하고 있는 실상을 그냥 그대로 전개해서 내용을 알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빨리 그 내용을 중심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을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문할 때 어떤 나라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가져야 되겠다구요. 알싸, 모를싸? 「알싸!」 평준화 활동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것이 힘들면 혼독회 하는 내용을 번역하는 거예요. 요전에 제주도에서 감동 받은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것하고 《참부모》를 번역해서 하라구요. 《참부모》 한 권만 가지고 해도 다 된다구요. 알겠어요? 「예.」 메워 가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구요.

아들딸을 일선에 내세워라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안 있어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야 되겠어요. (웃음) 어머니가 집에 있다구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가셔야 됩니다.」 있을 때보다 몇백 배 정신차려서 하라구요. 총 도가니가 났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는 남의 일을 안 해줘요.

예전에는 타락해서 피해 입힌 사람만 쫓아냈어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축복해 줬어요. 이제는 피해 입은 사람 끼리끼리 축복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수가 모자라니 아래 가정을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대대적으로 가정적 질서를 정비한다 이거예요. 36가정이 책임 못 하면 끌어올려 가지고 보충하겠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가정을 축복했지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희진이도 영계에 가고, 흥진이도 영계에 가고, 영진이도 영계에 갔다구요. 그 다음에 혜진이는 여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영계에 갔어요. 네 아들딸이 영계에 갔어요. 자기 청춘시대를 살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여러분이 편하게 이불 덮고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조국광복, 나라를 위해서 바쳐 가지고 잔치하고 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요전에 영진이를 보내고 원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눈물도 안 흘리고 태연하니까 사길자가 나보고 ‘위대합니다, 아버지!’ 이라고 있더라구요. 위대가 뭐야? 그 배후에 천천만의 산곡이 맺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역사시대에 죽어 가는 직계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에 얼마나 곡절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영계에 간 아들딸을 생각 안 해요. 그 대신 하늘 앞에 맡겼어요. ‘아버지, 책임지소.’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아들딸이 굶어죽으면 어때요? 일선에서 죽으면 어때요? 저나라에 가면 일가를 대표한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똥개 새끼 모양으로 잠을 자다가 반혀 가지고 나중에 한을 품는 비참한 놀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구요.

김일성이 나오는 부분을 누가 혼독하겠나? 그것을 하나 읽고 가자구. 지금 몇 시야? 「여덟 시 15분 전입니다.」 밥 먹어야 되겠어? 「진지를 잡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말은 듣기 싫고 진지만 먹겠다고? (웃음) 수련하기 전에 박마리아하고 김활란, 김일성 부분을 읽고 시작하라구. 알겠어? 「예.」 자신 있겠지? 「예.」 내가 가더라도 괜찮아? 「예.」 내가 열이 좀 있다구요,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빨도 해야

된다구요. 내가 없더라도 잘 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경배)

전라도 출신 셋이 하나되어 경상도 출신의 대리인과 하나되어야

내가 이제는 교회를 돌보지 않아도 될 때도 왔기 때문에 선생님 대신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곽정환이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하늘이 판정하기 전에 이려고 저리고 입을 벌리면 혀를 빼 버릴 거예요. 절대 뭐라구요? 「복중!」 절대신앙! 「절대신앙!」 절대 뭐예요? 「사랑!」 절대? 「복중!」 한 녀석이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저 잘랐다고 하는 패들! 이려고 저리고 모략중상하고, 별 의별 갈래가 다 있어요. 갈래를 만드는 녀석은 사탄이에요. 말이 나오면 이제는 누가 했는지 조사국을 만들어서 조사해야 되겠어요. 조사해서 공개 처단해 버려야 되겠어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지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전라도 사람이예요? 임자가 전라도야? 「그렇습니다.」 전부예요, 전부! 경상도는 별로 없구만. 불쌍한 전라도를 대우해 준다고 올려준 줄 모르고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예!」

전라도를 구해 주어야 돼요. 아벨 전라도 패가 되어 가인 전라도 패를 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 따라가면 개 새끼예요. 그건 가인보다 더 나빠요. 원리가 그래요. 알겠어요? 「예.」

황선조, 알겠나? 「예.」 확실히 해! 유종관! 「예.」 김봉태! 「알겠습니다.」 여기 경상도하고 하나되라구. 삼위기대예요. 대리인, 예수 대신으로 세웠으니까 세 형제가 하나되라구요. 그러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어요.

곽정환, 알겠어? 「예.」 형님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왕의 자

리에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하면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3단계 이상 조직 편성을 넘어가지 말라구. 알겠나? 「예.」

우리 조직 편성의 3단계 원칙

대리인은 꼭대기에서 관리하는 책임이지, 분야적인, 실무적인 책임자가 아니라구. 7개 분야를 어떻게 책임지겠나? 체제를 전문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장(長)을 중심삼고 하라는 거야. 장 하면 3단계예요. 선생님의 대리인이 있으면 여러분까지예요.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국가 책임자는 보고할 수 있어요. 세 번째예요.

일본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이고, 일본 협회장이 둘째 번이고, 국장은 세 번째예요. 국장까지는 한 체제예요. 대번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을 오쓰카가 책임졌으면 일본 전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책임자는 국장 과장까지예요. 과장은 전부 보고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대번에 알아요.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유정옥은 그렇게 하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계예요. 인사조치를 함부로 못 해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예요. 나라 책임자가 있으면 사방은 중심을 거슬리고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보호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중심삼고 사방이에요. 두 사람의 보고, 세 사람의 보고를 들으면 대번에 아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편성을 중심삼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를 주의하라구요. *

조국광복의 기수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내가 남북통일 종교지도자 대회(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지도자 초청 특별강연회)를 할 때 약속했어요. ‘될 수 있으면 종단이 합해서 반드시 남북통일하는 데 주역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고 그랬다구요.

종교계와 정치계 인사의 교육 방안

그래서 내가 지시한 것이 뭐냐?곽정환이 잘 알고 있으니 그 종단장들을 중심삼고 공문을 내는 거예요. 각 종단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구요. 수백 명이 되지 않을까 본다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종단의 이름으로 이번 남북통일 전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냈고 동시에 교육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래 놓아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된다구요. 그러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여러 배후 단체에 협조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연결시켜야 됩니다. 총의에 의해서 자기 단체가 남북통일 전진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

2000년 3월 25일(土), 청평수련원.

* 이 말씀은 국가 메시아와 교구장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아야 돼요. 그러한 가입서를 받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구요. 알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은 철저히 모아서 40일수련이라든가 무엇이든가 꼭 해야 되겠고,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 못 된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앞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도(道)의 도의 원으로부터 군(郡)의 군의원까지 어떠한 선거에서도 계승적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대통령선거를 할 때까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움직이면 남북통일 전진 지도자 세미나에서 교육받고, 공무원으로부터 중요한 책임자들이 여기에 가입하여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국적인 활동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통반격파까지 완성해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본다구요. 알겠어요? 「예.」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 수행을 중심삼고 결정적인 내용의 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결정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생님 대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거국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총진군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결심한 사람, 서서 손 들어 봐요. 앉으라구요. 이제부터 훈독회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도자를 양성해야

이 《참부모》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몇 장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앞으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통반격파를 해서 국가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후원 안 했기 때문에 망쳐 놓았고, 종교인들이 후원 안 해서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부가 후원할 수 있고 종교인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엮으로 말미암아...

이번이 좋은 찬스예요. 초종파적인 연합, 기독교하고 통일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구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형제관계를 중심삼고 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을 못 하겠다는 사람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이 일까지도 하게 하려고 그래요.

곽정환! 「예.」 그런 의미에서 지부장, 교구장들이 강의하는 모든 전부를 다시 검증해야 되겠다구요. 지금은 강의를 책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감화력을 중심삼고 인격적 기준에 걸여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빼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예.」 황선조, 알겠어? 「예.」 철저히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부인들을 중심삼고 대역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구요. 부인 교구장도 많이 만들고 말이에요. 부인을 내세워서 그 지역에 영향이 클 것 같으면 부인 교구장들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더 할 거라구요. 그런 것도 알고 현재 자기 책임을 못 하게 되면 자진하여 물러가면서 자기 후견인들을 몇 사람씩 양성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 사람씩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코치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영양분을 공급, 전달하게 된다는 것은 이론적이라구요. 그런 것을 재정비해야 되겠다구요. 인사 조치를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4월 13일이 선거일이니만큼... 선생님이 축복 받은 날이 4월 11일이에요. 3일간으로 날짜도 딱 들어맞았다구요. 그때부터 앞으로 세계의 축복가정들은, 자르딘에서 40일수련을 받은 사람들은 대이동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미국에 대이동이 벌어진다구요.

여러분도 앞으로 여기서 대이동이 벌어져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을 수 없어요. 미국에 갈지 일본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말, 미국말을 몰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그런 놀음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는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돼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한 나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연결돼요. 그때를 중심삼고 우리가 책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이 바라는, 결여된 분자가 아니라 충신 된 분자로서 하늘이 세계에 자신을 갖고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구요.

영계에 가서도 교육해야 되니 말씀을 외울 정도까지 혼독하라

혼독회는 책을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구요. 이제부터 혼독회를 할 때는 무슨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15분 정도 읽으면 연이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혼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읽지 못하면 망신이 벌어져요.

지금 문난영이니 정원주를 시켰지만 그렇게 안 한다구요. 이제부터 혼독회에는 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구요. 책 한 권을 혼독하는 데 닷새면 닷새 딱 정해서 비율적인 기준에 맞춰 하루에 어디까지 읽게 되고, 며칠에는 어디까지 읽는 거예요. 며칠을 정했으면 그 날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읽고 나서 다시 읽는 거예요. 아침 6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시에도 할 수 있고, 5시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설교집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걸 참조해요. 지금 혼동회 하는 내용을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배후의 그 모든 전체를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다가요. 3백 권, 몇백 권이 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콘사이스 모양으로 자기들이 참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가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문총재의 사상을 연구하게 돼요.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관계되어 있으니만큼 여러분 국가 메시아라든가 각국에 와 있는 교회 책임자들이 묻게 될 때 답변 못 하게 되면 창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왔다가요.

또 여러분이 여기서만이 아니예요. 이 말씀은 영계에 가서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대 영계에 가서 몇천억을 중심삼고 분담해서 교육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가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이제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요.

오늘 아침에 흥진군을 불러 가지고 지상에서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후원하라고 하니까 전면적인 후원을 한다고 약속했어요. 영계를 동원할 거라구요. 김효남 장로, 왔나? 어디 있어? 「방금 나갔습니다.」 앞으로 희진군이 북한을 중심삼고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한 살인마들의 총책임자로 배당해서 영계 그 권내의 영들을 부활시켜 동원해 가지고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시엘은 이미 굴복했는데 잔당들이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영계의 사탄 잔당들을 몰아내는 책임자로 세우려고 한다가요. 여기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영적인 총배치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영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을 시키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구

요. 자기 돈을 쌓아 놓고 교회 돈을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자기 아들딸을 내세워서 가정의 생활방편을 위한다면 문제가 된다구요. 자기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예.」 영계가 가만히 안 뒹요. 선조들이 목을 조르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진다구요.

과거에는 사탄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놀음을 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뜻을 선조들을 중심삼고... 원수가 아니에요. 일족을 중심삼고 부족한 자기의 후손들이 교회를 이용해 먹고 이러면 가만 안 두고 데려간다구요. 그런 지시를 내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북통일만 벌어지면 즉각이라구요. 그때는 탕감시대가 없어요. 탕감시대에는 몇천 년을 돌아갔다구요. 이제는 탕감시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직접시대에 들어가요.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옥에 내쫓았어요. 그와 같은 시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다가는 반드시 영적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소유권 결정의 원칙

그래서 절대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 「절대사랑!」 그 다음에는? 「절대복종!」 절대복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만민이 지음 받아 사랑권 내에서 일체화되지 못했던 것을 재창조, 재편성해서 그 기준을 돌려 맞춰 놓을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이 마이크와 같으면 마이크를 고장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의미에서 일방통행이에요. 쌍방이 없어요. 일방통행의 결정적인 승리를 하늘 앞에 거둬 드려야 돼요. 승리해서 거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승리한 모든 것을 선생님의 아들딸 가정을 통해서 가인 아벨이 합한 그 기준 앞에서 어머니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하나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바쳐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무시할, 소유권을 전폐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4월 11일만 지나면 선생님의 아들딸들을 중심삼아서 소유권 출발이 벌어진다구요. 총생축헌납제를 했으면 바쳐진 모든 물건이 하늘 앞에 돌아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승리한 영·육계의 통일을 위주한 남북통일권을 확립해서 세계통일 운세의 국가 형태를 갖춘 그 기반 위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하늘로부터 부모님이 상속받아 아들딸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 반면에 사탄은 완전히 뒤로 가는 거예요. 봉헌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을 중심삼고 못 바쳐요. 현금하더라도 앞으로 부모님에게 현금 못 해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선생님의 아들딸을 중심삼아서 하나되어 가지고...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돼요. 하나되어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어머니는 가인 아벨을 하나 못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된 입장에서 아들딸의 본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협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지, 틀리게 되면 아들딸들이 원리를 혼동 회한 내용을 중심삼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참소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된 입장에서 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된 가정적 기반에서, 예덴에서 파괴되었던 가정적 기반에서 완전히 부모와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돼요. 참부모가 아니면 바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라구요.

이제 4월 11일부터 소유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36가정이든 누구든 처단 받는 것보다도 풀래미로 가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총생축헌납제를 하기 위한 1만6천 달러, 16수예요, 16수. 이것을 중심삼고 자기 재산을 대표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결혼해서 소생권으로서 이것을 등록하고 나서 나와야 된다고요. 대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1대로부터 2대, 3대, 4대, 역사적인 선조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한 혈족을 중심삼아 나왔지만, 축복가정 기준을 철저화한 기준을 중심삼고 36가정 재편성, 72가정 재편성, 124가정 재편성... 4억쌍 축복가정까지 재편성해야 돼요. 재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해서 제외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맨 풀래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적인 시대가 온다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탕감시대이니 마음대로 조정했지만, 이제는 원칙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가정도 넘어서야 된다고요.

부모님의 수고의 기반을 중심삼고 효자 효녀의 가정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시키고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가인 세계의 가정들, 국가, 세계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북한까지 같은 입장에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디제이(DJ)라고 해서 차이 있게 안 봐요. 같은 입장에서 보지만, 남북통일 전진 지도자 세미나를 어느 정당이 후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안 되겠으면 전부 다 탈락될 수 있는 길을 취해서 우리가 남북통일의 성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돼서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부모님 앞에 헌납

하게 될 때는 국가적인 가인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세계가 하나되는 데 문제없다구요.

기독교가 이미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교권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인 아벨 형태의 기준을 중심삼고 부모님 자리를 점점 높여서 유엔을 중심삼아 가지고 최후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복합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랐지만 선생님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하늘의 아벨적 기준의 이상권으로 전체 전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삼고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국가를 수습하지만, 세계를 수습하는 것은 선두에서 선생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고했으니 수고한 기반을 중심삼고 국가적 차원에서 부끄럽지 않은 효자의 가정, 효녀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정은 종족을 중심삼고 7대를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영계에서 7대 조상을 해원해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4대까지 하는 거예요. 14대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선생님의 명령이 없어도 해방해서 영계에서는 축복받지 않은 조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지옥이니 무엇이니 자동적으로 때려부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일시에 다 폐쇄해 가지고 여러분이 선조의 조상이 되어 영계에서 종족적 분파적인 계열을 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10년에 탕감할 것을 1년에 탕감시키는 거예요. 영계에서 재훈련, 지상지옥 이상의 훈련을 해서 탕감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영계에 가서 스타트 명령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가야 천하통일, 천지통일, 천상지상 통일의 세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지금 말한 것을 잊지 말라구요. 알겠지요? 「예.」 기록하지 않고 다 버티고 있어요. 머리가 다 좋아요? 여기에 기록한 것을 재편집해서 나눠 줘요. 알겠나, 황선조? 「예.」

자르딘 40일수련과 총생축헌납제를 통해 조국광복을 할 수 있어

훈독회 하자구요. 여기 8장, 9장을 전부 다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오면서 훈독한 내용이에요. 이걸 전부 다 맞춰 나온 거예요. 읽으라구요.

『제8장 3대 주체사상과 참부모 선포. 제1절 3대 주체사상과 부모주의. 1. 3대 주체사상은 우리의 소원. 인간의 소원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뭐냐? 아들딸을 낳되 그 아들딸이 사탄세계로부터 핍박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하도록 키울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중심삼아서 한국이 이루지 못한 상대적 국가 형성을 지금까지 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기반을 다 닦았다구요.

이제 돌아와서 갈라졌던 가정 형태,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졌는데 이 모든 국가들을 축복받은 가정들을 중심삼고 자르딘에서 일체화시킨 거예요. 40일을 중심삼아서 총생축헌납 기간을 거쳐 이제는 모든 것이 해방적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바른쪽은 축복가정으로 지상이라면 왼쪽은 천상세계로 천상세계가 재림해서 40일수련 총탕감헌납제를 통해 다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한꺼번에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라는 국가 기준이나 예수 시대에 죽었던 예수의 해원 성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반을 중심삼고 국가가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국가들은 가인 국가로서 전부 다 일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뭐냐? 세계 정상적인 면, 사상적 문제에 있어 하늘을 중심삼은 종적인 통일교회가 있고 상대권인 해와가 있다구요. 원래는 통일교회권 하에 가정적 수평, 종족적 수평, 민족적 수평, 국가적 수평이 됐으면 이것이 하나되야 하는데 하나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통일교회 자체가 그 일을 위해서 해 나오니만큼 한국과 일본이 일체화된 기반에 장자권과 일체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장자권의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지구성에 생겨나요. 그것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에요.

40일수련을 받고 총생축헌납기금을 중심삼아서 일체화된 모든 사람은 이제 대이동이 벌어져 조국 광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북이 통일되어야 돼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이동하는데 북한 땅에 배치해도 좋으나 했을 때 북한에서 그것을 승낙하면 자동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환시대에 있어서, 어제도 말했지만 한국과 일본과 미국, 전세계의 통로를 부정해서 고립되니 해양세계부터 방지하려고 그런다고요. 육지나 모든 것을 방지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 국방부나 유엔(UN)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힘에는 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제 금년 8월까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도 문제되고 전체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참어머님 순회 강연의 섭리적 의의와 성과

어머니가 지금까지 일본에 가서 대회를 했지만, 미국에 가서 열두 곳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4월 8일부터 20수를 채우는 거예요. 20수, 4수, 8수가 사탄의 한의 수예요. 사 팔이 삼십이($4 \times 8 = 32$), 이것도 32개로 되어 있다구요. 재출발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적 기준에서 수리적인 기준을 맞춰 가지고 섭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어머니가 강연회를 하면 대부흥이 벌어질 거라구요. 천사장을 굴복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을 미리 배치해 놓았다구요. 그것을 알아요? 「예.」 전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을 미국에 파송한 거예요. 교회 목사 2천 명을 데려온 것도 그 선교사들의 공적이예요.

이래 가지고 44개 종단들이 하나되기 위한 놀음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하는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통일교회가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강연한 곳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판도가 벌어지면 가인 아벨이 어머니를 중심 삼고 조건적으로 하나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원리관이라구요.

여기에서 대환영을 받게 되면, 원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50개 주를 할 수 있어요. 50개 주를 커버하게 되면 천사장권 미국의 전체 주관권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형제지인연인 가인 아벨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위에 어머니가 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하고 하나된 미국, 천사장권은 한국과 일치되는 거예요.

일본 나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한국만 협조하게 된다면 부자협조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되면 자식은 어머니를 모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 자체가 모실 수 있는 놀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일본이 책임을 못 하면 섭리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민약에 일본이 책임을 선생님이 축복받은 날까지 해낸다면... 지금 까지 공금을 전부 다 잘라먹었어요. 그것을 총탕감하게 된다면 비로소 지난번에 실패했던 4억쌍 축복을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구요.

일본이 책임 못 하면 일본이 있겠으면 있고, 말했으면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성들이던 모든 전부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대교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제2 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섭리를 연장해 나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되는 거예요. 해상 해와 국가권이 국가를 대신해서 모셔드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된다면 그 나라로 해와 국가의 사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 같은 양반이 ‘이 축복은 세계사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삼고 상·하원이 일체가 되어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전세계의 구도의 목적임에 틀림없다.’ 하면서 전세계 국가 수령들 앞에 선포하고, 혹은 대통령이나 부통령들을 모아서 축복을 시작하게 되면 해와권 국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국에 없었던 축복을 홀로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후원자의 자리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고, 필리핀이 들어가고, 대만이 들어가요. 여러 나라예요. 3개 국가가 자원해서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오니만큼 이런 차제에서 문제는 뭐냐?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해와 나라에 앞서서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남북통일은 되게 되어 있으니 통반격파에 주력하자

그러한 전체 섭리상에서 보는 총결론을 짓기 위해서 남북통일 전진 대회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 8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동시키던 것과 마찬가지로 21개 곳에서 선포를 했어요. 남북한을 돌이킬 수 있는 문만 열게 된다면 순식간에 통일되는 거예요.

21개 블레셋 권을 넘어서 가나안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40년을 돌았어요. 그런 가정적 출발을 해서 세계 가정을 이룬 거예요. 세계 가정, 사탄세계 가정과 하늘세계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세계 가정이 가인세계 가정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세계 판도, 영계 판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국가 기준 형성은 자동적인 원칙이 되어 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써 위하고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출동해 가지고 집에도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삼고 세 제자를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직계인 베드로, 야곱,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표자가 베드로이고, 소망의 대표자가 야곱이고, 요한은 사랑의 대표자예요. 이들을 중심삼고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을 때 같이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 해방과 더불어 여러분의 친족이 한 날에 전부 다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 남한에서는 이미 전국민이 축복받고 나서야 돼요. 남한을 두고 보면 1천 2백만 축복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네 사람씩만 해도 몇 명이에요? 4천 8백만 수가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통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반격파입니다. 알겠어요? 「예.」 황선조, 알겠어? 「예.」 이것을 안고 추어야 돼요. 여성연합과 하나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딸을 대표한 가정의 입장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는 넘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웠어요. 대리 회장을 세웠다고요. 누구라고요? 「곽정환 회장입니다.」 국가적 대표예요. 선생님은 하늘땅의 대표라면 지상 위에서 국가적 대표를 중심삼고 선생님을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리 대표, 일본의 대리 대표... 여기에서 이루어진 공식을 중심삼고 전세계에 일원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참부모연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주평화통일가정당입니다. 평화는 수평이에요. 그리고 통일은 종적이에요. 천주평화통일 뭐라고요? 「가정당!」 가정당이에요. 가정이 책임 못 했어요. 종횡의 일체권, 하늘 부모와 자녀, 상하좌우전후관계가 안 되어 있다구요.

문제는 가정을 중심삼고 상하관계, 좌우관계, 전후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조상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자식의 자리에 서서 참부모처럼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기준의 참혈통을 중심삼고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없으니 자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것이 역사적인 최후의 총결산인 동시에 최후의 사탄 세계의 종말, 하늘세계의 새로운 출발, 지상 천상 이상 사랑의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정신차리라고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놀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말씀은 영계의 헌법이 돼요. 영계와 지상에 기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들으라고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읽으라구.

내 나라 통일을 위한 운동

『...세계적으로 갖추어진 전부가 한국에서 접붙이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나라 통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통일된 기반 위에 접붙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요. 축복가정은 예수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딸은 성약시대와 마찬가지로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들어가서 참부모 선포를 하고 뭘 했느냐? 깃발 달고 사진 붙이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놀음을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전국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야 된다고요. 광정환! 「예.」 계속해서 이제부터 하는 거야. 알겠나? 「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하라고요. 이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깃발을 달고 사진을 붙여야 됩니다. 남북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깃발을 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계에 있는 선조들도 와서 협조해요. 깃발 꽃고 선생님 사진 붙이기를 전국 운동으로 해야 돼요. 축복가정으로부터 한 가정도 남아지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사진을 붙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집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일을 출발했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나올 거라고요. 읽으라구. 나중에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의 선조들은 먼저 가 있는 천사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 여러분 뒤에 와 있어요. 내가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다 영계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신을 갖고 문총재의 말만 믿고 행동하면 별의 별 일이 벌어집니다. 요전에 시·군·구 참부모 환영대회 할 때도 교

역장 여러분이 마음먹는 그릇대로 찬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부장들에게 3천 명 대회를 하자니까 다들 반대하더라구요……』

인류의 애국자가 누구냐 하면 참부모고, 천지 부모,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존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나라가 있어야 돼요. 금년 80세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세계문화체육대전 개최의 의의

자, 윤택근한테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하라구요! 윤택근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리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문화체육대전이 무엇인 줄 알아요? 모든 분야의 올림픽 챔피언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땅 파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세계 일등 노동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자는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 높아요.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체육대전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중심입니다. 아무리 챔피언이라고 해도 가정이 틀어지면 챔피언이 안 돼요. 순결 가정이지요? 챔피언이라도 순결 가정이 되어 원리적 전통을 따라서 하늘 부모, 천지 부모가 제시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상속받기에 충분해야만 세계 왕권의 대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종목 이상의 종목이 있어요. 수많은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

챔피언만 만들어 놓으면 종적으로 전부 다 가려 졌기 때문에 횡적으로 연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어져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땅을 파는 사람은 하루에 몇 평을 파느냐 하는 것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챔피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챔피언을 가리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걸쳐 그런 입장에서 챔피언이 되면 대통령 대우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의 나라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계획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주변 국가를 수평화시켜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상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남북통일 운동에 일족이 동원되어야

남북이 통일되면 비로소 세계의 나라 앞에 주체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주체와 더불어 대상적 권한을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알겠지요? 「예.」 그러니 선생님이 지시한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대가리를 까 버리고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라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뭐가 될 줄 알아요? 선생님이 이 모든 세계적 환경에 말려들어서 ‘내 말을 듣고 움직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 봐서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요.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예.」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나흘만에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일족, 가정이 동원되어야 돼요. 그래, 1970년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동원하는데 여자를 동원한다고 그랬지요?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들딸을 중심삼고 아버지 대신자가 되어, 아담의 자리에 서서, 선생님 대신 동생의 자리에 서서 이들의 남편이 되어 비로소 하늘로 직행할 수 있게

꿈 하는 거예요. 나라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의 해원성사를 하지 못하면 세계로 넘어갈 수 없대구요. 알겠지요? 「예.」 이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에요. 원리가 그래요.

참부모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구요? 형제 선포를 했지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된대구요? 식구 선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의 일족까지 수습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3차인 식구 선포를 중심삼고 모범적으로 가정을 규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닦아 주는 거예요. 문충재가 오빠고 형님이라는 말을 할 때 손 들고 환영하며 박수 하는 것을 다 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남북통일은 하늘땅이 바라는 것이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일족 전부가 바라고 8천만이 바라는 것으로 천주적인 길을 열었는데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싸움을 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법정투쟁을 하게 되면 무죄석방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구요. 그래도 그런 놀음을 못 하겠어요? 놀아먹던 과거의 습관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구요.

몽둥이로 후려갈겨서 나가라고 때려 몰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60이 되어도 손자를 안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잘 경험하고 실적 기반을 쌓고 미래의 전망을 눈앞에 직시하면서 손을 쓰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죽어야지요.

여러분이 불만 붙으면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뼈가 부활하여 군대가 되듯이 국가가 부활하고 세계가 부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대구요. 대통령과 상·하원이 결재하면 하루 저녁에도 국가가 복귀돼요.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나라를 점령할 수 없대구요. 그래서 유엔을 중심삼은 환경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의 기지가 남북통일이예요. 이것은 사상적으로 대치한 민주세계

와 공산세계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 소화의 깃발을 들게 되면 이것은 세계사적인 일이에요.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나를 생각해 봤어요? 광정환! 「통반격과를 완료해야 됩니다.」 통반격과가 마음대로 되나? 야당 여당이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교세계가 도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당 여당이 나를 반대했어요. 종교가 나를 배신하고, 백성이 다 반대했던 거예요.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동원해서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힘으로,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굴복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해놓아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이나? 나라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해서 여당이 유리했어요. 그런데 선거하는데 출마할 사람을 여당 야당의 공동 결의 밑에서 선발해야 된다고요. 선발된 사람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가 그 선거비용을 대줘야 돼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4당이 있으면 4당을 중심삼고 국회의원 출마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똥개 새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국가와 민족 앞에 지방의 유지가 되어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4당이 실력이 있는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아요. 경쟁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형님이 선 출했으니 동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만 만들면 자동적으로 하늘 나라의 가정 편성, 국가 편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무슨 비례대표제? 이것은 언제나 여당이 해먹자는 주의라구

요. 비례제가 뭐야, 비례제? 애국하는 데도 비례제야? 어린애가 애국하든 장수가 애국하든 생명을 바쳐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데는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우리는 하늘땅의 밀사

선생님을 믿지 말라구요. 하나님의 뜻,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뜻을 중심삼고 인연된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과거의 똥싸개까지 훑어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출동하면.

내 자식들보다도 여러분을, 가인세계를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일본 나라, 해와 국가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이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끊어 버리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부자협조 시대라구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아버지 자체가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어머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나라만 찾는다면 말이에요.

남북통일만 하게 되면 해와 국가를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해양 국가는 해와 국가라 해서 평준화 생활 기준을... 영국도 해와 국가 아니에요? 26개국... 모든 재산을 분배해서 평준화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엄청난 혁명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하늘땅의 밀사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밀사이기 때문에 밀사의 사명을 해야 돼요. 그래, 밀사는 출동해 가지고 말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귓속말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보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입을 보안하고, 눈을 보안하고, 귀를 보안하고, 손을 보안하고, 행동을 보안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면 병이 났다고 입원해서 치료한다고 한 4년 동안 쉬면 좋겠지요?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심신 일체가 되어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목표는 남북통일이에요. 통반격파를 해서 가정을 점령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 책임을 자주적 입장에서 실행하겠다는 사람, 하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해요. 내리라고요.

나라가 못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가 하자

오늘 이제 몇 시간을 하고 끝나요? 내일까지 있을래요, 오늘 다 끝낼래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고…」 국가 메시아들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바쁘다구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친족을 통해서 1억씩 모금운동 해요. 어때요? 빚을 얻든지 어떻게 해서 모금운동을 하라고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지 몰라요. 좋은 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 볼까요? 국가에서 출마한 사람들에게 평균적인 면에서 돈을 대서 야당 여당을 만들면 평화예요. 싸움을 안 해요. 야당 뻘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싸움 안 한다구요.

국가가 그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여당이면 여당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비밀리에 도와줘서 몰아주는 부정 투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아는 문충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국가의 힘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주어라 이거예요. 그 이상을 안 하면 모가지가 재까닥이에요. 3차 이상 가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야당 여당이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정부가 필요할 때는 야당 앞에 여당이 바쳐서 야당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사람을 도와줬으면 새로이 출마할 때 열 사람 이상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형제가 싸워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전부 다 평준화시켜야 돼요.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130명입니다.」 130명이 1억씩이면 130억이라구요. 한번 해 볼 거예요, 안 해 볼 거예요? 몸뚱이를 팔든, 무엇을 팔든 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했으니 빚을 지고라도 해야 돼요. 4년 동안 지불 독촉하지 않고 돈 보냈으니 물어야 돼요. 그것 하자구요, 말자구요? 왜 말이 없어요? 하지 말자구요, 하자구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냐? 지금 현재 한 8백 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사람에게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책정하는 거예요. 부정 투표를 하는 날에는 우리가 조사국을 중심삼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횡적인 보고를 받아 누가 나쁘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여당 야당 당수의 부인을 우리가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끌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270여 명인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차후의 문제는 뭐냐? 도시자로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군이 소생이고 도가 장성이고 국회는 완성이에요. 사탄세계의 소생·장성권을 점령해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1천 명을 중심삼고, 요전에 1천4백 명이라고 했는데 천 명만 이렇게 된다면 군을 중심삼고, 도를 중심삼고 군 의회, 도 의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통반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통반 결성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은 낙선했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격려를 해줘 가지고 남북통일시대에 있어서 북한 공산당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표준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 주는 것입니다. 밀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부패하는 국회도 국회지만 도와 군, 면에서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통반에서부터 썩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전국적인 체제화의 기준에서 표본적인 대표, 챔피언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라가 못 하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잘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에서 살면서도 일대일로 책임져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자면서 아들딸을, 가정을 포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없지요? 「예.」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육하라

아들딸이 전부 다 문제예요. 가서 책임져 가지고 지도하게 된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가정 환경이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광정환! 「예.」 광정환은 얼마나 준비하겠어? 몇 억이나 할래, 몇 억?

선생님 생각이 어때요?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내가 130억을 빚을 얻어 가지고라도 대치해 줄지 모르지요. 어때요?

그러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 못 된 사람들도 도 책임자, 도의원, 군까지 자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정당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유중관! 「예.」 정당을 만들면 좋다고 옛날에 생각했지? 「예.」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면 20억 이상 30억을 가져야 돼

요. 열 명이 당선되려면 3백억이 들어가요. 그 놀음을 할 거예요, 선생님 말씀한 이 놀음을 할 거예요?

국회의원이 열 명만 당선되겠어요? 지금까지 인연된 사람을 볼 때 수십 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당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놀음을 해야 되겠어요? 사광기! 「예. 이런 놀음을 해야 됩니다.」 (웃음) 역사에 없는 놀음이에요. 3개 당이 고꾸라져요.

야당 여당 전부 다 출마기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줘야 돼요. 그래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국가적 심판이에요. 이러 이러한 공적이 있어 가지고 몇십만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인 성취예요. 그때 선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예비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자네들은 다 들어갈 거라구요. 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실사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자구요, 해보지 말자구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나라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남북이 통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잘 수 있어요.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자,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그러면 1억씩 빚지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족이 뼈가 부러지더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벌어들여야 돼요. 내리라고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곽 회장을 대리로 세운 이유

곽정환! 「예.」 어떻게 생각해? 내 대리로 세웠는데. 이번에 곽정환이 문총재를 제거해 버리고 문총재 대신자가 됐다고 신문 광고를 했다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에 말이야. 「문총재 대

리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적인 고차원적인 행동을 해야 하나
 까 국가 한계권 내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대리를 세웠다는 거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 ‘선생님을 빼놓고 광정환이 다 한다.’ 하는
 간판을 붙여 냈다며? 「그런 게 아닙니다.» 신문을 누가 봤어? 유종관!
 「예.» 어떻게 냈더라고? 「아버님께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한번 얘기하라구. 「예. <세계일보> 2면에 ‘문선명 총재 대리
 에 광정환 회장 임명’, 제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구까지
 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요점은 ‘문선명 총재께서 광정환
 회장을 통일교회의 선교·언론·문화·기업활동 등 전반적인 분야의
 대리로 임명했다. 광정환 회장은 앞으로 한국·일본·미국 등 통일교
 회 산하 모든 단체를 문총재를 대리해서 총괄책임을 맡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총재의 이름을 뺐다고 했지? 「문선명 총재께서 그렇게 임명했다고
 그랬고, <세계일보>에 아버님의 존함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회장 이름
 과 부회장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발행인
 쇠인과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 내면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이 손뚝했다는 말이 돼요. 후
 계자로 세웠다는 말이 돼요. 대리라는 말을 빼고 후계자가 되어야 된
 다구요. 「말씀 그대로 대리로 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대신이
 낫습니다.» 「대리인이 낫습니다.» 대리인이나 대리나 마찬가지로요.
 한국에 내가 없잖아요? 언제나 있지 않잖아요? 없는 데 있어서 세계적
 인 섭리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대리로 세워서 전세계적인 전권을 맡
 겠다고 했으면 문총재에게 급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요. 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났을 때 대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시하신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신문사도 그렇지. 회장의 명의를 그냥 두어야 되는데 이동했다는 것은 문제야. 「신문사의 그 일에 저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송병준 사장하고 주사장이 왔을 때 회장도 빼고 부회장도 빼기로 결정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왜 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들끼리 해먹겠다는 것 아니야? 「주사장하고 송병준 사장한테 그렇게 아버님이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리가 비용도 다 대라구.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대리를 세우는 것은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80이 됐으니 이제 물러가기 위한 점진적인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닦아진 길이 희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에 전진대회 할 때 80대인데 청년들도 못 당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우습게 만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무책임하게 신문에 물어 보지도 않고 낼 수 있어?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주사장하고 송사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회장도 빼고, 부회장도 빼고,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만 넣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누구야? 「아버님이시지요.」 아버님을 빼라고 그랬나, 누가? 부회장을 빼라고 그랬지. 「아버님이 그러셨다는데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것을 누가 명령했어? 곽정환이 명령했나? 「아닙니다.」 회장님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예. 저는 관여한 일 없습니다.」 체제에 있어 자기 자체의 목을 매서 부정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송 사장이랑 오늘이라도 오면 물어 보시면 알 겁니다.」

문총재는 죽지 않았다고요. 한국을 1년에 한 번 두 번 왔다갔다하니

까 대리인을 세운 거예요. 일본도 그래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말도 아니 들어올 때 총괄적인 보고를 받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 주관 못 한 그 보고를 하기 위한 입장에서의 대리예요.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갈 길을 알아요?

새로운 각오 밑에서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대리 이름을 준 것은 뭐냐? 한국에는 게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패 무슨 패, 어떤 녀석이 들어오면 편집국장을 갈아치운다구요. 이럴 수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절대순종해요, 내가 없는 한. 내가 올 때는 광정환이 이런 회의를 주재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물어 보고 해야지. 알겠어요? 「예.」

인사권까지 허락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한국에서 손을 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부모님의 장자권이에요.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협동해서 체제에 있어 한국이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체화되게 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되어진 모든 사실을 일본에 전달하고,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책임 수행을 하기 위한 대리 명사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사회에 나가 물어 봐요. 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안팎의 모든 법적인 체제 내에서 공고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법적인 기준에서 회장이라든가 대리인을 서둘러서 결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거 정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구요. 이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남북통일 전선에 일체화돼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은 똘똘 뭉쳐서 남북통일 전선에 일체화되어야 돼요. 광정환을 중심삼아 가지고, 경상도 대표와 전라도 대표가 하나되라는 거예요. 전라도 대표가 많지요? 여기 전

라도 사람 손 들어 봐요. 전라도 출신, 손 들어 봐요. 번호 해 봐요. 「하나 둘 셋…… 서른셋입니다.」 3분의 2가 돼요. 배 이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일본에 간 열여섯 사람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70퍼센트 이상 되지요? 「70퍼센트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구장들이 갔는데 한국 교구장이 거의 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갔는데 전라도 사람이고 제주도 사람이 많이 갔어요. 그거 알아요? 교포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벨이에요. 아벨 전라도예요. 지금 현 정부는 가인이에요. 소화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마사 피우고 전라도 시대가 왔다고 별의별 소문을 내면 아가리를 썰 버려야 돼요. 똑똑히 알라구요. 알겠나, 전라도 패들? 「예.」 똑똑히 알았다는 사람, 손 들어요. 내리라구요.

자기들 책임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얘기를 했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세계의 섭리노정에서 이제는 국가 기준의 정상을 넘어갈 때예요. 완전히 몸뚱이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옷이고 무엇이고 걸리면 안 돼요. 자숙해야 돼요. 자중 자숙을 완전히 해서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물려가서 죽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구요. 이놈의 자식들이 권력을 쥔 듯이 하고 있어!

선생님이 어디 이름이라도 하나를 가졌어요? 신문사 사장을 했어요, 어디 회사 사장을 했어요? 내가 무슨 회장을 해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대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중 듣거나 하지 회장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장의 입장에서 자기들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경리 관계에서 보고를 받아 봤어요? 맡겨 놓았더니 통일중공업을 망쳐 놓은 거예요. 광정환이 김영삼을 소화 못 해서 수천억 원의 빚을 져 버렸어요. 그래서 광정환이 탕감해야 된다

구요. 그런 의미에서 광정환을 다른 데에 보낼 수 없어요.

또 그리고 가정으로 볼 때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이 있는데, 야곱 가정으로 전체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성별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입장에서 가정적 승리 기반을 닦았다면 나라라든가 세계는 다 통일돼요. 가정적 승리 기반을 못 닦았으니 통일교회는 탕감을 통해서 가정적 승리 기반을 펴 나온 거예요.

광정환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세계적으로 끝날 때까지—제3 이스라엘권이 가정이라구요—인사 이동을 못 해요. 아무리 잘못했다라도 누가 대신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없어요. 황선조가 할 수 있어요? 광정환의 심부름을 하면서 공문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독자적인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문사의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려요. 세상의 그런 망국의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인사 조치를 마음대로 했다구요. 그런 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구요.

조직체계는 3단계 체계가 원칙

선생님을 중심삼고 3단계예요. 일본도 오쓰카가 있으면 오쓰카를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국장들이예요. 국장까지는 선생님의 관리권 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쓰카가 선생님에게 보고하지만 주변의 국장이 열 명이면 열 명도 모든 되어진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러 이렇습니다.’ 보고하고, 나쁜 일도 ‘이러 이렇습니다.’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심이 보고하더라도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옛날 구보키 시대에 있어 구보키가 모르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 보면 모르는 거예요. 체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구보키한테 보고하고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된다구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나라의 책임자는 국장하고 과장까지가 관리권이예요. 그 계열을 마음대로 인사조치 못 해요. 그 다음에 과장이 책임자가 됐으면 계장하고 주임까지가 관리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계열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보고는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상중하지요? 3단계 원칙이라구요. 원리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놈들이 월권을 해?

회사의 수위 같은 사람이 사장한테 가서 이려고 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정도껏 해야지요. 말단 아니예요, 말단? 통일산업의 문승룡 사장이 그런 놀음을 했어요. 수위 녀석이 사장 집에 들어가서 땡강 부러서 뭐 어땡고 어땡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찰서에 집어넣어야 돼요. 조직 편성을 알겠어요? 「예.」

자기의 상관이 누구고, 하관이 누구냐 하는 3단계 원칙을 중심삼고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중적인 조직체제로 통하는 거예요. 이중이지요? 구보키한테도 보고하고, 나한테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아서 상대적 관계에서 연이어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중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것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 있는 놀음을 못 해요. 재까닥 재까닥 현지에서 과면당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없어요. 통일교회가 지금 교회 법이 없고, 회사법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갈 때 황환채에게 변호사를 중심삼아서 회사법과 교회법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그것을 못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광정환, 교회법을 준비했나? 「예.」 그것을 언제든지 준비해서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가 됐어요. 알겠지요? 「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것이 하늘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하늘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없이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구석에 가더라도 하늘이 알아줘요.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의 마음이 가게 되면...

이번에 자르딘에서 2차 회의를 할 때 왜 실패했느냐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김홍태를 중심삼아서 회사를 사려고 하니까 ‘아이구, 그것도 좋지만 자르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전장이 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위에 단체가 생겨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기반이 닦아진 것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문제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전장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졌다고 보는 거예요.

일심 일체, 전반적인 일을 해야 돼요. ‘청심일 만승일(淸心一萬勝一)’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전체가 하나되게 될 때는 만 가지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만사의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봐요. 「청심일 만승일!」 이것이 무슨 뜻이라구요? 「마음이 깨끗해야 만사가…」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청심일이 되라는 거예요. 청평에 온 모든 사람은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위하고 참사랑을 하게 되면 만승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여편네, 아들딸, 여러분이 충고하더라도 참고만 하지 그냥 그대로 안 해요. 왜? 선생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시한 것을 하려면 자기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3단계예요. 상부에 다 연결되어야 돼요. 상부에 보고가 안 올라가고 문제 된 것은 그 전체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요. 자연히 알게 되어 있지요? 중심을 통해서 전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이중적이에요. 평면적 책임자하고 중심적 책임자, 가정·종족… 8단계가 전부 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정환은 한국의 실정, 일본의 실정, 미국의 실정을 선생님

앞에 보고 받은 내용을 보고해야 돼요. 내가 사무실을 중심삼고 비교하게 된다면 곽정환이 한 보고가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알겠나? 「예.」 동맥 정맥이 있는데 이것이 막히면 망해요.

아담 해와가 가야 할 노정은 모든 인류가 가야 할 노정

요전에 읽은 책이 있지요? 그것이 남북통일 교본이라구요. 이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강연한 것을 한번 읽어 봐요. 곽정환이 읽어 봐요. 몇 시예요? 국가 메시아들은 안 오나? 「저녁 식사 후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구요. 「어느 것을 읽을까요?」 ‘하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을 읽어요.

「국내에 있지 않은 국가 메시아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 21개 도시에서 사람들을 대해서 아버님께서 하신 남북통일에 관한 지침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북에 갖다 보여 주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

이것은 아담 해와가 가야 할 노정이에요. 하늘의 왕자 왕녀가 어디 있었어요? 창조한 그 아들딸이에요. 이것은 민족이 가야 되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중략)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특히 여성의 사명은 자녀 격인 청년 남녀 및 학생들을 참된 교육을 통해 참된 자녀들로 복귀해 내야 합니다.

나아가 어머니와 자녀가 합하여 본을 세워 남편까지도 교육을 통해 참된 하늘의 아들로 복귀하고, 참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지상천국 이상을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말씀이 남북한이 함께 더불어 참사랑으로 만나는 그 날을 앞당기는 범국민운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야? 「5시 40분입니다.」 국가 메시아들은 안 왔나? 「예. 저희들이 저녁 먹고 나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또 읽어요. 「나머지를 읽습니까?」 저녁 시간은 빠르잖아? 광정환이가 읽으면 감동적이라구요. 「어느 부분을 읽을까요?」 뭘 읽으면 좋겠어요?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를 읽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국가 메시아로서 남북통일을 위한 아벨의 책임을 다하라

자, 이번에 왜 모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모이라고 했겠어요? 어째서 모이라고 한 것 같아요? 국가 메시아의 책임 수행을 분담해야 되겠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국가 메시아의 책임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혼독대회를 미국에서 품을,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를 중심삼고 문화인 언론계, 똑똑하다는 인텔리 계층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독회를 한 거예요. 같은 날과 같은 시간 내에 있어 안팎의 가인 아벨적인 기반을, 초국가적 초세계적인 판도를 준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기반을 닦아서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단시간 내에 교육시켰는데 이제 갈 데가 어디냐? 한국을 중심삼고 남북통일 전진대회를 한 거예요.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투입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소명적 책임이에요. 스스로 해

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비 교육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델적 교회의 고위층들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7회를 했지요? 「예.」 7회 동안에 세계적인 판도를 중심삼고, 나라를 중심삼고 혼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색채 내에서만 하면 안 된다구요. 종교인이 아닌 제3자, 세속적인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말씀을 혼독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 고위층들을 감동시켜서 세계적으로 결성시켜 국가 메시아로서의 아벨권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국가 메시아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인이라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체류했어요?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뭘 했어요? 10년 가 더라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60이 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많아요. 10년, 20년에 될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을 취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불가피적으로 워싱턴에서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최고의 인사들을 교육한 결과가 얼마나 크냐? 4박 5일이 아니예요. 4박 5일을 단축시켜서 2박 3일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쌍수를 들고 맹세할 수 있는 실적을 이루었어요. 폼을 만들었다구요.

교회 대표할 수 있는 폼을 만들기 위해서 7회까지 광정환이 했고, 그 다음에 3회까지, 1회, 2회, 3회까지는 미국의 상하의원, 그 다음에 유명한 법관들, 그 다음에 주지사, 주의 유수한 상하의원, 연방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 최상의 인격자들을 모아서 교육한 거예요. 그렇게 3차를 하다 보니 참석자가 쇠도하는 거예요. 또한 참석자들이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미국의 전통인 건국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건국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중심삼고 건국사상이라는 것이 무력한 단계에 들어왔어요. 재무장해서 새로운 건국 출발을 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이 거기에 제일 적절한 말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면서 흥분하는 분위기를 보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우선 한국말을 중심삼고 대회하던 내용을 전부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보냈을 거라고요.

워싱턴에서 3회까지 한 것을 워싱턴 애틀랜틱 비디오 센터에서 제작해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문이니깐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리 예비적인 훈련을 해서 영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삼고 코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부른 거예요. (이후 말씀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함) *

남북통일은 투입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2000년 3월 26일 이 달을 맞이하여 네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천성왕립궁전 이 자리에 전세계에 널려 있던 축복가정 자녀들과 하늘의 축복받은 전체가 일체가 되게 하시옵고, 이곳을 주목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친히 계시어서 모든 금후의 저희의 전체를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금번에 국가 메시아들과 국내외 전체의 중심적 인물들이 여기에 모여 중차대한 회의를 하여 오늘날 이 세계의 고위층과 국가를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삼은 훈독 세미나 계획을, 실제 체험한 모든 것을, 모델형을 전수하기 위한, 받기 위한 모임이 되게 하시어 외적 내적으로 전체를 구비한 것을 전수하여 온 세계적인 평형 기준을 이루시어 하늘이 이 땅에 정주할 수 있는 수평 세계와 종적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기간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남북통일이란 이 중차대한 섭리사적 최종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남북이 분열된 이 모든 역사적인 한의 기원을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택함 받은

2000년 3월 26일(日), 청평수련원.

* 이 말씀은 경배식 때 한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축복가정들이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조국광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는 금후의 모든 전진적인 행동 위에 아버지의 축복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3월, 4월을 중심삼고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2000년 4월 11일을 한 계로 하여서, 부모님의 성혼 40주년을 맞는 그 날을 기하여 하늘과 땅이 새로운 기원으로 전환하는 이 전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한 전야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치 완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늘이 선두에 서서 저희가 가고 있는 모든 것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책임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가정들이 하늘 앞에 모범이 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교시하는 중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천적인 소명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하루 계획하는 전체도 뜻하시는 가운데서 하늘의 은사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몸 마음에 흡족하게 은사를 받게 허락하시옵소서. 나머지 저희들이 금년에 사명적인 책임을 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은사로써 모든 것이 일취월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영인들과 통일교회 영계에 가 있는 중심식구들이 영계를 수습하여 모든 체제를 갖추어 일하여, 지상의 완성을 돕기 위한 그런 섭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상의 책임자들로서 저희들이 앞서서 모든 전체에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책임 수행에 부족함이 없게끔 아버지, 지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하시는 뜻대로 일취월장, 승리 찬양할 수 있는 통일세계의 지상·천상·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영계와 육계가

합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참하나님》(일본어판)을 어디까지 읽었어요? 「4장까지 있는데 어제 1장을 읽었습니다. (곽정환 회장)」 어제 1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2장부터 읽어요. (《참하나님》 2장, 3장, 4장 훈독. 곽정환 회장의 기도)

이제 중대한 문제가 남북통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투입하고 위하는 마음, 이렇게 되면 지금 때가 옛날과 달라서 사탄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져요, 거꾸로. 그래서 자기가 형님의 자리에서 동생을 재창조하고, 그 동생과 하나되고 이 민족이 하나되어서 남북이 갈라진 것이 통일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을 하늘이 전부 다 준비하고 여러분의 갈 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영계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남북통일은 무난히 이루어져요. 만일에 이것이 한때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는, 북한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고 반드시 고개를 넘지 못하는 자리에서 쓰러지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금년 8월이에요. 양력 8월까지 우리가 있는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 남았어요. 음력까지 하게 되면 7개월 남았어요.

이 7개월 기간에 우리가 땅 위에서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혹은 국가의 모든 전체를 대신해서 심정적 뿌리를 연결시켜 북한 땅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심정의 여유를 남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럼! 몇 시 됐나? 「넘었습니다.」 (경배) (이후는 보고) *

풀어야 할 죽음의 고개

(《지상생활과 영계》 상권 훈독) 『제2장 죽음과 영계. 제1절 인생 필연지도(人生必然之道) (중략)

절대적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도 조절할 수 있고 사탄세계도 조절할 수 있고, 천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 오고 이 세계가 따라오고, 천운이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잘 길러 남기고 가야 합니다. 장래 그 자녀들 모두 영계에 갑니다. 영계에 가서 천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선생님이 생애를 바쳐 왔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돌아가야 자기 자세를 갖춰서 대할 수 있는 거라구요. 지금 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준비해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됐으므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판도

2000년 3월 28일(火),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훈독회 때 한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가 점점 제한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했으면 가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판도를 어떻게 국가를 넘고 세계로 연결시키는 하느냐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서 혁명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남북통일을 우주적인 최후의 종착적 과제로 남아 삼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도, 자신의 존재 환경도, 인연으로 연결된 국가 민족도 망각해 버려야 돼요. 모두 투입하고 영의 자리에서 이 길을 가겠다 하면 하늘이 자연히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런 주체 앞에는 환경이 자연히 조성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영계 전체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새로이 살 수 있는 출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남북통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생애를 바친 거예요. 이번 대회 할 때도 80세 노인이 무엇 때문에 나셨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환영해요?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환영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남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남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인연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접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중심삼고 반성하고, 반성한 것이 공적인 기준으로 기착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 목적을 성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개척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 위해서는 살아야 돼요. 국가를 위하게 된다면 자기 가정이나 아들딸, 다 투입해야 돼요. 통일교회는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집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았어요. 몸이 미치지 못해 돈이 필요하면 재산을 팔아서도 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인과 종족과 민족국가적 환경으로서 전달되게 된다면 그 환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하는 데에 새로운 창조의 출발 기지가 언제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 출발, 종족적 출발, 민족적 출발, 국가적 출발 이에요. 그래야 단계적인 발전이 오고, 기반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다 위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으면 미국을 위해 주는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넘어서 영계와, 세계를 넘어서 영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공식이 그래요.

본연의 기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생님의 80세를 중심삼고, 한 표준을 중심삼고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진 것, 미국에 쌓아진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런 중심적 플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은 자동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거라구요. 이게 창조원칙이에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상대를 이롭과 동시에 그 둘이 하나된 환경적 여건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영계가 협조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식구가 있어도 자기 집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그 친척 있는데 그들을 잊고 어떻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래요? 가정 중심삼고 나라와 세계가 남아 있는데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요? 국가를 중심삼고 세계가 남아 있는데 자기 국가를 중심삼고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한 세계는 창조 이상적인 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존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어둠에 세계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총생축헌납제, 자기 일족이, 180가정 축복한 전체가 받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 위에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출발, 본연의 기준에 있어 새로운 가정과 종족

민족국가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라구요. 그게 원칙이에요. 저나라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상헌 씨가 말하는 것하고 선생님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어디 있어요?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상헌 씨가 가서 증거한 거예요. 상헌 씨도 선생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가서 보고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조건이, 자기 생애노정이 후대 후손들에게 올 수 있는 하나의 올무가 되고 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입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안팎의 내용을 조사해 보고한 것이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예.」

의심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십 배 백 배 이상의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있는 거라구요. 그런 방대한 배포를 가지고 소화하겠다고 해야 돼요. 방대한 사상을 가지고 먹게 되는 그 방대한 사상을 이룰 수 있는 영양소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천운에 도수에 화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천운이 찾아와요.

지금도 여당 야당 하는데 두고 보라구요. 잘못 하다가는 왕창 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북한 마지막 때예요. 죽을 안간힘을 다 쓰는데 한국도 지금 그래요. 싸움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한다구요. 자, 읽어요.

죽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머리도 없는, 그저 상식 밖의 패들입니다. 제일 슬픈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

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를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황선조 기도)

죽음이 필요하다고요. 죽음의 고개는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만민공통의 숙제인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보다 위하는 실체대상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지상천국이 발발되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알면서 못 가는 사람은 중도에 미쳐요. 저 나라에 가게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미스터 윤은 언제 떠나요? 「지금 가야 됩니다.」 가서 열심히 해요. 북한의 일은 늦추지 말고 해요. 「예.」 박상권이 왔어요? 「약속이 있어 참부모의 날에 온다고 했습니다.」 참부모의 날에는 자녀들을 세간 내 주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집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임자들네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광정환한테도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자리잡아주어야 될 때가 왔어요. 자리를 못 잡으면 떠돌이가 돼요. 지금까지는 떠돌이였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주어야 돼요. 우리가 자리잡는 것보다도 북한이 자리잡는 것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 들은 약속한 대로 실천하라고 내가 권고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그 돈을 중간에 이체시킬 수 있는 놀음하지 말라구요. 매달 딱딱 갔다가 이체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중심삼고 쓸 수 있게끔 하라구요. 돈이 시급하면 선생님한테 보고하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선생님이 귀중품을, 집을 팔아서 투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좀 어때요?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못합니다.」 듣기는 다 들어요? 「예, 의식은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훈독회 해서 말씀을 읽어 줘요? 「예.」 쉬지 말고 말씀을 읽어 주어요. 「예.」 그게 자녀들이 제일 해야 할 일이에요. 영계에 가더라도

그 아들딸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강력한 유언을 남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줄이 되어 끊을 수 없다구요. 후손을 통해서 복귀되니 만큼 후손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게 강력한 유언을 하게 되면 줄이 생기기 때문에 끊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기도해 주면 해줄수록 가까운 자리에서 둘이 합해 발전하는 거예요.

「참부모님을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까지 합니다.」 내가 한 번 방문하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일족을 내가 방문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세상 같으면 이해 못 할 말이지만 하늘의 법도는 그래요. 하늘이 볼 때 기준 높은 사람들을 중심삼고 방문도 안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문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것을 이해시켜요. 「예.」 영계에 가면 그래요. 영계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전해요? 「오늘내일 등록합니다.」 등록필 하면 선거운동할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 스타트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절대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서 도와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탁해야 돼요.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밤을 새워 가며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감동받는 그 기준을 중심삼아서 상대를 감동시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있는 정성을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면 하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기들 편안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극복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 탄 데 가서 자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

불란서에 갔던 여자는 교황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예.」 교황하고 만나요? 「예.」 만나야 돼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영계나 육계나 통일적인 사랑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명령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이상 그 래야 돼요. 서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데 기분이 괜찮아? 「예.」 엉뚱하게 교황하고 결혼했어요. 교황이 좋은 줄 알아요? 자, 마치자구 요. *

참사랑과 영계

(《지상생활과 영계》 상권 제2장 제3절 ‘높은 영계에 가자면’부터 혼독)

참사랑의 원칙을 중심삼고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은 영계를 표준하고 믿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략)

영계에서는 몇억만 리의 거리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강해 가지고 보고 싶다 하면 척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당신이 불러서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하면 몇억만 리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내 활동기지입니다.』

상현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이 주체라면 참사랑의 대상은 동위적 입장에서 동거하고 동참하면서 주체의 모든

2000년 3월 29일(水), 한남국제연수원.

*이 말씀은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그대로 상대적 입장에서 전수 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된 그 원칙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감사량이에요, 감사량.

감사량은 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쪽에서 광선이 비치면 그냥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데 소모가 없는 거예요. 아까 혼독한 내용대로 순금이라는 것은 로스가 없어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사랑으로 하나된다 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행동권 안의 모든 걸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 이외의 세계 까지도 내가 이상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대하는데 전체가 중심과 통하지 않고도, 관계가 필요 없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면 상현 씨의 책을 읽어 보라구요. 그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보라구요. 그 원칙으로 다 연결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핑계를 못 대요. 입을 열어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구, 나한테 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영적 과정을 통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세계를 부정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런 의식구조를 가져서는 타락한 속성이 뿌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줄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은 깊은 영계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읽어요.

감사량만 가지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어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리울 것이 없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공을 들인 그 공신은 천상세계에서 당연히 영광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

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계적 기준을 대해서 하나의 모델 기준이 되면 전체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인류 구원이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나무라면 한 나무의 가지는 큰 나무와 마찬가지로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찾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잃어버린 인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동서양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남겨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자연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자연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사는 데는 사랑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영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등불이 점점 커집니다. 이 빛은 오색찬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의 오색가지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좋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과 원인이 교차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대하게 되면 그런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예요. 상대가 되어 하나님이 보게 될 때 대상적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것

과 마찬가지로요. 오색가지 찬란한 다이아몬드 빛,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빛이 합하면 무엇이 되느냐? 태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 우주가 좋아할 수 있는 생명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양 빛이 생명의 요소지요? 「예.」

상헌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영계의 내용을 중심 삼고 방대하고 복잡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르쳐 주었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 지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고달파요. 탕감복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민족을 찾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는 종족이 있고, 종족 가운데는 가정이 있고, 가정 가운데는 식구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하나님이 가는 수평선상에 끌어올려야 돼요. 수평을 중심삼고 개인·가정·종족으로 커 가거든. 여기 수평은 중앙선을 말해요. 가정시대에 있는 개인, 종족시대에 있는 개인으로 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과 점이 크면 우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적인 마음, 동기적인 마음, 결과와 방향성이 일치되는 거예요. 딱 하나되는 거예요. 그 참사랑만 가지면 어떠한 존재든지 참사랑의 방향성과 목적에 하나되기 때문에 재까닥 재까닥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은 전부 자기를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무한한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딱 하면 이것은 중심이에요. 자, 읽으라구. 얼마나 남았나? 「4페이지 남았습니다.」 그게 3장이야, 4장이야? 「3장

인데, 그 다음에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빨리 끝내자구.

한국 풍습은 영계의 풍습이 지상에 나타난 실제 조건

『.....한국의 모든 풍습은 유대민족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영계를 알고 보니까 그 영계의 풍습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라든가,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생활태도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영계의 원리형과 같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7수를 중심삼은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3일 성별기간이 있고, 결혼 후에도 3일의 성별기간이 있고, 죽은 후에도 3일의 성별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상당히 존중하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장가가서 사흘을 지내요. 시집와서도 그래요. 남한에서는 그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루만에 옵니다. 장가를 가면 처갓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돌아옵니다.」 평안도에서는 장가가면 사흘 잔치를 해요. 사흘 후에야 자리를 걷는다구요. 시집와서도 그래요. 「경상도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3수로 되어 있어요. 죽을 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그렇잖아요? 3일에서부터 일주일까지 지내고 나서야 매달았던 줄을 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계의 풍습을 따라서 지상에 나타난 실제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끝까지 혼독)

이동한, 기도해. (이동한 본부 교구장의 기도)

아줌마 이름이 뭐던가? 「조명자입니다.」 조명자? 「예.」 나와서 얘기해 봐요, 영계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해보라구, 20분 동안, 8

시까지. 저기를 보고 해, 나보고 하지 말고. 거기 서서 해도 괜찮아요.
(조명자 씨의 간증)

우리 말씀을 알았으면 재까닥 재까닥 다 했을 텐데, 모르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 통일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예.」 대답은 했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느끼며 살지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회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해주고, 그 다음엔 한국 사람이 없으면 일본 사람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하고 해주는 거예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고달파요. 고달프다구요. 저 아주머니의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물어 봤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도 사랑할 줄 알더냐고. 모르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웃음) 사랑한다구요. 축복받은 다음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허락이에요. 지상에 있는 통일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자리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내자구요. (경배) *

제3이스라엘과 조국광복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38쪽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훈독)

먼저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의 원칙

『개인이 안식하려면 가정의 안식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식하려면 종족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언제나 침범당합니다. 종족이 안식하려면 민족이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이 안식하려면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안식하려면 세계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울타리, 세계 울타리를 쳐 놓고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 세계가 안식하려면 영계(靈界)와 육계(肉界)를 통일시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의 온 세계 어디에나 미칠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이 완성되고, 천상천국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환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플러스적 보호를 받는

2000년 3월 30일(木),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환경을 창조할 줄 모르면... 이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계관이라구요. 창조의 원칙,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읽으라구.

제3이스라엘인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숙명적 과제

『.....그것을 예수님이 혈족을 통해서 못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여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땅에다 남기고 갔습니다.』

거기에 와서 제2이스라엘을 완성시켜 천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탕감해야 돼요. 그걸 탕감해야 예수님 이하의 모든 종교권에 소속한 영계권이나 그 다음엔 그 이하의 모든 사탄권까지도 본래 승리한 창조이상권 상에 섬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유대교가 찾지 못하고 기독교가 세우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제1, 제2이스라엘이 세우지 못했던 것을 제3이스라엘인 우리가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축복한 것은 환경적으로 세계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세계 기준은 사탄이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기준을 세워 개인·가정·종족·민족·세계까지 탕감하는 거예요. 문제는 국가만 세우면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시작했다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완성 출발권 내에 나가는 것으로, 통일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탄권을 넘어 설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사탄이 못 잡아간다구요.

그래서 나라만 세우면 그 티켓 받은 것을 모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관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관리해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무사천리예요. 영계 전체, 세계를 넘어서 천주까지 하나님의 해방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1, 제2이스라엘이 찾지 못한 국가를 제3이스라엘은 탕감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운명적이 아니라 숙명적인 과제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 전체가 그런 신념을 가지면 저쪽은 물러가는 거예요. 해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못 세우면 하나님의 이상적 천국과 관계 맺을 수 없어

우리가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은 뭐냐?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던 것을, 절연되어 있는 것을 꺾데기를 벗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 지금까지 반대하던 환경에 있던 것을 반드시 180도 돌려놓지 않고는 남북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적 관이예요. 추상적이 아니예요. 알겠어요? 「예.」 심각해요. 놀음놀이가 심각하다구요.

역사적인 모든 탕감에 있어서 국가적 기준을 실패한 예수시대를 중 심삼고 영육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2천년 동안 피 흘려 나온 거예요. 그들이 국가 기준을 영적으로도 못 세웠어요. 재림해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기독교가 오시는 재림주 앞에 순리적인 입장에서 일체 되어야 하는데 일체가 못 됐다구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40년 광야노정을 가면서 영육을 일체화시킨 통

일교회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대치해서 국가 기준과 세계 기준을 조건적인 면에서 다 이루었어요. 선생님이 전부 다 이 길을 열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있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성자의 자리를 닦으면 충신과 효자의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기준만 세우면 이 자리의 모든 전부는 관리권 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탕감조건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사탄권이 전체를 국가 기준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해 줘야 사탄권과 천상권이 일체화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이라구요. 확실히 알겠어요? 「예.」

밥을 먹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통일해서 생각하는 것이 기대예요. 사회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다 형제고 자기 가정의 일원인데 저와 같은 자들을 구해 주기 위해서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전체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 한 가정의 혈족의 심정을 가져서 그들을 선도해야 할 책임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넘어가야 할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의 혈족과 같은 것을 느껴서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찾지 않고는 국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고, 국가 이상의 길이 열렸더라도 못 가요. 나라를 이겨 놓고야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탄세계의 나라 기준 뿌리를 완전히 뽑아 놓아야 물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전도하고 무엇을 했던 것과는 달라요. 말뚝 박았던 것을 뽑아야 돼요. 탕감해야 된다고요. 탕감해야 되는데 예수는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해방받을 수 있

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예.」

선생님이 가르친 전체를 중심삼고 미국이나 어디나, 세계 전부가 선생님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점점 높인다는 거예요. 국가적 기준에서 애국자니 무엇이니 하더라도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부는 조국광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나라를 못 세우면 하늘땅, 영계까지도 구할 도리가 없는 거라구요. 또 나라를 못 세우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전부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적 천국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정신차려 가지고 듣지 못하고 있어요. 있다, 없다 가운데 어떤 거예요? 「없다!」

한국이 책임 못 하면 나라를 만들어 세계를 수습할 수 있어

똑똑히 알라구요. 한국이 못 하게 되면 한국 대신 섬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대사관을 설정해서 순식간에 세계를 수습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대사관을 설정하는 거예요. 땅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세계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구요.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소유권을 중심삼고 악한 놀음을 했는데 사탄을 굴복시켜 하늘나라의 소유권으로 만들어 소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일방통행으로 수습돼요.

자르딘에서 33개 주 교육이 다 끝냈다면? 「예.」 우리 축구팀이 가서 경기하는데 자기 주(州) 팀을 제쳐놓고 환영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면? 「예, 그렇습니다. (윤정로)」 그런 거예요. 국경이 다 무너져요. 그게 말만이 아니에요.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영원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을 들어 보면 너무 세밀히 가르쳐 주

있어요. 핑계할 도리가 없어요. 들어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적당히예요? 골수를 쪼개 가지고 밝혀 주었어요. 정신차려야 돼요.

밥 먹고 살면 뭘 해요? 벌레와 같이 어두운 지옥을 찾아 기어 들어 가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고 통일교회 교인이라고? 공부시키기 위해 학교를 보냈는데 영점 이하가 되어 가지고 백 점 맞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다구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공상(空想)하고 다니지 마요. 곡괭이로 땅을 파는 거예요. 곡괭이를 가지고 매일같이 굴을 파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두에 서서 전진적 명령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앞장서서 끌고 가야 돼요. 내세워 가지고는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앞장서 나왔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내세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길을 닦아 나왔어요, 나 홀로. '홀로 아리랑'의 독도와 마찬가지로요.

옛그제 독도를 수중촬영 한 것을 보니까 독도가 보화예요. 남양의 어족까지도 거기에 모여 살고 있더라구요. 아시아에서 한 곳밖에 없어요. 자, 읽으라구.

나라가 세워지면 일제 정비시대가 와

『그것이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예수님과 열두 사도가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통해 70문도, 120문도의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열립니다.』

세 아들, 12가정, 그 다음에 72문도, 120문도예요. 예수님이 120문

도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로 되는 거예요. 430가정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국민이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430쌍을 중심삼고 어느 성씨나 한국 사람은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게 탕감노정이라구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세워진 책임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라가 없으니 전진적인 무대가 되어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선두에 서야 될 텐데 거꿀잡이가 돼 있어요.

430가정 다음에 뭐예요? 777가정이예요. 세계를 걸고 넘기 위한 777가정이예요. 그 다음엔 1800가정이예요. 이걸 6수에 3수예요. 소생·장성·완성,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삼 육 십팔(3×6=18)이예요.

그 다음에는 6000가정이예요. 6수와 9수예요. 9수는 3수를 3배 한 거예요. 소생·장성·완성, 3단계로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6000가정을 중심삼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6500가정입니다.」 6700가정, 이걸 7000쌍이 넘는다고요. 6500가정이 아니라 6700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 기준이 닦아져요. 그 다음은 3만쌍이예요. 3만쌍은 귀일수예요. 해방시대, 축복해방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3만쌍 한다고 할 때 콕정환 눈이 시멘트 눈이 됐던 것을 생각해? 「예.」 (웃음) 초종교적으로 전도하고 축복하라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랬어, 된다고 그랬어? 「아버님이 이룩하셨습니다.」 3만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36만쌍입니다.」 그것을 몇 년 만에 했어요? 「3년 만에 했습니다.」 3년 후에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회 패들이 남북통일을 문체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가만 보면, 환경적으로 선생님을 중심삼고 관계되는 사실을 보면 그 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고리를 매어 놓았더라 이거예요. 고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매면 전부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못 하면 전부 빼앗겨 버려요. 이제 법이 제정되면 통일교회 일제 정비시대가 와요, 이런 원리를 중심삼고.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서전을 써야 돼요. 알겠어요? 「예.」 지금 혼독한 내용에 몇 퍼센트 맞는 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요. 50퍼센트냐, 40퍼센트냐, 60퍼센트냐 이거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가야 될 때는 민족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서지 않으면 국가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냥은 안 넘어간다구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이뤄질 때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뭐가 된다고요? 「일제 정비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정비해요? 법이에요, 법. 천년만년 변치 않는 하늘의 헌법이에요.

그걸 볼 때 법 저쪽 바깥에 있어요. 국가를 중심삼아 가지고 내각에 손을 대고 대통령에 손을 대서 법을 설정하면 그 전 사람들은 전부 용서받는 것이 아니예요. 법이 설정된다면 안팎으로 같은 법을 중심삼아 가지고 치리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법에 치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마찬가지로요.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당 사람들이 법에 걸리고 야당 사람들이 법에 안 걸리면, 야당 사람은 해방되는 것이고 여당 사람은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밝히 이야기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2003년까지 4억쌍 미혼남녀 축복을 완료해야

36가정을 내가 부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찾던 기준이 있고, 예

수님의 12지파를 중심삼고 70문도와 120문도 가정을 이루고, 사상 해방적 기준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엔 세계 국가를 연결시키기 위한 놀음, 그 다음엔 하늘땅을 연결시키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워 나온 가정이 있으니 살아 있는 거라구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돼요.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은 종족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가정은 72가정을 위해 투입해야 돼요. 36가정에서 배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72가정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은 비준에 따라 120가정에 투입해야 돼요. 120가정은 430가정에 투입하고, 430가정은 777가정에 투입하고, 777가정은 1800가정에 투입하고, 1800가정은 6000가정에 투입하고, 6000가정은 7300가정에 투입해야 돼요. 6500가정이 아니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래서 축복 해방권이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3이스라엘권 기반을 닦기 위한 탕감노정이었다 이거예요. 그 역사가 지나가지 않아요. 역사 위에 서야 돼요. 역사를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4억쌍을 하는 거예요. 4억쌍이 전부 기성가정이 아니예요. 그 다음엔 미혼남녀 4억쌍이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가정적 축복을 완료했으면 그 다음엔 미혼남녀 축복을 완료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3년까지예요. 알겠어요? 「예.」

기독교만 흡수하면 순식간에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와 가인 아벨로 하나되어야 돼요. 기독교가 외적이면 여러분 일족이 내적이예요.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 못 되어 예수가 죽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가는 무대 앞에 최소한도의 예수의 죽었던 두 가정의 통일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딸이라든가 전도한 가정을 자기 일족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이 자기 일족이예요. 다른 데 일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족끼리 결혼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가인 아벨 가정에 있어서 가인 가정을 누가 복귀해야 되느냐? 아벨 가정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180가정을 전도했지만, 자기 가정이 180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들을 위해 전도시키는 거예요. 전도해 주는 것은 장자권, 아벨이 형님 되기 위해서예요. 형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데는 믿음의 아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아들을 중심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볼 때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 선생님의 직계자녀예요.

직계 자녀의 기준을 중심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계자녀들을 길러 줘야 돼요. 가인이, 천사장이 길러 줘야 돼요. 그것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벌거숭이 가정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전부 빼앗긴 환을 선생님 가정에서 탕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망진창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을 다 받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빼앗아 간 너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36가정, 머저리들! 보면 영적으로 다 알아요. 누구누구가 선생님 앞에서 바른말을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거짓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소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광정환, 그런 입장이라구. 「예.」

여러분 같은 가인, 믿음의 아들딸들이 전도되어 축복받아 가지고 자기 일족을 축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자녀를 대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아들딸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핏줄이 달라요. 믿음의 아들딸이 되었으면 앞으로 선생님의 직계 아들을 천사장 입장에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철옹성같이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위에 선생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가정은 나라를 찾기 위한 것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축복한 가정을 대표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요, 앞으로. 혼독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혼독회를 해야 돼요.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몇 시 몇 분에 혼독한다고 하면 어린애까지 하늘나라와 더불어 같이 모실 때 영계에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계에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상의 혼독회예요.

혼독회를 지금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아버님입니다.」 내용을 다 알아듣고 정신차려 가지고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예요, 여러분이예요? 벌써 까닥 잘못 읽으면 알아요. 영적인 기준의 파동이 달라져요. 그런 뭐가 있다구요. 다 읽고 원리를 다 안다는 패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 번 만 번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알겠어요?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라고요. 정신차리라고 후퇴갈렸다고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불경(不敬) 중에 이중 불경, 삼중 불경, 입체적 불경이라는 거예요. 이 한 점이 중앙을 중심삼고 360도의 불경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불경스런 마음을 가지면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후퇴해 버려야 돼요.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후퇴해 버려야 된다고요. ‘내 환경에서는 내가 옳다. 두고 보자!’ 이런 패들은 아예 후퇴해 버려야 돼요. 안 하다가는 자기 집에 사고가 나요. 탕감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

난 것을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계승할 수 있어 가지고 성과를 못 내게 될 때는 탕감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러려고 안 하지요? 어떤 장관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해먹겠다고 하고, 국회의원을 영원히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나라의 공적인 자리에서 녹을 먹으면서 나라를 파먹는 구더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국가 재산을 파먹는 거예요. 국가 재산을 약취하는 범죄자예요. 똑똑히 알라고요.

선생님하고 지금 관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일족 위에서의 관계이지,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예요. 남북통일을 한 위에서의 관계이지, 축복받은 몇 가정과의 관계가 아니라구요. 그 가정은 나라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원리적 관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생결단을 하고 나간 거예요. 수많은 역사를 선생님 일생에 맡아 가지고 탕감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웃으며 넘을 수 없어요. 눈물이 아니면 못 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던 탕감의 고개, 개인부터의 8단계 고개를 눈물 없이는 못 넘어요. 점점 큰 비통한 사실을 겪어야 돼요. 그것을 공짜로 먹겠어요? 소화가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이놈의 자식들, 편안히 해서 생각 없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좋다고 하고... 통일교회는 없어져요. 통일 천지가 벌어지면 통일 국가가 없어져요. 통일 세계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통일 세계까지 연계된 법령 제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제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까지 해방해야 모든 법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참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은 법이 제재를 못 해요. 그러면 위하겠다는 사람은 법이 제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

다구요. 똑똑히 알라구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40주년 성혼기념일까지 한국에서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가야 책임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겠으면 하고 말했으면 말라구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세계적 환경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외적인 세계무대의 인연을 주변 국가와 어떻게 엮느냐 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내 자신은 할 수 있어요.

제3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을 세워야

제3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을 세워야 돼요. 예수 이상 아니에요, 축복가정들이? 그런데 가정을 가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받아요. 알겠어요? 「예.」 그게 원리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부모 선포, 참형제 선포, 참자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은 참자녀 선포를 돼요. 3대를 못 이루었어요. 아담을 중심삼고 3대권을 형성해야 이스라엘 정착 기준이 국가와 세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우리의 숙명적 사명이에요. 필연적이며 숙명적인 사명이다 이거예요. 확실히 알겠어요? 「예.」

주변의 회사고 무엇이고, 신문사고 무엇이고 내가 불을 사를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거지 떼거리를 살려 주려고 이것을 했어요. 손해를 얼마나 봤어요? 제3이스라엘권으로 한국을 중심삼고 만들려니 모든 것을 거기에 대비한 거예요.

미국을 중심삼고 보따리를 싸서 이민했다면... 본래는 1962년에 선생님이 미국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미국에 갔

다구요. 왜? 불쌍한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만 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웠어요. 기독교 문화권이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패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을 개인 전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 했으면 십 년도 안 걸려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세월을 3배 이상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통일천하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와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됐지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나라를 찾아 나온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다 내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사관만 설치해 놓기만 하면, 영적인 대사관을 설치해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대사관도 이중으로 가인 아벨이 되어야 돼요. 나라도 가인 아벨이 되어야 돼요. 유엔(UN)이 안 되면 아벨 유엔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도 국회의원들을 가인 아벨로 짝을 만들라고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계선을 뚫어야 되겠어요. 알겠지요? 「예.」

오늘이 3월 30일이에요. 4월 11일까지 12일 남았어요. 해방을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자! 얼마나 남았나? 「세 페이지 반 남았습니다.」 읽으라구.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세계의 오지로 추방돼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종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민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세계에서 천국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 위에서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이 영계의 천국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개관입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그래야만 힘을 가져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적 기준을 중심 삼았기 때문에 국가적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산권을 용허할 수 없어요. 이래 놓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의 선생님이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지옥 밑창까지 벌떡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탄 줄개새끼들을 다른 데로 몰아넣어야 돼요. 북극 남극 같은 곳, 사람이 없는 데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북극 남극에 가서 살아야 돼요. 가서 동물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예요? 몇 년 동안 있어서 살아남으면 중간지역에 데려와 가지고 교육해서 복귀할 수 있는 놀음을 한다는 거예요. 낙원과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편안하게 자고 밥 먹지요. 선생님이 그런 것을 다 알면서 편안하게 밥을 먹겠어요? 모르는 녀석들이 아는 사람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예요! 그걸 부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보라구요. 다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한 번만이 아니예요. 몇 번 씩이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안 있어요. 탕감이 안 되면 이동하지요? 제2이스라엘이 책임 못 함으로 말미암아 이동했어요. 이동 안 했어요? 이동한 거예요. 자, 읽으라구.

『오늘날 이 땅 위에 사탄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혈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보면 ‘양자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직접 못 부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인연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

서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접붙여야 돼요. 종에 접붙여야 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걸 종의 종 자리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교와 마찬가지로요. 거기서부터 예수시대에 종의 기준에서 양자의 기준을 넘어 서자의 자리에 서 가지고 직계 아들이고 접붙여야 돼요. 잘라서 접붙여야 돼요. 부정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엔 접붙인 그것이 예수의 가정을 중심 삼고, 자기가 접붙였지만 세계가 남았으니 가정을 일원화시켜서 접붙여야 하늘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준 축복은 뭐예요? 가정적으로 접붙이는 거예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아직 국민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수속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나라의 법에 전부 맞추어야 돼요. 영주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중간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주권 기간이 있지요? 잘못하면 쫓겨나지요? 그러나 나라가 있으면 쫓아내지를 못해요.

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니면 어느 누구나 추방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형을 받았지만 미국이 추방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판사들한테 상부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추방했더라면 기독교고 무엇이고 다 포기해 버려야 돼요. 자, 읽으라구.

절대신앙사랑복종의 원리적 기준에 들어맞아야 영원히 존속해

『.....여러분은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 위

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고, 주님과 선조들의 마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전에 구구절과 삼십절을 지낸 후에 영계도 밝아졌다는 상현 씨의 보고를 들었지요? 「예.」 지옥에 있는 영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나날을 살던 환경이 사라져 가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건 왜 그래요? 지상에서 섭리적인 모든 것을 탕감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도 선생님이 1960년에 가정을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온 거예요. 가인적 축복가정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인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중의 맨 밑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갔으니 책임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이하의 모든 백성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축복가정이 되면 누구든지 전부 조건적 성립이 연결되어서 상하로 통할 수 있고, 상하로 통하면 좌우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전후관계로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전후관계는 앞으로 국가를 찾으면 3대가 돼요. 국가만 찾으면 1대, 2대, 3대가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이 1대 2대인데 3대가 없어요. 성약시대에는 가정을 중심삼고 3대가 벌어져요. 하나님과 예수가 1대 2대고 예수의 가정을 중심삼은 아들딸이 3대예요. 그래서 완성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혈연적 관계를 여러분이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선생님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주고받아 가지고 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북극이 있으면 영원히 남극이 있어야 되고, 동이 있으면 영원히 서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원리적 기준을 중심삼고 그 페이스에 들어맞아야 이 땅 위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법도에 들어맞아야 영원히 존속하지, 지상에서 자기가 적당히 생각하던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라는 표제를 세운 거예요.

제2차 40년노정이 벌어질 때 그것을 선언했지요? 「예.」 ‘새소망 농장 선언’이에요, 자르딘 1차 선언. 2차 선언이 뭐예요?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데서 통일교회에서는 3대가 연결돼요. 가인 아벨이 축복권 내에 들어간다고요. 3차 세계 축복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되면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연결시켜서, 나라를 찾게 되면 세계의 축복가정들은 그냥 그대로 피난민 같은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민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던 동포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라만 찾게 되면 들어와서 수속을 밟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6개월도 안 걸려요. 40일 과정을 거치면 본 궤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통일교회 임자들은 반대했지만, 그들이 총생축헌납제를 나라를 대신해서 바친다고 할 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산될 것 아니에요?

여자들은 삼각 팬티만 하나 입고 전부 팔아서 지옥 국민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남자가 천사장인데 남길 것이 있어요? 별거벗겨서 동산 어디에 가두어 가지고 재교육을 해야 돼요.

축복가정의 남편은 관리 남편의 입장

임자네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고요. 선생님의 동생들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관리 남편이에

요. 본 남편이 어디 간 사이에 맡아서 지켜 주는 거예요. 사탄세계에서 사랑하던 습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랑까지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조건이에요. 축복은 혈통을 전환하는 거예요. 혈통 전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 천사장에게 대신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중심삼고 사랑하고 하나됐다는 조건을 중심삼고 아담 기준의 평준화, 수평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축복시켜 준 줄 알아요? 자격이 없어요. 전부 독신생활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전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삼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여자들은 선생님 편으로 동생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 이겼을 때 사탄세계의 여자와 아기를 전부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은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을 줘서 관리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소유권이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강제로라도 빼앗으라는 거예요, 여자가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회 사람들은 기성교회 사람들과 달리... 기성교회도 그렇지요? 남자를 속여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조건을 벗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라도 자기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죽자살자 해도 못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했다가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지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아 버려요.

다 그렇게 원리적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마운 줄 알라구요. 여편네를 때릴 수 있어요? 여편네는 뭐냐 하면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한 몸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본 남편이고 첩들이에요, 첩

들.

옛날 왕궁에 여자들이 많았지요? 3천 궁녀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들을 무엇으로 취급해요? 때가 되면 만조백관과 짝지어 주는 거예요. 여편네는 타락했기 때문에 뒤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건 천사세계인 영계에 가서 선조들 앞에 결혼시켜 놓고, 원래는 동생과 같은 궁녀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핏줄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핏줄을 완전 정화하기 위한 뜻 가운데서 세상 나라에는 궁녀가 많았다는 거예요. 백제의 3천 궁녀가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손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자들은 선생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법을 세워야 돼요. 법을 세워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초석을 놓아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세계의 가정들이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선생님이 중앙에 가서 하늘 중심적인 가정을 편성하는 거예요. 새로이 가정을 편성해야 할 때가 왔다가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같이 산다면 뜻이고 무엇이고 다 없어졌어요. 자!

원리 말씀 일방도로 나아가야

『8. 천국에 대한 바른 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고 망하더라도 ‘이 신념만은 틀림없다. 내가 틀렸으면 틀렸지 뜻은 틀림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거예요. 예수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전부 가짜들이었어요. 자!

『.....천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나? 자기를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라는 것을 타파해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데서만이 천국, 혹은 간접적인 천국이라도 개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기에게 적응시키려 사람, 자기 스스로를 주체적 입장에 놓고 상대방을 끌고 가려는 사람은 천국과는 관계를 못 맺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악선전하고 별의별 짓을 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 치운 거예요. 그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원리 말씀 일방도예요.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가지를 치면 사탄이 들어와서 파괴 행동을 해요. 거기에는 나무로 말하면 옹이가 생겨요. 가지를 자르면 옹이가 생긴다고요. 그 옹이가 문제예요. 판자로 쓰게 될 때는 옹이가 문제가 된다고요. 영원히 저나라에 가서 옹이가 생긴 그 기준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무엇이 남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발전하려면 먼저 환경을 창조해야

『천국은 어떤 곳이나? 사탄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극복한 자리가 아니예요. 자체만을 극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권, 습관적인 환경권, 혹은 상습화된 자리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습화된 환경을 사탄이 고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에 우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데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광물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식물도 플러스 마이너스, 동물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간도 남자 여자, 천국도 지상천국 천상천국이에요. 전부 상대적 관계예요. 그 환경을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전도를 나가서도 동네가 전부 환영할 수 있게끔 행동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이러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요. 앉아서 ‘원리 말씀을 들으러 와라!’ 하면, 올 게 뭐예요? 왔던 사람도 도망가요. 나중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환경 창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환경을 창조했지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나라의 주체 대상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해방 직후에 하나되었으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가인 아벨이지요? 환경 창조가 돼 있어요. 상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주체 대상만 하나되면 천하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창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찾아가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를 세워서 남미와 북미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뉴욕 타임스>하고 반대하다가 지금 완전히 삐창코(ぺちゃんこ; 눌러 납작해진 모양)가 되었어요.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이 선생님에게 훈장까지 보내 왔지만 말이예요. 자연굴복시키는 거예요. 탕감조건을 세워서 넘어가야지 그냥은 못 넘어가요.

지금 세계 185개국의 지도층이 선생님에게 조건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거예요. 다는 못 했지만 많은 예물을 보낸 거예요. 185개국에서 2천여 종의 표창장이니 무엇이니 보내 왔다구요.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예요. 세계를 형제로 만들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선생님의 생일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4차 아담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이 국가적 시대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부터 아담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정해서 지금 넘어가는 때예요. 가나안 복지 상륙이에요. 경계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를 통일해 나왔으니 맨 나중에는 나라가 문제예요. 이 세계의 환경권은 하나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 대상만 되면, 이북과 하나되면

이복이 먹고사는 것은 문제없어요, 내 말을 들으면, 세계가 전부 협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상권은 그걸 모르고 나한테 자기가 중심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정할 테니 선생님 기다려 주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상권을 믿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세워서 미국에서 고차원적인 길을 열려고 그래요. 자!

사탄을 굴복해서 혈통을 전환해야 천국

『천국은 사탄세계의 내용과 상반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그것은 환경을 농락하기 위한 속임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탄을 극복한 자리에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일체의 요인을 부정한 자리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청산 지은 자리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부정적 여건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생활적인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청산지은 터전에서 천국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남기고는 천국의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부정하는 데는 사탄의 핏줄을 부정해야 돼요. 최후에는 핏줄 전환이에요. 지금 누시엘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누시엘 일족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사탄의 핏줄까지도 전환시켜야 된다고요. 사탄 환경만이 아니에요. 자, 읽으라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개인의 천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성립시킨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천국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

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를 중심으로 만국을 횡적으로 연결시켜서 전체 천국을 모색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곽정환, 기도해요. (곽정환 회장의 기도)

윤정로, 자르딘에 대한 것, 환경 내용이라든가 ‘세네’(새소망축구단)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보고 좀 해요. 환경적 여건이 얼마만큼 변했다는 것 말이에요. (윤정로 보고)

자르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세밀히 알게 되면 전부 다 집을 팔고 이동하려고 할까봐 걱정이라구요. 한국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밥 먹여 줄 준비를 했나, 어땠나? 여덟 시 반이 되었는데. (경배)

3년 이내에 우리가 브라질의 에이(A) 그룹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 웃노? 「좋아서 웃습니다.」 (웃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브라질은 주(州) 어디를 가든지 만사 오케이예요. 각 주지사들을 모아서 교육하면 한 달 이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가져서 환영 못 받는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 조직 편성해서 소화 못 한다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구요. 알겠어요? 「예!」 자, 밥 먹자! *

참감람나무 열매가 되라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제1장 2절부터 훈독)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은 담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불교권이 있고, 유교권이 있고, 전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터놓아야 합니다. 천상세계의 높은 보좌로부터 담을 헐어 버리고 거꾸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자연굴복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구요.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금력이라든가 계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부모에 접붙여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1985년 2월 1일 오전 3시를 기해서 어머니와 특별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의 모든 담이 무너져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또 영계에서 자기 친척들 중에서 선한 영이 있으면 와서 교육해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영계의 구세주 역할이 시작됐다는 것입

2000년 3월 31일(金),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니다. 구세주 역할이 영계에는 있지 않고 이 땅에만 있었는데, 이런 길을 닦아 줌으로써 저나라의 선한 영들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교육해서 선한 조상이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조상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만이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라구요. 접붙이면 뿌리의 요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를 잘라 버리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접붙인 그 가지의 힘이 줄기의 힘보다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중심 뿌리도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뿌리까지도 비료로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종족적·국가적 메시아 책임을 못 하면 참부모에게 한을 남겨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영생의 관념에는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써 모든 지상적인 표준, 영원의 표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세밀히 가르쳐 줬어요. 상헌 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과 비교해 보면 틀린 것이 없어요. 저나라에 가면 이 말씀이 앞에 설 것이고, 상헌 씨가 가르쳐 준 말씀이 뒤에 서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아까 50세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50대에 말씀한 거예요. 3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라는 말도 나와요. 종족적 메시아는 종족에

과급해 나가야 돼요, 혈통적 기준을 가지고, 싸워서 갈라진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놀음을 해야 돼요.

국가적 메시아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움이 동기가 되어 갈라졌기 때문에 사랑하고 화합하는 동기의 연결을 개인에서부터 국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일세계가 되어 앞으로 나라가 하나되면 한꺼번에 열 나라라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을 중심 삼은 개인이 국가적 기준까지 설자리가 완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인간들이 노력해 할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때가 와서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게 될 때, 거기에 탈락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가적 메시아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를 선생님의 책임으로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못 하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게 되면, 국가적 메시아라든가 종족적 메시아가 책임을 못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타락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한과 인류의 한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적 한과 선생님의 한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raq구요. 선생님의 말씀이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표준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거예요. 읽으라구.

참사랑을 중심하고 완전 부정해야 참부모와 혈통이 연결돼

『……트루 페어런츠가 뭐예요? 육신 부모와 참부모가 무엇을 달라요? 참부모가 뭐예요? 뭐하는 것이 참부모예요? 무슨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부모raq구요? 사랑을 중심삼고 말할 때, 그 육신 부모와

참부모와 무엇이 달라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부모는 육신을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는 영적인 세계를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핏줄이 다르다구요. 핏줄이 다르니까 연결시킬 수 없어요. 횡적으로도 연결 안 되고, 종적으로도 연결 안 된다구요. 완전히 종이 되어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사상을 중심삼고 나오고, 종교는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상을 품어 나왔는데, 종적인 하늘나라와 횡적인 세상을 다 부정해야 돼요. 자!

『……악한 부모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횡적인 면에서 싸움이 벌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또 종적인 선한 신(神)과 악한 신의 세계로 갈라졌습니다. 거짓 부모가 생겨나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참부모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타락이 생겨났으니 이것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에 둘이 생기고 횡적 기준에 둘이 생겼다구요. 조상이 하나님이 안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 놓아야 돼요. 뒤집어 놓으려면 180도 반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180도가 되어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가 되어야 수평이 되지요?

두 세계를 하나 만들려면 영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계를 몰랐어요. 영계를 참부모가 와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면 자동적으로 이 종횡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참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참사랑의 근원은 핏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관계를 맺은 것은 핏줄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핏줄이 연결된 거예요.

그 핏줄 가운데는 참생명과 참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과 참생명의 열매가 핏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만민과 연결될 수 있는 핏줄을 남기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가지와 마찬가지로 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의 생명 줄은 언제나 큰 생명 줄의 뿌리로 말미암은 줄기와 순으로 통하는 생명을 보급 받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크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가지가 자기를 중심삼고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의지하고 줄기를 의지하고 순을 의지해서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이라구요. 자기들이 뿌리 대신, 자기들이 줄기 대신, 자기들이 순 대신 설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야 영양소가 비로소 본연의 기준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인연이 하나님께서 세운 참부모의 혈통적 관계로 말미암아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때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요. 사랑이 먼저냐 소유권이 먼저냐 할 때, 하나님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후에야 우주의 소유권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먼저냐 소유권이 먼저냐 할 때,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주인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사랑관계를 맺어야 소유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생명·혈통을 청산하지 않으면 저나라에서 보류돼

인간도 마찬가지로요.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과 사랑 중에 무엇이 먼저냐 할 때, 사랑의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의 인연을 맺어야 소유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권내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탄 중심삼은 소유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참사랑을 중심삼은 사랑의 주인이 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전체를 청산하기 위해 ‘총생축 헌납’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절대신앙보다도 더 위대하다구요. 절대신앙은 1대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것은 영원을 중심삼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말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영계와 육계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의 인연을 맺지 못하면, 핏줄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영계와 육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론이라구요.

두 세계로 갈라졌어요. 횡적으로는 거짓 부모과 참부모, 종적으로도 참부모인 하나님과 사탄으로 갈라졌어요. 이걸 절대 부정해야 영점에 가는 거예요. 부정해서 내려와 가지고야 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되었던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종으로 내려와서 횡적 기준에서 사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도 파이프와 마찬가지로 물이 나가다가 공기가 있으면 막혀 버려요. 혈통을 중심삼고 모든 전부가 사랑의 소유권에 평준화된 이 세계를 중심삼고 성숙해서 결혼만 하게 되면 종을 중심삼고 하늘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담 해와라구요.

그래, 이 세상의 자기 소유물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 안 써요. 전체를 위해서 뿌려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여자들은 액세서리라든가 남편한테 받은 것을 기념할 것이 아니에요. 전부 부정해야 돼요. 용광로에 녹여야 돼요. 액세서리니 뭐니 전부 불살라 버려야 돼요. 불살라 버리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하고, 혈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저나라에 가서 청산할 때까지 보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크다고요. 알겠어요? 「예.」

사탄에 속한 전부를 부정해야 영계가 내려와 협조할 수 있어

영적으로 축복한 영계 사람들도 그래요. 전부 부정하기를 바라요. 부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틈바구니에 무엇이 있으면 싫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축복받았으니 중간에 뭐가 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계가 내려올 수 있으려면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사탄에 속하게 된 입장을 부정해야 돼요. 여기에 물건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요. 완전히 그래야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되는 거예요. 절대 부정 기준에서 하나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된 가정을 누가 가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땅의 부모들도 처녀총각이 결혼한다고 생명을 내놓으면 갈라놓을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될 때는 온 우주의 중심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해서 잘라 버리려고 해도 잘라 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암만 싫어하는 자체라도 잘라 버리지 못해요, 그게 원칙이니까. 부정의 논리를 알겠어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고 나서도 희생해야만 영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고 자랑하다가 자기의 무엇이 있으면 횡적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혀요. 영계에 그냥 그대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나라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절대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계에서 소유

를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물건들을 헌납했다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불을 안 살라요. 불사를 수 있는 자리에서 남아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전부 불살라 버려야 돼요. 존재를 부정당해야 돼요. 완전 부정당해야 된다고요. 존재로부터 모든 소유권을 부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타락 전 참사랑을 중심삼은 개인으로부터 세계 판도가 되고 영계 판도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청평에 가서 조상 해원식을 하지요? 꿈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해원해 주고 축복받게 해야 천사세계의 축복받은 가정이 지상의 아담 축복가정을 보호하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와서 자기 가정이 환난이 없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세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 그런 놀음을 하지요? 홍진군이 영계의 총사령관이에요. 사탄세계의 분별적 모든 것을 통일적 기준으로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하나되고, 세상과 사탄이 하나되고, 영계와 갈라진 것이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진군과 대모님, 선생님 일족이 합해서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락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몇 장까지 읽나? 「4장까지 있습니다.」 2장까지만 읽자구. 지금 몇 절을 읽나? 「3절입니다.」 3절까지만 읽으라구. 「예.」

가인권을 자연굴복시켜야

「.....참부모는 인류가 찾아야 할 참된 부모입니다. 그 참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분입니다.

참부모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과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제단이요, 사망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과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초점입니다.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될 수 있고, 갈라졌던 두 경계선이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탕감제물의 입장에 서신 분이 참부모입니다.』

이번에 다 그런 책임을 끝냈어요. 손대오도 그런 것을 싫어하고 있다가요. 이중이에요. 이것이 하나되어야 돼요. 몸 마음이 하나되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되어야 돼요. 교회와 사회가 수평이 되어 나가요. 교회의 내적 심정 기준과 외적 심정 기준이 가정과 종족민족국가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둘 이상씩 책임지게 한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은 가인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아벨 국회의원이에요. 아벨 나라를 세워 아벨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이 남북통일이 되면 세계가 통일된다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에 나가겠다고 목을 매지 말라구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대한민국을 자연굴복시켜서 차차 아벨이 장자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를 위한 승리적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 문총재가 세계적 기반을 닦고 왔다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 기준을 넘어서 세계 기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연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외적 물건을 가지고 개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히 심정 기준을 중심삼고 자연굴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형님과 같이 모시고, 대통령 이상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이 그 본심에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말씀만 알게 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교육하면 통일교회의 어떤 내용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관이라든가 세계의 무엇이 미칠 수 없는 차원 높은 국가 이상관이 설정되고 세계 이상관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본심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비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하나님이 그랬으니 우리도 절대신앙·사랑·복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승리의 왕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심정에 일체가 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신념, 참부모와 더불어 있다고 하는 신념이 생애노정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동요함이 없이 천년만년 지탱할 수 있는 자아가 되어야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천상의 주인으로 임하는 것이요, 지상의 주인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상에서 영원한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영원을 중심삼고 중심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부모를 모시는 생활에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방해되고, 본연의 평화의 기준을 파괴시키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제2차 40년노정을 출발하는 자르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요. 통일교회는 교회와 사회가 하나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 책임과 사회 책임을 중심삼고 동등한 가치로 취급할 수 있는데, 어디가 먼저 출발해야 되느냐? 교회의 기준을 중심삼고 참된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상대는 하나되는 거예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 수평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몸뚱이는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관을 중심삼은 남북통일이 된 국가관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서 세계 천주와 화합할 수 있는 평면도상에 선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한꺼번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환경 창조는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외적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국가를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이 땅에 와서 남북통일의 국가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이 나라를 무시해요.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된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북한은 간단하대구요. 민주세계가 합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된 자리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살더라도 교육하게 되면... 자기들은 교육시킬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끝났대구요. 공산주의는 실험이 끝났지만, 통일교회의 참부모 중심삼은 사상은 이제부터 출발이에요. 전부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도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맞춰 살아야 된대구요.

요. 지금까지 맞출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원리를 중심삼고 지상의 생활을 맞춰서 사탄 승리의 기반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을 중심삼고 접붙여야 돼요. 접붙여서 영양소를 백 퍼센트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시대

옛날 타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접붙였지만 지금 때는 거꾸로예요.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완전 부정해야 돼요. 완전 부정해야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의 줄기로부터 연결되어 대신 생명의 인연을 중심삼고 동급에 섬으로 말미암아 잎이 같고 꽃이 같고 열매가 같아지는 거예요. 반대라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과거의 때에는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지만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부정해야 돼요.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때는 시인해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감람나무 가지에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전체를 시인한 자리에서 여러분 자체만 부정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역사 전체를 부정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자체만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한 모든 것, 사탄권 내의 국가,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으니 자기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가정을 보나 무엇을 보나 다 파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련 없어요. 그걸 안다면 한꺼번에 불살라 버려야 돼요. 불살라 버리는 조건, 하늘이 만물을 불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총생축헌납제를 내세운 거예요. 그것을 해서 조건적인

입장에서 참된 하나님의 소유권에 만물도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적 세계에 남겨 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사탄에게 인연되었던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류계급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삼고 부르주아(bourgeois)계급을 타도해 버리고 빼앗자는 거예요. 왜? 사탄세계에 넘겨줘야 할 조건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중심삼고 완전히 인류가 모르게 뒤집어씌워서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노동조합은 없어진다구요. 선생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가만둬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구요. 접붙이는 것이 달라요. 알겠어요? 「예.」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본질이 변화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이미 환경 창조 가운데서 선생님이 플러스적인 주체적 기준을 중심삼고, 주체적 국가, 통일적 국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완전한 플러스를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자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리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원리적 관점에서 행동 못 하고, 전체가 하나되어 한 나무의 순과 같이 못 된 거예요. 나뭇잎이 같은 입장에 서면 떨어지지 않지만 조금 달라지면 병이 들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나무를 중심삼고 하나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돼요. 오시는 참부모와 더불어 절대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접붙여서 3년 4년 이내에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체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죽지 않고 남아져야 하는데,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줄기, 가지, 잎까

지 한꺼번에 접을 못 붙여요. 하나에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한 그것이 연결되어 커서 전체가 접붙여진 것과 같이 되어 가지고 같은 잎이 되고, 같은 꽃이 피고, 같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내지 4년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3대를 거쳐야, 3시대를 거쳐야만 접붙인 나무의 씨도 참감람나무의 씨와 같이 심더라도 돌감람나무가 되지 않고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탕감은 불가피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영계를 알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

여러분은 핍박이 없어요. 선생님은 핍박받으며 죽음의 고개를 넘나들면서 거꾸로 개척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몽땅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서 저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상헌 씨의 보고에도 있잖아요? 고차적인 가정에서 그럴 수 없는 가정이 비참한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 혈통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의 보고 가운데도 그런 것이 나오지요? 「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 환경을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집들을 한꺼번에 불사를 것이라구요. 나에게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라와 세계를 바라지 집을 바라지 않아요. 개인·가정·종족·민족을 희생시켜서 나라를 찾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족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관이예요. 선생님이 적당히 말한 것이 아니예요. 원리관에 비추어서 전부 다 이론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구요.

영계를 알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무엇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걸어온 그 기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백 번 죽더라도 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요. 일생으로 대신할 수 없는 몇 백 배 몇천 배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고개도 넘고 넘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저런 것을 거짓말로 알고 영계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절벽강산으로 담이 그냥 남아지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갈 길을 못 간 사람들이 꼬리를 치고 세상에 망살을 심어 보라구요. 망살의 환경을 만들면 인간으로서 참의 길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순금으로 남아질 수 있느냐

훈독회가 필요하지요? 「예.」 들이 죄겨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쇠를 두드려 가지고 일본도를 만들 수 있어요. 강철을 천만 번 단련하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되풀이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젊은 사람들은 되풀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요? 사탄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도 공부지만 봐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 안 된다구요. 보고 느껴야 할 텐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되풀이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되풀이해야 돼요. 기술도 그렇지요? 몇 년 했느냐 이거예요. 10년 20년 해서 되풀이한 그 연한이 길면 길수록 그 가치에 가까운 거예요.

금을 제련할 때도 그래요. 최고의 온도에서 주위에 있는 것이 전부 타더라도 그것은 안 타기 때문에 금이 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안 타고 그냥 그대로 백 퍼센트의 금덩이같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저나라에 가서 제련과정을 거쳐

야 할, 여과과정을 거쳐야 할 필연적인 운명이라고요.

그러니 지상에서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최고의 죽음 길도 넘겼다고 하게 될 때 제련소의 금으로서 남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 시작했다면 순금으로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이 쌍것들아? 「알싸!」 잘났다고 꼬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것을 다 아니 세상의 누구보다도 교만해야지요. 천하의 높은 데에서 ‘내 말 들어라!’ 해야 되는데, 아니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도 혼독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뛰어넘는 것을 모르지만 선생님은 대번 알아요. 왜? 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대번에 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서도 참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대번에 안다구요.

이 시대의 변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알아요. 남북통일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공산당도 없고 민주세계도 없어요. 우리만이 영점에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착되는 날에는 자동적으로 그 환경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서 세계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관이에요. 자, 몇 페이지 남았나? 「1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래, 읽자!

『……축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선생님이 영계를 잘 알고, 성자들이니 뭐니 하는 났다는 교주들을 다 아는데 너희들한테 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정순, 기도하라구. (조정순 기도) *

가정 이상의 정착

<기 도>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모든 식물이 비를 받아 자라서 열매를 향하는 것같이, 지상에 하늘나라와 천국이 일체가 되시어 참부모를 모시고 사랑의 꽃동산을 이루어 평화의 천국을 천주에 완성할 수 있게끔 계절과 더불어 때와 더불어 맞추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이했사오니, 이 달에 전국을 중심삼고 남북통일전진 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사오니, 그 머무는 곳, 거기에 있는 주변 전체를 환경으로서 세워 놓고 거기에 하늘이 주체적 입장이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대상적인 실체가 되게 하시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의 이상이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국적인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통일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건국하는 데 이상적인 결속과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하나가 되어 천지부모를 모시고 하늘을 모시는 전통을 후손들 앞에 고이고이 남겨줄 수 있는 맡긴 바의 책임과 생활과 생애의 노정을 거

2000년 4월 1일(土),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초하루 경배식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처가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달은 또 미국에서 8일부터 12일간 어머니가 대회를 시작합니다. 장자권 나라 미국을 중심삼고 예수와 더불어 전체 영계의 기독교권과 4대 성인권이 일체가 되어 승리의 장자권 기반을 갖추어 가지고, 부모님의 나라를 모시고 온 인류를 품고, 부모와 더불어 형님과 더불어 동생을 품는 세계적인 모든 각국이 일체가 되시어서 당신의 창조이상인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불변의 권속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달 4월을 맞이했사오니, 영계도 봄절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협조와 더불어 새로운 당신의 사랑의 모든 생명의 요소를 투입하시어 만우주가 번성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날이 이 4월이 자랑스러운 4월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통일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전영계의 종교권, 전영계의 양심권, 낙원과 지옥에 있는 모든 전체가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시위의 지상·천상 일체화를 이루시어 만민 해방, 만우주 해방이 천지 부모를 중심삼고 성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신 뜻을 향해 순응하는 모든 길 앞에 아버지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가 길이길이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세계일보 조사위원협의회와 순결운동본부 활동에 대한 김봉태 회장의 보고)

중고등학교에서 원리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라

앞으로 학교 교장들을 모아서 의논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소개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북이 신앙화된 것같이 신앙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리가 통일교회 교리보다도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에요.

가정이 갈 수 있는 원리인데, 이것을 알아야 자기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생의 길을 목표 삼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결운동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려 주는 거예요. 이걸 영생 문제와 결부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원리강의를 2박3일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학교가 토요일에 공부하나, 노나?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하고 월요일 10시까지 해서 2박3일을 중심삼고 원리강의를 해줘야 돼요. 책을 학생들한테 훈독회 교재로 해서 수십 번 읽어 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험을... 이것을 학과의 시험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거라구요.

원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것이 필요하나? 청소년들이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24세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관을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부모들이 갖고 있던 신앙생활 기준을 전부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것을 평가해서 어떠한 점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종교 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방향을 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전 기독교인들에게 비로소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중심삼고 그 결론을 지어 놓으면 반드시 그러한 기준을 중심삼고 학생들

이 부모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야 되느냐? 16세에 타락했다구요. 청소년 시대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모보다도, 그 할아버지보다도 문제는 3세예요, 3세. 3세권이 문제라구요.

아담 해와가 순결의 전통을 못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런 면에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우리 통일교회로 말하면 원리 말씀을 듣고 부모들이 반대하더라도 1960년대 1970년대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개척했다구요. 그와 같은 운동을 재개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하고 청소년이에요. 어머니보다도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돼요, 가인 아벨. 자녀가 하나 안 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하게 되면 아들딸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아들딸이 하나되어서 부모님을 모셔야만 아버지를 중심삼고 비로소 가정이 하나되어 가지고야 하늘의 종적인 기준에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종횡의 기준이 연결되는 거라구요.

학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 남편들을 교육해야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열여섯, 열일곱 살이 고등학교 때지요? 「예. 열다섯 살이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하면 되는 거라구요, 시춘기를 맞은 학생들을. 서울이면 서울의 중요한 학교를 중심삼고 교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말씀을 들어 보시오.’ 해서 특별히 토요일이라든가 날짜를 잡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장들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학교에서 순결과 올바른 인생의 행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중요성이 뭐냐 하면 순결이고, 외적인 중요성이 뭐냐 하면 천상세계에 상대적 기준에서 그 박자를 맞춰 가지고 하나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계까지 이 높음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회 하는데, 결혼지를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자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석했지만 가정의 중심이요 사회의 전적인 기반을 연결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자녀와 남편이 필요해요.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이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이에요.

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 원만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떼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살육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창조한 첫번 인류 조상의 가정에서 살육전이 벌어졌으니 이 땅 위에는 전쟁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가인 아벨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것이 메시아를 찾아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인류에게 있어서 아벨적 존재예요. 역사시대의 열매로 오는 분인데, 인류는 이분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형태를 갖춰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부모의 자리에 성신이 와서 낳아 주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담 가정이 실수한 것을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적 탕감 시대의 모델형이에요. 종족이면 종족도 부모를 중심삼은 자녀와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세계도 마찬

가지고, 천주도 마찬가지로요.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 동시성의 공식 원리가 확대되는 그런 내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해서 가정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그래서 강사들이 오 에이치 피(over head projector;두상 투영기)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워 포인트를 하려면 기자재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오 에이치 피(OHP)는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떠 가지고 넣으면 바로 화면으로 나옵니다.」 비디오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예. 강사용으로 비디오도 찍었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넣어 가지고 보면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대중화시켜야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예. 앞으로 선생님들까지도 교육하겠습니다.」 그래 놓아야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종교가 평준화돼. 우리의 이상을 교육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모든 종교권에 있던 아들딸, 사회 각 계층으로 확대해 교육시켜서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완전히 지상에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원리관이에요. 원리적이랍니다.

청소년을 두고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종적인 가인 아벨이에요. 이것이 하나되어 고등학교와 하나되어 가지고 대학교와 하나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횡적인 면에서 형님 동생이 하나되고, 어머니와 하나되어 부모와 하나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림주를 중심 삼아 가지고 하늘과 하나되어야 돼요. 종적 기준에서 팔정식과 같이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생활 방식이 모델형이 되어야 돼요. 원리 원칙에 맞게끔 공식적인 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가정생활이 귀하다는 거예요.

요. 이게 모든 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삼고 가정은 다 마찬가지로예요. 족장도 가정 형태를 확대한 것이요, 나라의 대통령도 가정을 확대한 것이요, 세계의 대통령도, 천주의 대통령도, 하나님도 그것을 확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예요. 핵의 내용은 마찬가지로요. 가정이 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우주를 파탄시키는 것이 돼요. 아담 해와가, 가정의 두 사람이 타락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남자 여자의 사랑이 우주의 모든 이상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은 근간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그런 사상을 딱 집어넣으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기성교회 소화는 청소년으로부터

봉태가 순결 가정과 참된 가정을 중심삼고 특별 수련을 해야 돼. 교사들, 교수들, 총장들을 중심삼고 교육을 한번 해보라구.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구. 순결운동의 핵심은 우리 원리 내용이거든. 순결 강의가 이렇게 되어서 근원이 되어 있는데 근원, 뿌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강의를 하라구.

토요일 오후부터 하는 거예요. 대개 토요일 오후면 학교 교장들은 자기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까지 원리의 골자를 얘기해 주라구요. 책을 중심삼고 읽어 가면서 교육시켜야 돼요. 책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자기가 잘 못하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들은 책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번에 책을 보고 골자를 잡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빠르다구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소화하는 것은 청소년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년

이 타락해서 부모도 뒤집어졌잖아요? 해방권이에요. 우리만이 말씀을 가지고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적인 발판을 하나님이 닦아 놓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 다음에 교수세계, 학자들이 전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상속자예요. 전 시대를 지나서 현재에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어서 전통적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시해야 된다고요.

통반격과의 이념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려요. 매일같이 절대 그 높음을 하기 힘들어요. 원리 원칙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식을 부정할 수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가정 형태가 이렇지 않으면 안 되고 실제 생활에서 지혜를 갖기 때문에, 전체 비준을 중심삼고 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상적 결착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선생님은 소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영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원리 말씀을 가르쳐서 이론적으로 이해시켜야

통반격파니 모든 걸 해 나갈 때, 혼동회도 혼동회지만 그 골자 내용을 중심삼아 가지고 원리 내용을 중심삼고 확대할 수 있어야 말씀이 이해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한다구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또 사회는 그런 기준에서 뒤넘어치면서 발전해 나왔어요. 싸움판이 개인시대에서 가정시대, 국가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

시대, 세계시대로 발전해 나왔다고요.

지금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화 시대를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천운이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세계화 시대에서 뭘 하느냐? 세계화 시대에서 투쟁적인 결과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적인 결과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 마음이 갈라진 것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로 나뉘진 거예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신론과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 양심을 대표한 거라면 그것은 마음세계이기 때문에 몸을 소화해야 돼요. 소화 못 하면 이상적인 세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반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 사회가 규제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 주색잡기예요.—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을 파탄시키는 놀음이에요. 사랑 문제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도박은 사회를 파탄시킨다 이거예요.

그런 원칙을 알아야,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자기들이 갈 방향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암만 주변에 뭐가 있더라도 당장 자기 다음 단계의 가정 편성, 종족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요.

황선조는 그걸 알아야 돼. 「예.」 혼동회도 그렇게 가르쳐 주라구.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빼서, 10페이지쯤 골자를 잡아서 ‘아, 이거 필요하다.’ 할 수 있게끔 이해시켜 가지고 2박3일 교육하게 되면 완전히 본 궤도로 들어가.

그래서 자기들이 원리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시험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이 기준을 느껴야만 되겠다고요. 이번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가정 이상이 정착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교육해야

「교육이 끝난 다음에 광명을 갔었습니다……」(선거와 관련된 김봉태 회장의 보고)

앞으로 우리가 점점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구요. 잘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꿈무늬에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교육만 하게 되면, 원리 말씀만 전하게 되면 기성교회니 불교니 모든 종파를 초월한 입장에서 청소년을 묶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가정적으로 정착하는 시대예요. 순결된 남녀가 하나되어 가정 이상이 영원을 두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학교의 교육 방침이 그래야 돼요. 「예,」 이제 그 단계에 왔다고요. 당신네 선생님까지도 순결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절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의 권사나 집사가 전부 여자들이예요. 부모 중에 청소년 문제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아들딸이 순결하고 정직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도 방법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2박3일만 교육받으면 당연히 알기 때문에 원리책을 열 번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상들이 영계에서 와서 협조한다구요. 우리 말씀이 다른 것이 영계가 협조한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양자 시대가 지나가요. 통일 운세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이 남북통일 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당을 만들 수 있는 준비 공작을 한 거예요. 현재 남북통일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런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남북통일 지도자 교육이라는 그 표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반대할 도리가 없어요.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통반까지 교육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지금 청소년 순결문제를 중심삼고 정착했어요. 정착했으면 울타리가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학교가 울타리이고,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와 하나되어야 돼요. 대사회적인 면에서 교장과 학교 사람들이 부모 가정의 일족과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환경이 필요해요.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의식을 심어 줘야

지금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착하기 위한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앉아 가지고 원리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의식을 심어 줘야 돼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의식 혁명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어민 도시민 등 단계가 다른 생활적인 기준에서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적 기능, 이해를 시키고 각성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같이 발전적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독보회라고 해서 마을마다 모여서 김일성 어록을 독보 회합니다.」 독보회 하는 그것이 사실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게 위장교육이에요. 어차피 그건 드러나기 때문에 깨져 나가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그런 것을 근본까지 빼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나서기 때문에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전부 해방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놓아준다.'고 한 거예요. 그게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정을 거쳐 자각할 수 있는 단계에 서야, 자기 주체성이 되어야만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가 되어 있으면 상대는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감동을 받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에 창조성이 있는데, 창조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으면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주체라고 했어요. 마음이 주체라구요. 이것은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삼고 노동자 농민, 사탄이 맨 말단에서 추방될 수 있는 이때에 전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개발성이 있지만 창조성은 누구한테도 없어요.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삼고 한계선을 넘어가야 할 텐데 거기에 막혀 버렸다는 거예요. 밤을 중심삼고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구요. 나중에는 아무리 밝다 해도 마음에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춘하추동 밤이 찾아오면 전부 해이해지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는 천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하면 말씀이 구현돼요. 그래서 지금 정당이냐 무엇이냐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이, 여당 야당이 가르칠 무엇이 있어요? 손 못 대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게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아들딸 문제, 그 다음에는 부모 문제, 그리고 일족 문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서부터 고장났다는 것을 앞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의 상대적 기준인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

우리 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이라고 했어요. 절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이라는 것은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예요. 평면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이 창조·주체·관계·통일이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주체적이라면 상대적 기준이 뭐냐 할 때, 절대성에서는 창조고, 유일성에서는 주체고, 불변성에서는... 불변이라는 것은 두 관계가 변해 나가는 것이거든. 혼자서 나간다고요. 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영원성은 통일이예요. 하나되어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된 모든 전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는 관계의 세계라고요. 개인 관계, 가정 관계, 종족 관계, 민족 관계, 전부 관계예요. 정치 관계, 문화 관계, 종교 관계, 전부 관계의 세계예요.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대성과 주체성을 중심삼고 중심 저변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이에요. 창조성도 참사랑 때문에, 유일성도 참사랑 때문에, 불변성도 참사랑 때문에, 영원성도 참사랑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이 참사랑을 주체로 해서 상대적 입장이기 때문에 참사랑을 하게 되면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과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속성이 전부 통

일되는 거예요. 3단계를 통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절대·유일·불변·영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창조·주체·관계·통일이예요.

지금은 통일시대라고요. 둘이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몸 마음이 하나되는 데에서 개인적 사랑의 정착,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되는 데에서 가정적 사랑의 정착, 가정의 부자지관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종족적 사랑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종족이 하나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과정이 뭐냐?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종족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은 국가를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발전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타락적인 관계에서 발전적 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상대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를 하나님 자체에 결합시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주체적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창조와 마찬가지로요. 창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체를 창조한 거예요. 물과 공기, 땅과 태양을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있으니, 거기에 그 모든 환경을 흡수해 가지고 주체를 지은 거예요.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을 지어 가지고 해와를 지은 거예요.

그래, 절대적 창조성이 있느냐, 유일적 주체성이 있느냐, 불변의 관

계성이 있느냐, 영원한 통일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모체가 무엇이냐? 이 우주의 발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완전한 씨로 심은 그 씨가 이와 같은 속성의 내용을 어디에 가든지 변함 없이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구요.

「예, 아버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언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벌써 이 말씀을 다 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인데, 그것으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속성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고요. 창조·주체·관계·통일이에요.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 원칙을 중심한 환경을 만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환경 창조를 자기가 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삼고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돼요. 원리 말씀을 알고 뜻을 아니까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환경을 중심삼고 사는데, 왜 사느냐? 이런 목적을 갖추어야 할 주체와 대상 관계예요. 가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래야 된다고요. 가정이 관계의 세계에서 상하관계, 좌우관계, 전후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주의 근본이라구요. 남자와 여자의 인연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연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연이 맞아야 돼요. 인연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관계를 대번에 맺지 않아요. ‘아, 내가 좋다!’ 해야 돼요. 내가 좋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성·현재성·미래성이 있어야 할 텐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닮으면 자연히 동화되는

거라구요. 이래 가지고 환경에 이루었던 모든 전부를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적 환경이 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 가든지 하나되어 있어야 돼요. 벌써 관계에 있어서 틀림없어야 된다고요.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는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사랑의 모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맺으면 통일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되었더라도 중심 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통일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얘기를 간단히 했을 텐데?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의 용어는 들었습니다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원칙을 중심삼고 내 자체가 대신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봉사해야 된다고요. 환경이 되면 자연히 환경에 있는 타락한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상대권을 이루어 하나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어 있으니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맺어지면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적 최초의 정착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만 하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중심삼고 상대적 실체가 되어 연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서 정착하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절대·유일·불변·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지상천상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에 창조 역사, 주체성 확립, 관계 설정, 통일 완성의 내용이 있어

모든 만물이 생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서 자동적으로 큰 것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삼고 만물이 기쁨으로써 흡수되는 거라구

요. 이와 같이 주체 앞에 대상은 사랑을 중심삼고 흡수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손해나게 되면 후퇴해 버려요.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창조가 벌어져요. 대혁명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주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의 기원이 되니까 벌써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참사랑을 어떻게 세우느냐? 보다 위할 수 있는 환경을 플러스시키는 데 영속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부러먹지 않아요. 천국과 사탄세계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사탄세계는 자기 주체성을 중심삼고 흡수하지만 이것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공식을 봐도 통일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상당히 발전하는 거예요. 가서 어려워면 식구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안 되기 때문에 발전 안 해요. 이거 이론적이raq요.

선생님의 인생은 그 삶을 산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문제가 벌어져요. 선생님이 가는 데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벌어진다구요. 세계적으로 문제시해 왔다구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환경이 흡수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엔 주체성의 확립, 관계의 설정, 통일의 완성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정지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귀역사를 계속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 생활권 내에서 어제보다는 하나를 보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야 돼요. 낚시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세계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무리 덩더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걸 계속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축구 하나? 「내일입니다.」 내일은 어디하고 하나? 「대전 시 티즌입니다.」 새로운 팀이야? 「벌써 한 5년 되었습니다.」 천마 팀은 문제없잖아? 「예.」 몇 번 이기면 4강에 올라가나? 「저희는 현재 4강에 들어 있습니다……」 (성남 일화 천마축구단에 대한 박규남 사장의 보고) *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

훈독회 안 해요? 「훈독회합니다. (황선조 회장)」 내가 말씀하고 해요? 「무엇을 훈독합니까?」 이번에 대회 할 때 한 것,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을 훈독해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자를 여러분이 백 번 천 번 읽어서 외워야 섭리관이 확실해지고, 금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해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자 왕녀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를 말해요.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 훈독)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 하나에 달려 있어

얼굴들을 봐서는 딴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다 지워 버릴 것 같아요. 무섭다구요. 선생님 말씀이 필요해요? 「예.」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4일만 있으면 내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내가 여기에 왔다구요. 바쁘고 감기도 들고 목도 쉬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해주기 바라요, 그냥 다시 말씀 한 편을 더 읽고 그만둘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해요? 「예.」 마음대로 하라면 그냥 갈 거예요. (웃음)

2000년 4월 2일(日), 본부교회.

심각한 말씀입니다. 레버런 문이 바라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어떻게 내 개인이 완성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 앞에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중심자가 있으면 어떤 희생이라도 작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만 해결하면 남북통일 전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지옥이 되었더라도 지옥의 문을 개방하는 것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달렸어요.

남북통일, 조국광복을 바라는 그 소원은 나라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가 남자 여자를 대표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완성 기준을 중심삼고 볼 때 섭리의 모든 전부는 남자라는 나, 여자라는 나를 위해서 움직여 나왔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의식 위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타락권 내에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나라고 생각할 때, 그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가정 구원과 국가 구원과 세계의 구원이예요. 그리고 하늘땅에 갈라져 있는 것을 전부 해방하고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인간의 해방권을 바라 나왔지만,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본연적 근거를 파헤쳐 생각하게 될 때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자리에 선 거예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완성해야 할 아들딸이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묻혀져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대상을 찾기 위해 허덕이는 놀음을 해오신 하나님이예요. 그 대상이 없어요. 전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대상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를 거쳐 가지고 직계 아들 자리,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리를 거치는 복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

한 모든 섭리적 종착점인 복귀의 목적, 조국광복, 지상천상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시 이루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운명은 대체할 수 있지만 숙명은 대체할 수 없어요. 부자 관계를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부부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걸 볼 때 나에게서 전체의 소원이, 섭리적 목적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사탄세계가 파탄시킨 거예요. 사탄세계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중심삼고 종교권이 발발한 그 지역을 파탄시켜 나왔고, 환경과 세계무대에까지 끌고 나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핏줄을 전환하여 접붙이는 것이 국제합동축복결혼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수적 입장이고 사탄은 공격적 입장으로, 맞고 빼앗아 오는 전략을 펴 나오는 하나님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던 가정, 진정한 효자 효녀의 가정이 없습니다. 효자 효녀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국가도 없습니다. 국가 기준만 연결되면 그 다음에는 사탄권 내를 넘어서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면 완성기 소생 기반을 중심삼고 들어가서 사탄세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섭리관이에요.

이런 전체를 중심삼고 완성한다고 할 때, 문제는 누구냐 하면 가정도 아닙니다. 나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것이 핏줄이 달라졌 습니다. 핏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직계의 하늘 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표한 가정적 대표가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 가정입니다.

하나님 1대, 아담 2대, 아들 3대를 거쳐서, 아담시대에 많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황적으로 발전해서 민족 발전과 국가 형태를 바꿨던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서 세계, 천주까지 이루어 본연의 하나님이

이상 하였던 천국이념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고 온 인류가 직계 자녀의 환경을 갖춘, 지상에 사는 사람이나 천상에 사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이루어야 할 본연의 하나님의 이상세계, 우리로 말하면 이상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개인 아담, 개인 해와로 말미암아 핏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전부의 완성의 해결점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적이고 전통적 공식과 같은 노정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개인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민족국가세계 완성, 천주 완성을 해서 하나님까지도 업고 올라간 사다리를 밟고 반대로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개인 개인을 맞아 가정과 종족민족국가를 형성하여 세계에 새로운 축복적 혈연관계를 확대시키기는 것이 하나님이 통일교회에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는 국제축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삼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가정적 핏줄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전통적 핏줄을 연결시키는, 접붙이는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합동결혼식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성의 출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통적 내용을 여러분이 완성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연결시켜서 변창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되었으니 씨 대신 열매가 되어서 세계에 변창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지상에 딱 차고 천상에 딱 차서 사랑 주권의 대왕마마를 모시고 아담 해와는 이 땅 위의 대왕마마로 모셔서 일체 이상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복귀섭리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종교권 해방, 수많은 국가와 민족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참부모와 일체권을 이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락권 내에서 가졌던 전통적 습관 등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본래의 기준에 일치되어 내 개인에서부터 왕궁, 하늘나라의 보좌까지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늘땅에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벌써 했지요.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못 해요. 반드시 아들딸을 다시 찾아서 타락의 핏줄이 없었던 완성한 개인, 거기서부터 완성한 가정·종족·민족이 돼야 돼요. 이걸 이론적이라구요. 그러한 목적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심각해요?

나 하나의 거동거리, 짧은 팔십 생애를 거치는데, 우주의 승패가 갈라지는 엄숙한 숙명적인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짧은 육신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뺨골에 사무치는 전율을 느끼지 않고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고 참부모를 보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서 일체권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위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창조했던 기준을 여러분도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대상을 이룬다는 원리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비로소 부모를 모셔서 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신앙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뒤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체가 될 수 있는 본연의 혈통적 기원이

현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딸의 자리에 서게 되어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딸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나라와 지상나라의 모든 전부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천지의 어디를 가더라도 제재가 없고 자유분방한 해방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더 해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너와 나 둘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혼을 잘못했다고요. 완전한 핏줄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핏줄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부부,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딸은 신앙이건 전도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난의 길, 인류역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 밀창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사탄이 박아 놓은 뿌리를 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세계에 있어서 수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섭리역사가 6천년 역사인데, 6천년 역사가 아닙니다. 몇천만년이예요. 기나긴 한을 품은 아버지의 마음 자리를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하는 문제, 타락 때문에 한을 가진 부모님을 어떻게 해방하느냐 하는 문제의 해결점은 이 땅 위의 누구보다도 수난 길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반대하고 전복하고 핍박해서 전부 죽여 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넘고 넘고 넘고 넘어서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중심삼은 6천년 역사입니다. 그 6천년 동안에 닦아진 기반 위에서 오시는 주님과 하나되었더라면 7년 이내에 —7년도 안 걸려요— 4년 이내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인 총탕감시대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또 뒤로는 1997년부터 1998년, 1999년까지예요. 3년노정과 4년노정, 이 7년노정에서 역사적인 모든 걸 탕감해야 됩니다.

남북통일은 조국광복의 기대

레버런 문이 가정도 있고 종족민족이 있지만 국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창조하고 거기에 아담 해와를 지은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여건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이제 문제는 환경권 내의 나라를 중심삼고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조국광복의 기대가 될 수 있는 남북한이에요.

이곳은 공산주의 유물사관과 유심사관의 종착지가 되어 있는데, 최후의 결정을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준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님이 동생을 사랑할 수 있고, 북한이 남한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상천상천국의 이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담 가정에서 형님이 동생을 죽였어요. 살육전이 벌어졌어요. 국가적 기준에서 이것을 해소시켜야 이것이 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국가는 상대 국가로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남북통일은 필연적인 숙명적인 과제로서, 필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일족 7대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못 넘게 될 때는 여러분의 7대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세밀히 참부모님이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궁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역사적인 후손들 앞에 아담이 타락하여 한의 원망을 받던 거와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다시 구하기 위한 섭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상세계의 지옥에서부터 원한의 함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

은 참부모가 그렇게 된다면 아담 해와를 지었던 우주 이상의 천국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는 경지에 가서, 지옥과 관계없는 경지에 가서 다 끊어 버리고 새로운 천상천국 지상천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원섭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종교라는 것이 지금 다 망하게 되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한 책임을 각자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겠습니다.」 생각이예요, 알아요? 「압니다.」 알고 자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 싫더라도... 조건적이에요. 싫더라도 손을 들게 되면 조건적인 손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실체는 못 되더라도 그림자 모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과 같은 자리에, 천국이 있으면 그림자와 같은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해방적 구원 완성한 민족국가만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내리라고요.

책임을 못 하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핏줄이 달라져야 돼요, 핏줄이. 대한민국도 타락한 세계의 전쟁으로 분립된 한 분파의 나라예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하여 그릇된, 정비되어야 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되면 인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치·경제·문화면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부 다 불신입니다. 절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 있는 곳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서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 그래요. 인터넷 시대도 왔고, 이 메일(e-mail) 시대도

왔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40일 이내에 세계는 부모님이 바라는 세계로 획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번에 여러분이 책임 못 하면 선생님은 이제 한국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후보 나라가 많아요. 선생님은 완성권 내에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적입니다. 하늘땅의 최고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완성한 천주적 완성권 내에는 수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시는 주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없는 비참한 피 흘리는 민족이 되었지만, 한국은 앞으로 어떨 것이냐? 피는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주와 조롱의 민족으로서 그들에 살지 않을 수 없는 비운의 자리에 서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일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축복을 중심 삼아 가지고... 원래는 일본에서 3억6천만쌍 축복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한국에 와서 한 거예요. 작년 2월 7일이지요? 추울 때라구요. 그래서 일본 나라가 없어져요. 내가 책임지고 한 거예요.

과거 시대에는 모자협조로 되었지만 지금 때는 어머니가 없어도 되는 부자협조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와 국가가 어머니 국가의 책임을 못 하면 어머니 국가를 어디든지 세울 수 있는 판도를 인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국을 한 나라로 취급해요. 3국이 한 나라예요. 알겠어요? 「예.」

모든 축복가정은 자르던 40일수련과 총생축헌납제를 해야

축복가정들이 자르던 40일수련을 하면서 총생축헌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자리에 가기 전에 모든 소유는 하나님
의 소유입니다. 사랑의 혈통을 이어받고 사랑의 아들딸을 결혼시켜
놓고야 상속권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
요. 이래야 사탄의 발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계와 육계가... 영계의 축복가정은 마이너스로서 지상
의 자르딘에 와서 천사장권 가정이 생겨났어요. 그건 원리에 없는, 창
조세계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으니 둘이 하나되어
축복가정은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지
금은 국가시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전체 통일입니
다.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한 문턱이 뭐냐? 남북통일입니다. 남북통일
이 안 되더라도 내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 놓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을 못 하게 되면... 이제부터 4년간이에요. 어떤 사람
은 40년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년간 생사지
권을 걸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알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
는 내용을 알고, 개인을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책임 못 하
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
떻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지요?

사탄의 핏줄과 같은 사람은 살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더라도 지
옥입니다. 이걸 밟고 올라서서 부활해야 됩니다. 중생, 부활함으로 말
미암아 혈통을 부정하고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한 메시아 사상이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 나온 거예요. 구약은 뭐냐? 결혼을 못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핏줄을 연결시키는 결혼의 바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와서 어린양잔치를 하는 거예요. 재
림시대에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했으면 나라와 세계

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은 예수님의 대신 길을 세계적 기반에서 이루어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 성혼을 중심해서 40년간에 4천년 역사를 탕감하여 세계 인류의 축복권 내의 해방권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시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청소년 문제, 가정 파탄문제인데, 어느 나라 주권, 어떠한 교육자, 어떠한 누구도 그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선생입니다. 참부모라구요. 알겠어요? 「예.」

영계의 비밀, 지상 역사의 비밀, 그걸 다 해원성사한 거예요. 타락해서 이렇게 확대되어 여기 서 있는데, 이 모든 전부를 선생님이 탕감해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일체, 밤이나 낮이나 일체권을 이루겠다 할 때는 이 자리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부모님은 참사랑의 혈통과 참사랑의 일족과 참사랑의 민족을 편성할 수 있게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하늘의 보화 창고를 개개인의 가정 가정에 전수한 것이 축복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주체 대상이 주고받는 데서 가치가 생겨나

말씀을 더 할까요? 지금 몇 시예요? 「일곱 시 반입니다.」 일곱 시 반. 그러면 개인 완성, 원리적 관에 있어서 역사를 정비해서 해방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제목은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입니다. (판서하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사랑은! 「참사랑은!」 본연의! 「본연의!」 대상이에요. 혼자 완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개념으로 하는 세계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어요.

광물세계도 쌍쌍, 식물세계도 쌍쌍, 인간세계도 쌍쌍, 하늘땅도 쌍쌍, 여러분 몸 마음도 쌍쌍이에요. 대상권을 말해요. 피조세계의 모든 작은 것 큰 것, 대상권입니다. 대상권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가치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더라도 상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가 다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 선 내가 어떻게 되어야 모든 해방을 이루어 가지고 사탄세계에서 해방된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판서하시며) 참사랑은 종적으로 90도예요. 그래서 사 구 삼십육(4×9=36), 360도예요. 타락은 이 각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참사랑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되면 그 가운데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반드시 중심이 생기게 돼요. 모든 존재는 쌍쌍이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기에는 사랑을 중심삼고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작은 존재들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중심 삼아서 주체가 되어야 돼요. 천태만상이 이 기준을 중심삼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예요. 전부 마찬가지로입니다. 영계가 플러스고 지상이 마이너스예요. 전부 상대적인 기준이 되어야만 이 중심과 횡적인 수평이 90도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상권이 되어 있는 그 가치입니다. 가치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대적 관계에 있어서 둘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물건을 사서 가치 있다 하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이 합해서 인정하는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제목의 내용을 알겠지요? 「예.」

하나님의 내적 속성과 인간이 바라는 가치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할 때, 절대적인 분이다, 그 다음에는 유일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는 불변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내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도 몸과 마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속성에서 절대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창조입니다. 이게 플러스라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유일에서는 주체예요. 불변에서는 관계예요. 영원에서는 통일입니다. 이 둘이 합해서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삼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참사랑은 절대적이기를 바라지요? 단 하나밖에 없기를, 유일적이기를 바라지요? 불변적이기를 바라지요? 영원적이기를 바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연결된 것이 마이너스와 같이 되어 이 둘이 하나되어 하나님이 인격적 신, 사랑의 주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적 기준이 그렇다면, 인간이 바라는 가치관이 뭐냐? 인간의 가치관에는 지(知)·정(情)·의(意)가 있어요. ‘지(知)’ 자를 보면, 화살(矢)과 입(口)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 말씀(口)의 화살(矢)이다, 타깃을 만들자 이거예요. 지식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앎으로 말미암아 타깃을 중심삼은 환경을 전부 관리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情)이에요. 사람은 정적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마음(心)이 푸르다(靑)는 거예요. 춘하추동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참사랑

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의(意)입니다. ‘뜻 의(意)’ 자인데, 사랑을 중심삼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意)는 ‘설 립(立)’ 자 아래에 ‘가로되 왈(曰)’ 하고 ‘마음 심(心)’ 자예요. 이게 뜻이에요. 말씀(曰)에 마음(心)을 세우는(立) 것입니다. 자·정·의, 사람은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상대적 가치가 뭐냐 하면, 진(眞)·선(善)·미(美)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진·선·미예요. 참되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대적 관계예요. 이것은 내적인 인격이고, 이것은 외적인 인격이에요. 이것이 플러스고 이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정을 통해야 되고,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엔 진·선·미를 가져야 돼요.

진·선·미, 선(善)과 미(美)에는 양(羊)이 들어가 있어요. 양은 희생을 말해요. 진·선·미를 찾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진·선·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자·정·의의 개인의 인격, 부부의 인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둘이 합해야 됩니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참사랑으로 하나되어야 가정이 벌어져요. 이걸 개인이에요. 이것 둘이 하나되어야만 가정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파탄되면 이 전체가 파탄돼요. 그러니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고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성으로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을 중심삼고 자·정·의의 관점에서 진·선·미라는 가치의 모든 것이 파탄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결혼이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는 거예요. 모든 안팎이 하나되어서 가정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내적 외적,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횡적인 기준에서 자·정·의 플러스, 진·선·미 마이너스예요. 이 둘이 하나되어 가정에 정착합니다.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입니다.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해요. 창조는 유일이니까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남자면 절대적인 주체성, 여자면 절대적인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불변이니까 변하지 않으려면 둘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안팎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안팎이 하나되지 못하면 부처끼리 살더라도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틀어져 가지요? 불변의 상대적 관계예요.

이 세상을 보면 관계의 세계입니다. 개인관계 가정관계 종족관계 민족관계 국가관계 신앙관계 등 모든 관계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주체성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그 주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성과 어떻게 하나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은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성이 되면 통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창조성이 있지요? 뭘 좋은 걸 만들고 싶고, 자기에게 플러스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체가 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예.」 주체가 되었으면 뭘 해요? 상대가 필요하니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를 만나야만 둘이 하나되어 통일이 벌어져요. 통일이라는 말은 혼자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속성적 내용이 안팎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도 사랑 주체의 인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합해서 완성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절대성은 창조를 필요로 하고, 유일성은 주체를 필요로 하고, 불변성은 관계가 없어서는 하나 안 되고 변해 버려요. 영원성은 통일이 필요해요. 종적인 이 세계를 대신해서 90각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 인간 생활에서는 자.정.의, 진.선.미.예요. 이것을 중심삼고 알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사랑이

빠지면 다 몰라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자·정·의·예·요. 그 다음에 진·선·미·도 참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본연의 대상권 가치관의 완성’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나를 중심삼고 참사랑의 길을 위반하게 되면 천지가 반 편이 돼요. 부부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 전후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 님이 분성(分性) 되었던 것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핵이 영적 육적으로 된 것이 중횡을 통해 90각도에서 상봉해서 정착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자·정·의·를 중심삼고 뭘 하느냐? 진·선·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건 상대권을 말해요. 이런 과정에서 절대·유일·불변·영원이 원하고, 창조·주체·관계·통일이 원하고, 그 다음에 자·정·의·가 원하고, 진·선·미·가 원하는 모든 전부는 참사랑과 인연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세밀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끝내자구요.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흘러가는 이 역사를 가로막고 그 가운데 내 자리를 세워 상하전후좌우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비판하게 될 때, 어느 한 면에 하늘이 원하는 자리를 찾고 설 수 없는 불쌍한 타락의 혈통을 받은 온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참부모의 인연을 따라서 이런 내외의 상대적 이상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뗄 수 없는 인연의 참사랑의 줄이 엮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통일교회 무리들은 밤이나 낮이나, 청춘시대나 노년시대나 일생을 통해 이 전통적 사명과 소명적인 목적 앞에 일치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완성과 더불어 가정이상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세계에 천국을 편성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대가족 이상천국의 국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

다.

이 4월은 봄을 맞아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모든 사실을 볼 때,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백 배 천 배 이상의 소원으로 삼고 자라는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한의 고개를 넘고 넘어서 이제 봄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때가 되었사오니, 참부모님을 씨로 해서 여기에 무성한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 온 천하의 만민들이 참된 사랑의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었던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소명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생각할 때, 해와 달과 물과 공기와 땅을 지어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대적인 원칙으로 주체와 대상권이 일체 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는 데도 환경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운데 거기에 남자 여자가 주체 대상이 되어 둘이 하나됨으로써 지상의 가정이 천상의 가정이요, 지상의 국가가 천상의 국가로 연결시키려는 소원을 이루어야 할 텐데 아담 해와 타락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 박았사옵니다. 이제 참부부가 와서 제창하는 모든 길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을 중심삼고 한 것으로 역사적인 모든 전부를 참부모가 대신 탕감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절대신앙하고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사탄의 혈통을 부정하고, 사탄세계의 지옥을 부정하고 해방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전부가 이론적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는 통일의 무리들은, 그곳까지 가기 위한 개인적 환경을 타개하고 종족민족... 8단계의 탕감복귀 역사를 전부 못 가졌더라도 그 이상의 수고의 마음 가지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님과 천지부모와 하나될 수 있는 이런 소심을 갖고, 생애의 어떤 어

려움이라도 넘고 넘을 수 있는 승리적 계승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원하는 천국이 우리 목전에 다가왔사옵니다. 그 앞에 서서 부모님이 치리하여 품에 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이 모든 인류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품으시사 당신의 본연의 참천지부모의 자리를 회생하여 만국이 통일된 사랑의 주권시대의 해방시대를 맞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본부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해준 것을 감사하오며, 4월의 바쁜 노정을 남기고 세계를 위하여 책임해야 할 부모님의 소명을 완성하는 길을 향하여 놓여지는 모든 환경이 있더라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심 일체가 되어 하나의 천주를 대표한 가정적 형제 자매 혈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일체권을 협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여러분이 앞으로 도시에서는 통반장, 시골에서는 이장 면장 자리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건 문제없어요. 문제없다는 거예요. 점령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혼동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밥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육적 밥을 맛있게 먹어야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 밥을 맛있게 먹어야 큰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적 정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해방이 벌어져요. 아시겠어요? 「예!」 (경배) 안녕히 계세요. (박수) *

주체 대상의 일체권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제2장 제4절 ‘선생님과 영계’부터 훈독)

참부모가 탕감 길을 감으로써 영계 육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왔다

『완전한 마이너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하고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자동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창조 원칙이요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원칙의 완전한 운동을 하면 영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역사이래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땅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해결하면 영계에서도 해결됩니다.

그럴 때마다 탕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탕감 길을 홀로 책임지고 역사와 우주, 그리고 영계(靈界)와 육계(肉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는 길이나 후손들이 가는 길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자!

2000년 4월 3일(月),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홍진이가 영계에 가기 전날 통일식(統一式)을 끝내고 이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 ‘너는 지상을 떠나더라도 지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양자를 택해 주고 아들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마’ 하고 기도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상에서 축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넘을 수 있는 자리를 중심삼고 그것을 다시 가정이 넘은 조건으로 메워 줘야 부모님의 가정을 따라서 아들딸의 가정이 넘어갈 수 있는 거라구요. 그런 기반에서 승화식(昇華式)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아벨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으니 모르지만 영계에서는 대번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0개 국가가 완전히 하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0개 국가를 하나 만들고 가야 됐던 것을 탕감해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그렇기 때문에 홍진이가 승화한 지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과 마찬가지로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신 강림할 때 불을 받고 세계적 역사가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혼숙 양이 결혼함으로써 영계에 있는 120개 국가의 왕들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해 가지고 세계적 역사를 전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120개 왕권이 이 땅에 찾아와 지상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홍진이를 사랑하고 믿게 되면 지상에 와서 참부모를 믿고 사랑한 기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120개 국가 중 어디에서든지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한 나라만 생겨나면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개문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이 하나돼야 돼요. 남북이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그래.

환경에는 주체 대상이 있어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그 자체로서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아 결실의 내용을 지닐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아담을 짓기 전에 이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꽃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적 기준에서부터 하늘과 연결된 축복의 기반을 가지고 정착하는 거예요. 읽으라구.

『……여러분은 자체에 그런 소망을 인계 받을 수 있는 내적 요인을 마련하고 그 내적 요인을 중심삼고 외적인 환경에 다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내적 요인의 환경이 플러스돼 있어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감나무를 보게 되면 봄에 꽃이 핍니다. 감 꽃은 다른 꽃처럼 유난스럽게 울긋불긋하지 않습니다. 또 감 꽃은 잎사귀와 빛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또 열매가 맺어져서도 잎사귀에 싸여 있을 때에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 잎이 너무나 청청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빛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빛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위에… 「그 잎이 너무나 청청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독)

『……나무에 꽃도 많이 피었고 열매도 많이 맺혔지만, 그것들이 전부 떨어져 버리고 가을이 되었는데도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더라도 어떤 나무의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숙한 하나의 열매를 가졌다면, 그 한 알의 열매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열매 앞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씨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싶은 분이 될 수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우주와 연결된 내 개인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사랑권에 들어가

『……그 다음에는 활동이 뭐냐? 실체를 입는 것입니다. 실체를 이루어야 할 텐데, 실체를 입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실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말씀 심판이 있고, 실체 심판이 있고, 심정 심판이 있습니다. 3대 심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창조하면서 ‘이렇게 되어라!’ 하면 그냥 돼야 돼요.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실체가 나타난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플러스할 수 있는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 돌려줌으로써 큰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이 돌아오면 더 큰 것을 보태주기 때문에 영원을 중심삼고 점점점 커 가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먼저 원리 말씀의 심판을 하고, 다음에는 실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실체가 돼 있느냐, 나와 더불어 무슨 관계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백 퍼센

트에서 50퍼센트만 맞게 되면 50퍼센트 기준이 미숙이에요. 미숙한 자리에서 영계에 가게 되면 미숙한 자리를 지상과 같이 이룰 수 없어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탕감 받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자체에 수많은 선조들의 세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4백조 개 이상의 세포에 핏줄을 통해서 옮겨져 가지고 여러분 자체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 하나가 전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는 그 모든 세포가 내 개체를 위한 세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와 연결된 연체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나 하나 자체가 결실하는 것이 영계에 간 선조들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결실된 그 자체가 한 나무와 같은, 동위의 결실, 미래에 희망적인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상하좌우전후 관계를 중심삼고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런 입장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원형이라 하면 여기를 중심삼고 80, 혹은 50, 천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서 머무는 곳이 달라져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이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참사랑의 인연을 못 가졌거든.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적 관계, 그 다음에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관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조상들이 전부 갈라져 있어요.

이것을 부모님이 와서 탕감했기 때문에 연결된 그 사실을 실체로 믿고, 그 사실을 사실로 믿고 자기가 여기에 모든 완성의 한 자체인 것을 공인시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간다구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심정 심판, 사랑 심판이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원수를 사랑해야 지옥권을 넘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사탄의 증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랑했다는 인정을 받지 않고는 영영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의 주동이 되어 있는데, 지옥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에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존재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권을 넘어갈 수 있다구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사랑한 입장에 서면 사탄이 반대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완성권이예요. 소생·장성·완성의 완성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인연되기 때문에, 사탄이 관여할 수 없어요. 전부 넘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니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수들 다 갖고 있어요? 꼭정환! 「예.」 원수가 없나? 그건 내 몸에 찢린 가시와 마찬가 지예요. 그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가 자동적으로 물러간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완성해서 하나님 대신 사랑할 수 있는 기준에 선다면 천사장은 영원히 굴복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가시 자체가 뽑혀 나가요.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

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인 아벨이 문제예요. 우주의 모든 존재는 쌍쌍제도로 돼 있어요. 광물도 플러스 분자 마이너스 분자로 돼 있고, 식물도 수술 암술, 동물도 수놈 암놈, 남자 여자, 하늘땅, 참부모 전부 쌍쌍으로 돼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들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체는 대상을 위해 있고, 대상은 주체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위하라고 하면 작아져요. 스톱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위하겠다고 해야 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된 자리에서 서로가 영원히 위하는 거예요. 서로 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과 하나돼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핏줄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혈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독교는 역사시대에 수많은 인류와 더불어 비참한 운명을 개척하면서 참감람나무를 찾는 역사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참감람나무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오면 그분의 진액을 받고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가지에 자신을 접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시대의 모든 선조들이 탕감조건을 제시했다가 사탄에게 걸려 넘어져서 지금까지 맺혀 있는 역사적인 조건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옥토, 포근한 보금자리와 같은 터전이 아니라 자갈밭과 같은 곳에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한 참감람나무의 진액과 악한 돌감람나무의 진액이... 영계에 간 영인들 중에 열여섯 살, 16세까지는 참된 진액이 있어요. 참된 감람나무의 진액과 인간의 본성에 있는 참사랑에 기초한 진액이 하나되는 거예요. 이래서 점점 커감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남아진 모든 타락성 기준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접을 붙여 주는 거예요. 이쪽이 커야 된다고요. 자, 읽으라구.

말씀을 통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실체권을 이뤄야

『.....축복받은 가정이 앞으로 영계에 갈 수 있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다가 영계에 간다면 통일교회 선생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長成期完成級) 내에 있기 때문에 세계권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완성기에 소생·장성·완성 3단계의 7년노정이 남아 있어요. 아담이 거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복귀하기 위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사탄과 타락한 세계를 이겨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참부모님의 말씀과 참부모님의 행적을 중심삼고 거기에 완전히 하나되어야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전체가 가는 7년노정에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 하나되고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해서 실체권을 이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세계와 인류가 보게 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실체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실체도 그래야 돼요. 말씀이 플러스면 실체도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에 연결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체 대상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 대상이 있어요. 세계 만물을 창조할 때 아담 하나를 만들고 그 대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도 언제나 주체 대상을 이루는 생활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체 대상을 이루는 생활을 하면 환경은 완전한 아담 해와에 자동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체와 하나되는 거예요. 이것이 플러스 가정적 기준을 중심삼고 그 나라면 나라의 환경과 하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나라 전체가 큰 플러스가 되어 세계 환경을 소화해 나가야 돼요.

창조할 때 환경을 창조하고 주체와 대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통일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함부로 생활할 수 없다구요.

자기가 생활한 것이 환경에 맞게끔 해야 돼요. 환경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씀의 실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환경의 모든 만물은 완전한 플러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삼아 가지고 환경이 위해야 돼요. 환경이 흡수돼야 돼요. 환경이 희생해야 된다고요. 환경이 희생해서 중심적 가치 존재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흡수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서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일교인들이 그걸 못 했어요. 자기는 말씀을 중심삼고 실체가 안 되어 가지고 평하니 말씀을 중심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인 아벨 관계가 안 돼요. 이러면 반드시 번식하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주체 입장에서 환경을 만들어 나왔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지금 남북통일운동을 하는데 환경이 그럴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를 중심삼고 국민이 하나되면 환경은 소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위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에 흡수돼서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완전한 주체가 벌어지면 그 주체는 대상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적 동위권이 반드시 갖춰질 수 있는 자리에서 플러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가 없으면 자기들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과 관계없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 관계와 연결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식구가 적지만 모든 환경을 만들었어요. 통일교회를 기르는 놀음을 안 했다구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했던 거예요. 계몽운동이라든가 개척운동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환경 정비 가운데 주체가 돼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서 그 환경이 형성되면 반드시 대상적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찾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가정이 찾아지는 것이요, 국가를 찾기 위한 기준에서 노력하면 국가가 찾아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때를 알아야 돼요, 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주체가 있으면 상대는 하나되는 공식에 따라 발전하게 돼 있어

이번에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한 것이 때에 맞는 놀음이에요, 때에 맞지 않는 놀음이에요? 「때에 맞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이 주체가 되었는데 주체와 무엇으로 하나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했을 때에 말씀을 중심삼고 상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 받고 하나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되면 이 환경이 흡수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환경의 요소가 흡수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요소가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하나될 수 있는 것이 점점 커 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가 플러스되는 거예요.

국가적 환경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창조이상 가운데 자동적으로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으로, 종족을 중심삼고 민족으로 커 가는 거예요. 민족적 환경에 자기 종족이 주체가 돼 있으면 다른 종족은 상대가 되어야 돼요.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소모가 벌어지니 환경이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데는 좋아서 흡수돼야지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발전 안 한 것이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말씀하는 자체가 말씀 앞에 마이너스 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플러스적 입장으로 말씀과 하나된 자리에서 환경 여건을 이룰 수 있는 본이 되면, 그곳에서 자동적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본을 따라서 환경이 확대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이 있게 될 때 좋고 나쁜 것을 대변에 분별하기 때문에 좋게 될 때는 좋은 것에 흡수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래야 복귀 운동이 벌어져요. 이것이 공식적이라구요.

원리 말씀 따로, 자기들 생활 따로, 사랑 따로예요. 이것은 타락한 세계와 마찬가지로예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혼동회 할 때 혼동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말씀을 듣고 나서 실천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실천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은 자기 개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개인적 환경에서 완성, 가정적 환경에서 일체화, 이래서 상대권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완성돼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 환경도 마찬가지로 공식이고, 국가적 환경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서 가지고 나가지 않고는 반드시 그 말씀의 실체가 안 돼요.

그 말씀의 실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충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읽으라구.

환경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선생님이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으로 보더라도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선생님은 밝히는 걸 싫어하지만 밝히고 살아왔고, 반대 받는 것이 싫지만 반대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터전 위에서 통일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흡수하기 위해서 본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요? 광정환, 그게 사실이야? 「예.」 이것을 4년 동안, 사위기대, 4년 동안 계속해야 돼요.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해야 된다고요. 탕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되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완전한 마이너스가 되면 상대가 나에게 완전히 투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天父)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거예요.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고향에 가 살더라도 그 환경이 불신의 환경이면 안 돼요.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이 돼야 된다고요. 본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감동되는 데 있어서 비로소, 감동됐다고 해서 주체 대상이 하나되는 것이 아니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체와 대상이 커 가므로 환경이 흡수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끌려들어 오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16세의 본성의 기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 플러스를 중심삼고 마이너스가 통하는데 절연체, 방해될 수 있는 것을 마이너스가 다 제껴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일교회 책임자가 좋다. 우리 아들딸보다 좋고, 우리 남편보다도 좋고, 동네 누구보다도 좋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야 돼요. 흡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돼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동네면 동네의 사는 전체 사람들 앞에 내가 본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해야 돼요. 그렇게 1년, 2년, 3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환경이 흡수되어야 주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원리를 중심삼고 상대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희생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투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커지지 않아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커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환경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탄세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환경 요건은, 만물은 보다 사랑하는 주체 앞에 흡수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권을 희생하고 전부 희생하더라도 나아가려고 해요.

통일교회 역사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면 말씀을 중심삼고 행동할 때 자기 아들딸이 문제 아니고, 남편이 문제 아니고, 일족이 문제 아니에요. 다 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넘어선 환경에 그를 주체로 해서 배후에 가정이 달라 붙으면 전부가 부활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체 되는 통일교회의 치리를 받고,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플러스와 같이 돼 가지고 교회면 교회를 중심삼고 나라를 환경으로 해서 나라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보여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실체가 하나되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권이 성립돼요. 이것은 공식이라구요. 그것을 떠나면 어디 가서 뭘 한다 해도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공식의 규격에 맞아 가지고 하나되는 것은 영원히 그 공식이 활용될 수 있는 한, 한계가 있을 때까지 치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권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거에

요. 강제가 아니에요. 위해 주고 수습하는 거예요. 창조원리가 그렇잖아요? 위하는 입장에서 창조한 거예요. 자, 읽으라구.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공인 받은 시민권을 새로이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입적을 못 했어요. 지상에서 완성하려면 하늘나라에 입적을 해야 돼요. 나라를 중심삼고 나라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나라가 절대 필요해요. 알겠어요?

「예.」 읽어요.

『공인 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동서남북을 통해서도,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도 참소할래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까지만 하고 끝내자구요. (제2장 제3절 ‘영계 입적(入籍)’까지 혼독) (황선조 회장 기도)

예수님 시대의 120문도를 복귀해 해방해 줘야

천국 어디에 갈래요? 천국 가는 도중이에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 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아기에게 마음이 언제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커서 형제를 알고 환경을 알고 학교 갈 수 있게 되면 자기가 의탁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길러 가야 돼요. 자기 믿음의 아들딸을 길러야 돼요. 120문도 예수권을 해방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권 해방이 국가 기준이에요. 120문도, 120국가가 비로소 하나되어야 하는 거예요.

124가정을 축복할 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20개 국가라는 것을 알아야요?

4억쌍 축복할 때 여러분이 180가정씩 했어요. 180가정은 삼 육 십 팔($3 \times 6 = 18$)로 사탄수예요. 예수 시대는 120가정이었지만 선생님 시대는 180가정이예요. 거기에 160가정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160가정은 사 사 십육($4 \times 4 = 16$)으로 4의 완성수고, 180가정은 삼 육 십 팔($3 \times 6 = 18$)로 6의 완성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180가정을 축복해야 돼요. 여편네와 남편이 합하게 되면 360가정으로 이것이 가정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360도,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에 있어서 가정이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들을 중심삼고 가정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그 뜻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냐 이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체 앞에 일체가 돼야 동등한 자리에 서

앞으로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영계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 시대에 노랑 바지저고리를 입었으면 그 노랑 바지저고리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장성할 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일생을 그렇게 맞춰 나올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했더라도 그런 조건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노랑 띠를 두르든가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중심삼고 '나는 이게 주체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참부모님의 조건으로 세워 놓은 모든 컬러풀한 환경에 대상적인 입장에서 하나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재고해서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나 종족이나 완전히 한 색깔이 돼 가지고, 부모님

이 원하는 남북통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일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완성하게 되면 민족 완성권, 종족 완성권, 가정 완성권, 개인 완성권이 다 포괄돼요.

환경의 주체 앞에 상대가 되었으니까 모든 가치는 가치 기준이 높은 국가적 가치에 동등할 수 있는 자리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들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족, 7대가 하나되어야만 입적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예.」

저번에 얘기한 것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은 1960년도, 오래 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게 본업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은 갈아 입을 옷을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나라에 가서 방향이 틀려요. 종적인 방향과 횡적인 방향, 각도의 차이로 거리가 멀어요. 이것이 평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고치려면 개인·가정·종족·민족의 탕감적인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 차이를 갖다 맞추려면 자기 자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원칙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중심삼고 자체를 부정해야 하나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원리 원칙에 여러분이 상대적 입장에서 하나되어야지,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원리 원칙을 맞추면, 교회가 나를 중심삼고 생활한다 하게 되면 각도를 영원히 맞추지 못해요. 알지요? 「예.」 (경배)

그런 관점에서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위해 사는 거예요. *

제41회 참부모의 날 기념예배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2000년 4월 5일 이날은 음력 3월 1일로서 참부모님이 성혼식을 한 만 40주년을 맞는 기념의 날이옵니다. 그간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많은 6천년의 역사를 재탕감하기 위해 수난의 길인 광야노정부터 출발하여 가정을 편성하면서 탕감의 길을 걸어올 때까지 하늘의 지도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천년 역사의 탕감 길의 고개를 넘고 넘어 이제 온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주관할 수 있는 정착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의 정착과 종족민족국가의 정착을 완결지어야 할 남북통일이라는 명제를 놓고, 세계 탕감의 환경을 만드신 모든 것과 일체화하기 위한 한국에서 움직이는 모든 전체까지 아버지, 수난 노정을 홀로 참으시고 개척하여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하심도 당신의 은사요 당신의 지도하심시오매,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국가적 메시아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조국광복이라는 과제를 놓고 몸 마음을 다하여 충성의

2000년 4월 5일(水), 중앙수련원(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앞부분의 기도는 한남국제연수원에서 있는 아침 경배식 때 하신 축도임.

길, 효성의 길을 다짐할 수 있게 하시옵고, 통일가의 모든 무리들이 마음을 한 데 모아 이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를 중심삼고 맡겨진 개개인의 책임이요, 가정의 책임이요, 종족의 책임이요, 민족의 책임이요, 국가의 책임이오니, 이 책임을 결정지어야 할 숨가쁜 최후의 전선에 서 있는 모든 것도 당신이 절대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해방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하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담대하고 강하게 하늘의 승리권을 세워 아버지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자랑스럽고 천주의 조국광복을 찬양할 수 있는, 개선가를 울릴 그 날을 위하여 전진, 전진, 전진을 다짐할 수 있는 행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들과 지상의 축복가정들이 일체가 되게 하시어 평면적 지상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천주까지 이것을 평준화시켜 참부모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참가정을 중심삼고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대이동을 거쳐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전통적 종적 역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후의 수습해야 할 모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국에 널리 있는 축복가정들은 자기 본향 땅을 찾아 조국광복을 위한 희망을 갖고 남으로, 북으로, 서로, 동으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자체들의 가정과 자체들의 나라를 중심삼고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충효의 도리와 성인, 성자의 도리를 완결하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천상에 있는 모든 이 뜻을 바라고 나온 조상들이 지상 재림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이 일을 성사하고 남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참부모님이 40년노정을 광야의 모든 가정을 이끌고 이 지구성을 향하여 에덴 복귀라는 이름을 중심삼고 탕감의 고개를 넘고 넘어 따라오

는 모든 무리들을 승리의 기반에 접붙일 수 있어 가지고, 천상세계의 축복권을 해방하고, 지상세계의 축복권을 해방하여 공히 상하전후 좌우의 일체적 사랑을 중심삼고 하늘나라를 중심삼은 가정적 정착, 종족민족국가적 정착을 넘어서, 하늘땅을 통일해 아버지 앞에 봉헌해야 할 엄숙한 과제를 앞에 놓고 각자의 과거지사를 회고하면서 미급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뜻이 요구하고 말씀이 가르쳐 준 내용에 일치되는 실체로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천주 전체가 아버지의 사랑의 주권 앞에 일체를 봉헌할 수 있는 축복받은 권속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새로운 제2차 40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르딘에 2차 40년노정을 만 4년 전에 선포한 그 기준을 연결시키어 남북미를 동원하고, 남북을 동원하고, 동서를 동원하여 종교권 일치를 중심삼고 가인적 세계를 천주 일체화시켜, 하나님이 승리적 방패를 갖고 온 천주를 사랑의 주권 자리에서 사랑의 대왕으로 이 온 천주를 주도할 수 있는 책임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일심동체가 되어 이 뜻을 위하여 직행할 수 있는 통일의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이날을 맞이하게 될 때, 어린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탕감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어서 참고 참아 승리의 이 자리까지 가정을 중심삼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웁고, 부모님을 중심삼고 교회를 거느리고 국가를 찾아 세계로 갈 수 있는 해방적 길을 트게 하여 주신 모든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개척해 오신 하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금후에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가야 할 축복받은 가정들과 민족, 국가가 되게 하시어 하늘을 전체 본연의 기준으로 복귀 탕감해 드릴 수 있는 총생축헌납제를 세계 지구성을 중심삼고 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전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이 일을 영계의 천사세계와 축복가정 전체의 지상과 합하여서 완결 지어 실제 천주의 위로부터 끝까지 해방의 승리를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개선의 날을 위하여 전진, 전진, 전진을 다짐하는 통일가의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남아진 이 해의 일과 남아진 2차 40년노정을 승리의 빛나는 천국의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찬양 받을 수 있는 가정들과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에 간 통일교회 무리들과 더불어, 영계에 가서 교육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일체 승리권을 갖춰 온 영인들을 돕고 지상까지 재림 협조할 수 있는 자유분방한 자주적인 지상천상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의 소원과 모든 인류와 창조이상의 소원인 이 뜻이 해방의 운세와 더불어 온 천주에 드높일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온 천주가 길이길이 자랑스럽게 모실 수 있는 우리 조국광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 축복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오늘이 무슨 날이라구요? 「참부모의 날입니다.」 참부모의 날입니다.

구세주는 파괴된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참부모로 온다

방금 혼독한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참부모는 타락한 세계 전체를 책임지고 해방시켜야 할 주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상세계 인류의 해방은 물론이요, 천상세계에 가

있는 우리 선조들도 다 해방한 후에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잘못된 사랑의 인연을 맺은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도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이렇듯 복귀 노정의 정도를 찾으려고 수고해 왔지만 정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비로소 메시아, 구세주가 와 가지고 찾은 거라구요.

구세주라는 분은 어떤 분이나? 사랑의 질서를 파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냐 하면 참부모라는 거예요. 사탄세계의 헝클어진 모든 환경 여건을 수습해 가지고 정도로 갈 수 있는 표준적 기준에 선 그런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중심삼은 거기에 가정이 나올 거예요. 안 그래요? 메시아를 중심삼은 아들딸을 중심삼고 족속이 나올 것이고, 민족국가세계, 나중에는 천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중심삼은 직계적인 그런 혈통을 중심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인적인 아들딸이 남아 있으니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메시아의 직계 아들딸만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개인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 기준까지 하늘이 섭리해 나와 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환경적 여건에 있어서 개인적 환경을 이어 드려야 할 민족이요, 가정적 환경을 이어 드려야 할 민족이요, 국가적 환경을 이어 드려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가인 아벨 위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생기기 위해서는 가인 아벨을 낳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 아벨은 싸우는 가인 아벨이 아니라 하나된 가인 아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유대 나라와 유대교가 메시아와 하나돼 가인 아벨의 역사를 메워야

복귀 노정에는 반드시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환경을 창조했고, 그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타락했을망정 환경적인 여건은 개인을 넘어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주체 대상이 있는데, 그 환경을 대표하는 주체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둘이 가인 아벨과 같이 횡적으로 하나 된 거기에 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적 평화가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아들딸이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부모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효자 효녀 앞에 다 상속해 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전통의 마음을 받아서 태어난 아들딸이 있다면, 그 전통을 통해 언제든지 부자지 관계의 혈연적 관계가 역대 역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전통 기준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몇천 대, 몇만 대 후손이라도 그 전통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엮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적 환경이 다 깨졌습니다. 탕감 복귀 원칙에 있어서 국가적 기준이 사탄 기준이기 때문에 사탄 기준을 넘어서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로마를 소화하고 이 땅 위의 세계 인류를 흡수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인 아벨과 같은 환경

여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인이고, 이스라엘 종교가 아벨입니다. 이 둘이 하나되어야 돼요. 이 둘이 하나되었다면 교회 교회가 다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었다면 어떤 교회든지 나라와 하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이 오시는 메시아를 교회에서 모시게 된다면, 국가적 환경과 하나될 수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 그 아들딸의 기준, 가인과 아벨의 기준을 중심삼고 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어서 아담 해와의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싸워 가지고 장자가 차자를 죽였던 환경적 여건을 반드시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의 일체권 위에 예수님이 가정을 이뤘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가인 아벨 문제, 주체와 대상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하나되는 것은 뭐냐? 환경은 자연적 섭리의 창조이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인 아벨, 아담 해와가 하나 되면 그 환경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가지고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요.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된 기준에서 예수님을 중심삼고 가정을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접붙여 가지고 예수가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환경적 세계 무대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의 나라의 기준이 아벨적 기준이요, 가인적 기준이 로마입니다.

이런 입장의 환경적 여건이 로마인데, 섭리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었더라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동의 모슬렘 지역의 열두 지파와 가나안 복지의 열두 지파 중동이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불교나 유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었다면 중동을 거치고 아시아를 거쳐 이것이 방대한 지역이 하나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방대한 지역이 하나되었다면 로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인본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절대시하는 기준이니 이것은 가인권입니다. 그러한 종교권이 하나되었다면 로마를 흡수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나되느냐 이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전통을 세워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로마 자체도 예수를 중심삼은 종교권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는 천하의 왕 중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는 참부모로서 구교와 신교를 통일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대한 섭리의 역사, 세계사적 섭리의 역사를 저끄러뜨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 앞에 설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 있어서 타락한 아담 가정과 마찬가지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흘러가고, 제1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고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문화권이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 기준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은 영적이예요, 영적. 나라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수가 몸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한 영적 기준으로 영계의 통일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된 기준에서 지상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계가 하나되어야 지상세계에 오시는 재림시대에도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통일권을

기독교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통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묵시록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양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의 승리권을 중심 삼고 지상에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구교와 신교입니다. 이 구교와 신교는 싸우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예요.

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아버지입니다. 싸우던 형제도 사랑의 중심이 되는 부모가 나타나게 될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던 입장을 부정해 버리고 형제가 같이, 하나는 바른손, 하나는 왼손을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시는 주님은 영적 기준의 승리의 천국을 가지고 지상에 왔는데, 지상에는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 동시에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참부모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교와 신교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부모가 누구고, 하나님의 섭리적 기원의 출발이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미래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담이 무지에서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해요. 부모가 와 가지고 확실한 것,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의 비밀과 악마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이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구교와 신교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영계를 통일하여 지상세계를 통일해야 할 참부모

그런 입장을 중심삼고 오시는 주님은 그 판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 본래의 창조이상이 아니예요. 지상에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영적 나라가 될 것인데

영계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 나라의 세력권을 가졌던 모든 사탄들은 영적 나라를 창조해 나오는 기독교를 학살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 가운데서도 비참한 피를 흘리는 순교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끝날까지 주님이 와서 어린양 잔치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날을 바랐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오고,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지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세계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전체의 내용을 찾아 해결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만 절대 믿게 된다면 메시아의 안팎에 알고 있는 모든 섭리의 내용을 언제든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갖추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될 수 있는 분은 영계에 가 가지고 영적 세계를 통일해서 지상세계의 통일까지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메시아는 뭘 통일해야 된다고요? 영적 기독교 문화를 흡수하려면 그 위에 서야 돼요. 수많은 영계의 갈라진 것을 전부 수습해서 통일해 가지고 비로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되는 분은 종교문제, 하나님의 섭리 문제를 물으면 모르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 문화권에 가르쳐 줄 수 있었다면 뭐 7년도 안 걸려요. 구교와 신교의 책임자들을 중심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책임자가 많지 않아요. 구교로 말하게 되면 교황이 있고, 신교로 말하게 되면 총회장이 있습니다. 교파가 많더라도 총회장 셋 넷만 합병시키면 모든 기독교, 구교 신교를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미지의 사실이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출발이 잘못되었고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목적이 다

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출발이 바르게 되고, 방향이 바르게 되고, 목적이 바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구교와 신교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메시아 앞에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기서 부모님 앞에 대표적인 이런 기준을 중심삼고 연합시켜야 됩니다.

재림주와 기독교가 하나됐으면 국가 축복을 이뤘을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 있어서 구교와 신교가 하나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세계적입니다. 선생님 앞에 나타난 작은 것이라도 세계적인 내용의 뜻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작은 존재의 미래는 선생님의 뜻과 일치되면 미래의 기준까지 7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시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대사건 연대사건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6대 기독교 종단들이 만든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하고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박마리아가 부총장이고, 총장이 김활란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프란체스카, 대통령 부인이예요. 이들이 삼위기대가 되어 있었다구요. 이대(이화여자대학교)만 선생님하고 하나되었더라면 정부하고 곧장 하나되는 거예요. 정부와 하나되었더라면 아무리 미국의 군정시대가 왔더라도 군정이 교회를 치리할 수 없어요.

국가적 기준에서 교회 기반을 딱 뺐으면 아무리 선교사가 반대하더라도 이미 선교사를 중심삼고 지도하던 지도층들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소화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게

되면 공개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기독교는 통일교회의 원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주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때 대한민국 전체를 중심삼고 축복행사가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구조적 내용을 보면 가정이 그 단위입니다. 가정이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구가 3천만이었다면 3천만 민족 앞에 가정들만 딱 축복하면 나라니 무엇이니 전부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가 돼요.

가정만 하나되게 되면 개인적 가인 아벨,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의 개인 아벨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기독교하고 하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권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가지게 되면 하나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권이 하나되면 그 다음에는 민족 전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 안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그 환경에 하나된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국에 옮겨 갈 수 있는 중심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으로 지금까지 바라던 소원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국가 편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완성한 기준이라는 것은 로마시대가 아닙니다. 현재의 세계적 시대에 있어서 비로소 조국광복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에 연결시켜 가지고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 천상천국이 형성됩니다.

아무리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형태가 형성되더라도 횡적인 인류 전체는 형제이지만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횡적인 이 세계 인류는 형제입니다. 가인 아벨이지만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하좌우·전후가 돼요.

가정 형태를 보게 된다면 상(上)이 아버지라면 아들은 하(下)고, 좌(左)가 아내라면 우(右)는 남편이고, 전후는 아들딸입니다. 이 셋의 기

준이 국가적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날에는, 완전히 통일되는 날에는 상하전후좌우가... 그렇지 않아요? 상하 될 수 있는 이 기준을 중심삼고 좌우전후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세계의 갈 길이 막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이 홀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치리해야 할 사명과 국가를 다스려야 할 사명, 그 다음에는 탕감복귀의 내용을 취해 가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중심삼은 모든 전부가 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라예요, 나라. 아담은 가정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횡적 기준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모셨다면 가정적 부모가 되고, 종족적 부모가 되고, 민족적 부모가 되고, 국가적 부모가 되어 가지고 전세계에 축복 환경이 벌어지면 이걸 자동적으로 종적인 세계의 천주와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연결된 이 8단계의 부모의 심정권이 횡적인 세계로 연결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축복 완성이 벌어집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축복 완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부모를 중심한 축복 완성은 뭐냐 하면, 새로운 핏줄을 중심삼은 혈연관계가 부모님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접붙여지고, 부모님 앞에 접붙인 그 모든 가정은 가인 아벨이 하나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종족은 민족을 소화하고, 민족은 국가를 소화할 수 있는 통일권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일본이면 일본 나라가 천황을 중심삼고, 수상을 중심삼고 이 이념은 우리나라가 가야 할 이념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요, 종족에 필요한 것이요, 민족과 국가가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 하늘땅까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까지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상천국을 해방할 수 있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시간에 천황이 발표해 가지고 ‘우리 레버런 문, 참부모의 사상을 이어 가지고 가정적 기틀을 국가적으로 일시에 이루자!’ 하면 하룻저녁에 일본의 1억5천만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나라만 세워지면 세계를 빨리 통일할 수 있어

결론은 간단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통일교회가 나라가 없어요. 예수가 이루려던 유대나라, 제1 이스라엘권에서 로마를 흡수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로 확대해 가지고 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익 우익이라는 말을 알지요? 「예.」 그것이 가인 아벨 문제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유리고객하던 역사를 지내 가지고 부모를 맞게 되는 데는 아벨은 오른쪽에 가서 손을 잡고, 싸우던 가인은 왼쪽에 가서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좌익 우익은 가인 아벨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오른쪽이고 가인은 왼쪽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나라의 기준에서 세우려고 하니 나라에 있는 싸우는 형제가, 아벨 된 사람은 바른손을 붙들고 가인 된 사람은 왼손을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길을 어서 가자!’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로마면 ‘로마를 위해서 가자!’ 했으면 로마 민족을 중심삼고 중동을 소화하고 종교권을 전부 소화해 가지고 로마를 통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발전하는 내용을 로마 국민은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더라면 얼마만큼 세계가 빨리 달라졌겠어요? 벌써 복귀의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고개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사람도 좋고, 가정도 이상적이고, 내용으로 보면 모든 사상적 체제에 있어서도 세계에 없는 내용이고, 무엇으

로 보나 종교권을 능가하고, 사상계를 능가해 가지고 하나의 통일천하를 중심삼고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평화의 기지가 될 것이고, 해방의 기지가 될 것이고, 만민 전부가 지상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의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나라를 가졌다면 나라를 중심삼고... 아시겠어요? 작년이구만. 작년에 일본에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어머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왕으로부터 수상이 '이것은 역사상에 하나 밖에 없는 기념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의 축복이다. 만민, 아들딸을 대표해서 해방하기 위한 세계적인 조건을 세우는 축복을 일본에서 하니 일본과 외교관계를 가진 모든 수상과 대통령들을 초빙한다.' 하면 그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일본에서 축복을 했다 하게 될 때는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거기에 동조하고 세계에 보조 맞출 수 있게 되었다면 일본 자체가 어머니 나라의 자격을 갖추지 않겠다고 해도 세계는 받들어서 수고한 것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일본이 어렵게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두고 보라구요. 통일교회를 반대해 가지고 남아지는 무리가 없어요. 개인이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 쓰러지고, 가정이 쓰러지고, 종족이 쓰러지고, 민족이 쓰러져요. 공산당이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 망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민주세계인데, 민주세계가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유신앙가정·봉사의 공로로 아메리칸 센추리 어워드 수상

가만히 보니, 기독교의 성경을 두고 볼 때, 미지의 사실이 통일교회

의 원리 가운데 있고도 남고, 세계의 사상권을 다 이긴 것을 미국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던 것을 회개하고, 금년에 상하원이 합해 가지고 3백여 명이 모여 선생님에게 역사에 없는 상을 줬어요. 무슨 조건이나 하면, 자유와 신앙과 가정과 봉사의 4대 조건이에요.

1세기를 중심삼고... 1세기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몇천 년 역사를 대표한 것입니다. 1세기라는 게 그래요. 이 기간에 있어서 네 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고 해 가지고 국회가 주동기 되어서 62명이 상을 받는데, 한 분야에 한 명씩 상(아메리칸 센추리 어워드)을 주는 거예요. 자유 분야면 자유 분야에 하나 주는 겁니다. 한 분야에 하나씩이지 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박수)

하나 하나의 분야에서 상을 받고도 좋아하지만, 이 상만이 아니고 전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미래에 가야 할 길, 전체 통일된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통의 길을 이어 나왔기 때문에 이 4대 분야에서 공을 들인 사람을 찾자, 찾자고 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개인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더군요.

지금 그래요. 세계의 역사가들이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공산당을 파멸시킨 사람은 문총재라고 간판이 붙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식구들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크게 얘기해 보라구요. 「압니다.」 할 수 없이 대답하는구만. (웃음)

이 4대 분야에... 지금까지 레버런 문은 국가가 반대하고,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한 그런 배경을 다 아는 고위층들과 국회 상하 의원들이, 그들과 짝짝이 되어 가지고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를 없애기 위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을 주자고 언론기관과 모든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제일 미워하던 외국 사람인 레버런 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박수)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헤이그 장군과 국방장관을 지냈던 와인버거 같은 사람이 왔다구요. 그 사람은 카터 시대부터 3대에 걸쳐 국방장관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냉전시대에 공산당과 싸우는 책임을 할 때 밀려 가지고 코너에 몰려 죽느냐 사느냐 하고 허덕이는 판에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아요. 그 둘이 나와 가지고 역사 이래에 영웅이 있다면 레버런 문 이상의 영웅이 없고, 미국에 있어서의 영웅은 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상을 주게끔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상을 원한 것이 아니예요. 상을 받아서 뭘 하노? 미국 자체를 주어도 받을지 말지 한데. 미국을 받아 가지고 내적으로 부패한 것을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고생주머니 아니예요? 일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고생주머니예요?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혼독 세미나

그러나 우리 말씀을 중심삼고는... 여러분, 혼독회를 알지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잘났다는 녀석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광정환에게 이걸 얘기할 때, 자기가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광정환이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어리벙벙해 가지고 눈이 시멘트 눈이 되어 이려고 걱정이 태산 같은 표정이더라구요. ‘이 녀석, 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왜 걱정이야! 해보고 안 돼야 걱정이지! 잔소리 말고 해!’ 이랬다구요.

그러니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지요? 절대복종해야 되겠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해보니까 꿈같은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면 답변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을 중심삼고 세계 180개 국가에서 전부 모아서 7차까지 했는데, 7차까지 하고 나니 반대하는 사람이 없

어요. 반대할 내용이 있나? 영계를 아나, 섭리역사에 대한 관을 아나? 청맹파니 같아 가지고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 전체가 250명, 300명, 330명이 된다구요. 이걸 우리가 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국가 메시아가 선출해 가지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인데, 백퍼센트! 몇 퍼센트? 「백퍼센트입니다.» 백퍼센트 좋아해요? 「예.» 백퍼센트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일등 천국 가고 싶어요, 꼴등 천국 가고 싶어요? 「일등 천국입니다.» 백퍼센트 좋아하려면, 사람 같으면 백퍼센트가 찾아왔다가 ‘이놈의 자식, 50퍼센트도 못 되는 녀석 이것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짓이겨 버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알겠어요?

백퍼센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백퍼센트 되는지 못 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통일교회를 믿어 가지고 축복가정이라고 자랑 하더니 그 꼬락서니가 30퍼센트 50퍼센트 되어 가지고 뭐 천국 가겠다고? 튼튼!’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백퍼센트 다 좋아하지만 백퍼센트 뜻 앞에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한 사람도 없대구요. 손 들어 봐요! 내 눈감아 줄게. (웃음) 웃을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처음 나온 애국자로 인식하게 됐다

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간다구요. 몇 시 되었나? 「열한 시 40분입니다.» 내가 목이 딱 잠기고 눈이 붓고 그래요. 지금 전체 건강 테스트를 해서 별의별 약을 먹고 있다구요. 위장에 균들이 많대나? 독한 약을 먹었더니 건강한 몸이 뚱뚱 붓더라구요. 다리가 무겁고 이래 가지고 오는데도 비실비실하며 왔다구요. 할 수 없이 테이블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기에 ‘아, 선생님은 건강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구나!’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요게 내일이면 끝나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내린 총결론이 뭐냐?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큰 종합병원의 부원장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요. 나이 팔십이 넘은 양반이 모든 분야를 보더라도 백퍼센트 놀랄 만하게 그냥 그대로 청년, 아기와 같은 모양의 모든 체질을 가졌다고 탄복하더라구요. (박수)

이런 말을 들으면 통일교인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원수든 다 좋아한다구요. 오늘 한국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던 기독교에서도 문선생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박수) 별의 별 놀음을 해서 죽으라고 암만 해도 안 죽거든. (웃음) 자기들이 죽으라고 기도하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문총재만 남아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죽지 않으니 하나님 대신일지도 몰라. 또 일생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나라가 못 하는 일을 하고도 꺼떡거리고 자랑도 안 하고 있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나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어!’ 눈이 뒤집어지고 헛바닥이 나오게 되었다구요. (박수)

그래,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틀림없이 문총재는 한국 5천년 역사에 처음 나온 애국자다 이거예요. (박수)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 보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욕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든가 혈기를 가진 분자는 즉각적으로 주먹으로 갈길 거예요, ‘이 자식, 뭐야?’ 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나쁜 시대가 되었어요? 「좋은 시대입니다.» 기독교에는? 「나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40년간 7대 대통령인지 8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반대한 가락도 있기는 있지만 말이에요. 망하기를 바라서 반대했고, 국가 위신을 손상시켰다느니 해서 별의별 욕을 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도 이제는 문총재가 필

요해요. 아무리 해도 민족을 수습할 수 없는데, 원수 국가인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니까 원수시하지 않는 한국 민족을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임자들이 이겼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이기고 보니 기분 좋잖아요? (웃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북한의 평화자동차를 세계 시장에 판매할 계획

이제는 북한까지도 그래요, 북한까지도. 문총재의 사상이 아니면 북한도 살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10년 동안 생일 때마다 예물을 보내 왔어요. 그걸 다 모를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평화 자동차 공장을 만들지요? 「예.» 그것이 그때 약속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들이 선전했다면 우리 통일중공업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북한과 하나돼 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시작한다고 소문났으면,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하부 조직, 상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당장에 준비를 했다면 통일중공업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100배 20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끌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버리는 자는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회 환경이, 내가 드러난 환경이 점점 커 가니까 대한민국과 하나되어 가지고 나오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준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무슨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지만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아무리 교섭해도 안 돼요. 이걸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유언한 것이기 때문에, 유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모가지를 쳐 버리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말이에요, 일본 식구들, 자동차를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웃음) 아, 물어 보자구요. 오늘 참부모의 날인데, 참부모의 날 앞에 자녀들에게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이 자동차라구요. 비행기까지는 안 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살 거요, 팔 거요? 마음대로 대답해요. 좀 들어 보자구요. 「사고 팔고 합니다.»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을 먼저 할 거예요, 파는 것을 먼저 할 거예요? 사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차가 좋다고 선전하면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싫어도 사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일본 통일교회 패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박수)

그러면 한국은?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거든. ‘야, 일본에서 많이 팔렸다!’ 하면 한국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저절로예요, 억지로 따라오겠어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똑똑한 문충재가. 알겠어요? 똑똑한 참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 돈 가져서 뭘 하겠어요? 지진이 나게 되면 한꺼번에 태평양 6천 미터에 떨어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구요. 위험천만한 것보다, 죽더라도 내 재산을 팔아서 아시아와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갔다 하면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져요.

돈 보따리를 싸 놓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되어 가지고 돈 보따리에 언제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처치 곤란합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라에 돈 보따리를 차고 다니면 전부 빼앗겨 버리고 어두운 세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놀음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통일교회에 들어왔어요, 머저리가 통일교회에 들어왔어요? 똑똑하다면 요걸 원해요? 요거 셋째? 이거 원하지요? 여기에 막대기를 묶어 가지고 바늘까지 꽂아서 ‘이거!’ 하고 하나님도 찢러 버리겠다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고생을 좀 했지만 말이에요, 일본 식구들을 보게 되면 ‘잘 부러먹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딸에게 부러먹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교육을 위해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공적인 길을 가면서 피눈물나는 역사를 거치고,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 지구성이, 인류의 생사지권이 그 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내가 손에 잡고, 이것을 당기는 것이 모든 재산, 나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일본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흥합니다.」 아니에요. 망할지 몰라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뜻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답을 넘어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조국광복을 이뤄야 할 본향이니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야

여러분, 선생님을 좋아해요? 얼마만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어어어어! 이렇게 많아요? (웃음)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도 문충재를 반대하고, 수상도 반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민 전체가 문충재를 반대한다구요. 다 문충재를 제일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제일 끌래미 아니에요? 그러니 반대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문충재는 나라를 사랑하는 데도 자기들의 몇십 배, 국민을 염려하는 데도 몇십 배 정성들이고, 세계를 넘어서서 공을 세워 가지고 살려 주

려고 하는 터전을 이제는 민족이 알게끔 드러났습니다. 해가 뜨게 되니까 드러났다구요. 밤중에는 몰랐지만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아무리 바라보아도 통일교회밖에 소망과 희망의 기지가 없기 때문에 민족이나 반대한 교회도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총재가 오래 살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박수)

여러분은 선생님이 몇 살이나 살면 좋겠어요? 말해 봐요. 「영원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있으면 나무가 말라 빠져서 날아가던 새도 안 들르고 벌레 새끼도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그 이상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 적당히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가면 좋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영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다 버리고, 한국 사람 버리고 사랑을 모르는 영계를 해방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수천억의 영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요즘 1억2천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녀석이나 돼요? 세계 인류 60억 중에 몇억이나 돼요? 저나라에 가게 되면 일시에 전부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된 기준을 중심삼고 국가를 넘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불교면 불교권을 완전히 해방하고, 마호메트면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를 해방하고, 일본 민족이 있으면 일본 민족까지 전부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접붙여 가지고 새 한국 사람이 됩니다, 새 한국 사람.

요즘에 일본 축복가정들이 ‘우리는 새 한국 사람이다!’ 했다는데, 야, 그거 누가 발견했는지 참... 그래서 한국은 고향 땅이요, 하늘땅을 대표한 조국이 되는 거예요. 조국광복이 될 수 있는 본향이기 때문에 일본 민족도 그 조국을 따라가야 되고, 본향 땅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알지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모양이구만.

알겠어요? 「예.」 확실히. 「예!」 전부 해 봐요. 확— 실히! 「확실히!」
 딱 묶은 페다 이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기독교는 통일교회가 아니면 갈 길이 없어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참부모의 날입니다.」 동산에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니까 구경하러 가야겠으니, 이제 결론 짓자구요.

이제 세계에서 레버린 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젓 먹는 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이상의 사람은 문총재를 알아요. 그거 선전 잘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전부 알고 보니까 사막 천지에 말이에요, 미리 큰 별판 위에 강을
 잘 닦아 놔어요. 지구성에 대이변이 벌어져 가지고 큰 산맥이 가로놓
 여 있던 것이 거꾸로 되어서 구름을 모이게 해 가지고 비가 내리면 평
 원을 흘러가는데, 이미 흘러갈 수 있는 고랑을 다 쳐 놔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강줄기, 물줄기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주인이 마음대로 땅에 물도 공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이상향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와카리마시타? 「하이!」 눈을 뜨고 알겠어요, 눈을
 감고 알겠어요?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알겠지요?

이제 남북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권이 갈 데가 없어서 내 꿈무늬에 다 달렸다고요.
 남북미 기독교가 반대해 가지고 문총재를 쫓아내던 그 모든 터전을 찾
 아가 가지고 구교와 신교를 하나 만드는 놀음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조건적인 입장에서 하고도 남았어요. 거기(남미)에 학교를 짓고 모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27년 동안에 한 일을 4년 동안에 평준
 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구교도 신교도 레버런 문이 가르쳐 주는 원리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할 길이 없다고 보기에 그런 분위기가 부풀어 올랐어요.

교회와 사회에서 혼독회를 같이 해야

아까 혼독회에 대한 말을 했는데, 교회 내에서 혼독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사회를 중심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혼독회를 해야 됩니다. 종교와 정치는 원수예요, 원수. 그렇지요? 국가가 종교인들을 학살하고 다 그랬지요? 「예.」 사탄 국가를 확대한 국가 군들이 종교인들 모가지를 잘라 버렸어요. 원수라구요.

이 원수의 무리들을 모아 가지고 교회에서 하던 혼독회와 마찬가지로 혼독회를 해야 합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상 분야를 맡고 있는 미지의 환경에서 허덕이는 그들 앞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손들었어요. 철학자, 무슨 종교가, 무슨 경제가, 무슨 정치가가 다 손들었어요.

이제는 미국의 상·하원이 통일교회 원리 내용을 제2의 건국사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이라고 해서 미국 제일주의로 했던 것을 이제는 ‘원 월드 언더 갓(One World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라는 말을 중심삼고 우리가 재차 세계 주도 국가의 권한을 당당히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국사상으로 상·하원을 통해 가지고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멘!」 (박수)

일본 나라는 통일교회 교인들을 납치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제 미국 국무부가 손덜 거예요. 유엔과 합해 가지고 찾아가기 전에 자체 내에서 충고하는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통일교회를 안 따라갈 수 없게 돼 있어

유엔과 미국이 들고 나오는데 일본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좋은 데 기분을 잘 맞추는 것이 일본 사람 아니예요? ‘하이, 하이(はい;예)!’ 하면서 말이에요. (웃음) 안 그래요?

대낮에 별의별 짓을 다 하던 아내가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남편을 대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해서... 안팎이 다른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이라고요.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요. 선생님은 일본을 잘 알고 있다구요.

일본 여자들 가운데 선생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손 들어 봐요! (웃음) 남편들이 운다구, 이 녀석들이! (웃음)

그렇지만 선생님의 가는 길은 틀림없습니다. 사연들이 많았다구요. 일본 여자들한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선생님한테 무례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구, 오늘 부모의 날이라든가 하나님의 날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축하하는 것은 제쳐놓고 이게 뭐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도조(どうぞ; 상대방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부탁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완곡하고 공손한 말씨) 도조 도조...!’ 할 거예요. ‘도조’ 하면 뭐예요? 뱀장어 사촌 같은 것이지요? 「도조우(どじょう;미꾸라지)」 도조우? (웃음) ‘도조우’ 하면 도상(途上)을 말합니다. 그것도 도조우라고 하지요? 도조우가 많다고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번에 선생님이 여기에 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축

복한 날이 며칠날인가? 축복이 2월 13일이었지? 2월 13일이었는데 축복식 끝나고 며칠서부터 우리가 21개 도시에서 대회를 시작했나?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21개소에서 대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말이에요, 8일 동안에 계약을 했는데 3월 12일에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그 메인 스타디움을 꼭 채우고 남을 수 있는 힘이, 통일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뭐 문총재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야단이라구요. 한마디하면 자기들의 가망성을 넘어설 수 있는 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쭉새통에, 이런 전쟁하는 통에 우리들은 ‘남북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라!’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와라 하면 오나 안 오나 보자, 이 녀석들!’ 이래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구요.

그 교육하는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당 여당이 전부 통일교회 때문에 망하겠다고 생각하고 꼭대기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차렷!’ 하면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싹터 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축복가정 중에서도 아벨 가정은 한일(케이 제이;KJ) 가정

일본 식구들 이어폰 가지고 다 듣나? 「예.」 듣고 있어? 내가 일본 말 할 필요 없겠구만.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한국말을 해야지! 아멘 해요, 일본 사람은. 「아멘.」 아멘 해봐요, 일본 사람들. 「아멘.」 한국어를 모르고 아멘 하면 거짓말쟁이예요. (웃음) 모르면 안 돼요.

한국말을 알면 어디든지 외국에 가더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49억의 음을 낼 수 있어요. 우주에 있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말 중에 고차적인 말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무엇보다

다 문화의 출발은 말에서부터입니다. 알겠어요? 한국말 발음하기가 힘들지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다구요.

그러니 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나요, 반대받으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나요? 「……」 낮인데 배가 고픈 모양 이구만. 대답이 왜 그래? (웃음)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합니다.» 왜,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붙들고 이 민족을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광복입니다. 전통적 역사의 재료에 온 만 인류를 녹여낼 수 있고, 천상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비참한 한국을 사랑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선생님이 났다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탐감해 나왔습니다. 역사시대에 9백32번이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도 절개와 나라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단일민족이에요. 더욱이나 여자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일본 제정시대에 일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틀림없이 비법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어서 했지, 자진해서 여자가 시집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예의지국의 대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본 여자들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일본은 명치시대 이후부터 이름이 있어요. 친족간에도, 사촌하고도 결혼하지요? 그건 상놈이에요. (웃음) 한국은 문씨와 문씨, 김씨와 김씨끼리 결혼을 안 해요. 혈통을 존중시키기 때문이에요. 핏줄을 존중시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접붙일 수 있는 아낙네들을 축복하는데 꿈무늬를 빼 보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축복받은 가정을 케이 제이(KJ) 가정이

라고 그러더구만. 그 가정하고 일본 사람끼리 결혼한 가정하고 어느 가정이 앞서겠어요? 아벨 가정이 어떤 거예요? 케이 제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 안 해요? 타락한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이면 대변에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아나, 모르나?’ 하면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아나, 모르나? 「압니다.」 (웃음) 언제나 욕을 먹고야 행동한다고요. 탕감하고야, 대답을 했으면 탕감조건이 안 남을 텐데 대답 안 했다가 대답하니 탕감조건이 남는 거예요.

반지로서 여자들을 묶었으니 남북통일운동에 동원해야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21일간 이 놀음을 했습니다. 그때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나이가 팔십 이하의 사람은 내 동생이다!’ 한 것입니다. (박수)

한국 나라의 전통은 말이요, 한 달만 늦어도 형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은 안 그런가? 일본도 그런 것이 있지요? 한국은 하루만 앞서도 형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80세이니 모인 청중 가운데 80세 이상 손 들고 하니까 한 만 명 가까이 모인 데서 스무 사람도 안 돼요. 스무 사람도 안 되는 축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 나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일흔아홉 살 되는 사람도 내 동생뻘이에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대답할 때 ‘동생뻘입니다.’ 하지 ‘내가 형님이다.’ 할 수 있어요? 뺨을 들이 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풍속이 참 좋긴 좋아요.

그리고 ‘여자는 전부 내 누이동생이다, 이 쌍년들아!’ 그랬어요. 누이동생에게 쌍년이라고 했다고 뭐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저놈의 목사라는 사람이 단에 서서 누이동생을 쌍년이라고 해?’ 할지 모르지만, 누이동생에게 쌍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있나요, 없

나요? 일본말로. 「없습니다.」 일본도 그거 통하지요? 뭐 ‘잘났건 못났건, 박사건 무슨 여자건 모든 여자라는 사람은 내 누이동생이야! 그래, 안 그래? 박수해.’ 해 가지고 박수해도 안 되겠으니 ‘손들어!’ 하니까 다 들더라구요. (박수)

다 봤지요? 「예.」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사람 손 들라구요. 「다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 교육을 하면 다 손 든다구요. 다 봤어요. 결의할 수 있는 박수를 했거나 손을 들었거나 둘 중에 안 한 사람은 없다구요. 다 했지요? 「예.」

다 했으니까 다 해먹어야 돼요. (웃음) 알겠어요? 다 했으니까 다 뭐라구요? 「해먹어야 됩니다.」 해먹겠다는 것이 뭐예요? 영양소로 흡수해 가지고 교육해서 새로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먹는다고 해서 나쁜 말이 아니라구요. 살려 주어야 돼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이럴 때 한번 박수를 해야 내가 기운이 나지. (박수)

그러니 어느 누구나 동네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할 때는 말이예요, 신문에 나고 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여자들은 말이예요, 반지를 1만5천 개나 나누어 주었어요. 그 1만5천 명은 진짜 내 동생입니다. 알겠어요? 타락한 해외에게 있어서는 말이예요, 오빠를 잃어버린 것이고,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고,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고, 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부모는 그런 분이라구요. 그러니 개인 완성, 동생도 완성, 오빠도 완성, 아버지 어머니 완성, 부부 완성, 할아버지 할머니 완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여자가 북한 여자에게 결속의 표시로 반지를 주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부 선생님에게 걸려들었나요, 안 걸려들었나

요?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약속 하나 하면 좋겠나요, 안 하면 좋겠나요? 일본 사람들만 말이에요. 좋은 약속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좋고 좋은 일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책임도 못 했는데, 앞으로 한국 사람 아줌마들한테 반지 하나씩은—반지가 얼마 안 돼요.—사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손들어 봐요.

이게 뭐야? 왜 이렇가?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형제가 생겨요, 형제가. 일본 나라가 어머니 나라를 하려면 형제를 묶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인 아벨 형제가 하나되어야만 어머니 아버지의 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반지를 나눠 주었지요? 나눠 주었어요, 안 나눠 주었어요? 어머니가 가서 반지를 나눠 주었지요? 「예.」 미국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단일민족 민족끼리 할 것이 아니라 세 나라가 한 나라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정이 되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세계의 누이동생, 누님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표시로서, 결속의 약속으로서 반지를 교환해야 할 때가 왔느니라! 「아멘.」 (박수)

자,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 그 반지가 말이에요, 한국만 하면 4천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예요? 3배가 됩니다. 미국은 2억4천만이니 몇 배예요? 몇 배의 반지가 들어오겠어요?

이 반지를 전부 북한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두 개씩, 세 개씩 선물하게 되면 받겠다고 그러겠나요, 안 받겠다고 그러겠나요? 「받겠다고 합니다.」 그 반지를 미국 아줌마로부터 일본 아줌마, 한국 아줌마, 한국 교포 아줌마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겠나요, 만나겠나요? 반지를 나눠 준 사람들을 외국에서 만나게 되면 2천만 동포 여자들은 전부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될 수 있는 형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혼자 따라지같이 저 구석에 사는 그 세계에 살고 싶겠어요, 자유분방하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세계,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살고 싶겠어요? 어때요? 북한에 있고 싶겠어요, 외국에 가 가지고 언니 동생이 사는 데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보따리 싸 가지고 출동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 가지고, 봄철이 되면 처녀들이 바람끼가 생겨 봄 동산을 헤매듯이 헤매서라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문충재의 전략적인 방법이 좋을꼬, 나쁠꼬? 「좋습니다.» (박수)

아, 좋아요, 좋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박수 소리를 너무 들어서 미치겠다구요. (웃음) 보라구요. 가락지를 해주는 형님 동생들이 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한 대씩 기부하고, 돈 있는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만 있으면 자동차 두 대도 생길 수 있는 놀음이 벌어질 거라구요. 정이 흐르는 곳에는 물건이 따라가고, 그 가족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런 환경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외국에 끌어내 가지고 그 나라를 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 성싶다는 거예요. 없지 않을 성싶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미완전한 거예요? 「미완전한 것입니다.» 미완전한 거예요. 지금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구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쌍 것들아! 「되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게 나옴) 내가 싫다는데도 그렇게 박수해요? 박수하려면 크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박수)

일본은 지금까지 모자협조 시대

선생님의 머리는 복합적인 머리가 되어서 이쪽은 빈 칸 같았는데 차 있고, 이쪽에는 또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가니 빈 칸이 있고 그

래요. 그러니까 복잡해 가지고 생각도 얼마나 복잡하면 하나님의 비밀 보따리를 갖다 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오, 이 쌍것?’ 이래 가지고 ‘아버지가 뭐요? 아들한테 그 보따리를 풀어 봐! 내가 말한 것이 맞지?’ 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 보아야 되겠나요, 안 풀어 보아야 되겠나요?

풀어 볼 때, 내가 한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천하의 하나님도, 승리한 대왕마마도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올렸지만 하나님한테 절 받을 수 있는 놀음도 했다 이거예요. (박수)

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도 세계가, 워싱턴 북판에 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압니다. 저 양반이 말하는 것은 무심코 하는 말인데 틀림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 회전의자에 앉아 가지고 담배를 피우며 천하를 호령하던 패들도 문총재가 오면 엄숙해 가지고 ‘와, 문총재가 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갔노? 갔노?’ 이러면서 귀를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연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초만원이라고요.

일본 나라는 작년에 축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한국 뒤에 내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해와가 책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일본을 떠맡아 가지고 40일 이내에 작년 2월 7일에 3억6천만쌍 합동결혼식 한 것을 알지요? 일본에서 했으면 얼마나 복이예요? 이제 다음 번 축복할 때는 대통령이 세계에 나서 가지고 이 일을 선동해서 초청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따라와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렇게 될 거라고요. 또 대만은 이미 2월 7일날 결혼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구요.

그러나 일본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에서 했다고요. 해와가 아담을 복귀해야지요?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지요? 천사

장과 합해 가지고. 알겠어요? 천사장 국가 미국 놈! 해와 국가 일본 년! (웃음) 왜 웃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둘이 합해 가지고 한국의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를 도와주어야 된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어야 할 텐데, 여기서 돈 벌어 가겠다고 날 뛰는 패들은 망한다구요. 내가 가만히 안 들 거예요. 협박이 아니예요. 사실이 그래요. 복귀원리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와하고 천사장이 합해서 아담에게 사례를 해야 합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아담이요, 오시는 메시아가 참부모이기 때문에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그분 앞에 그 모든 나라와 전체를 가지고 찾아와서 봉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봉헌을 해도 뭐 하고 침을 뱉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동거리를 이리면서 아니라고 쫓아내니까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일본 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해와 국가는 일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 아들딸의 입장이니 아버지가 가는 길을 전부 모녀가 협조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딸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자협조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면에서는 모녀 협조가 되어 있는 동시에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부자협조 시대에 들어 왔습니다. 이미 아들이 가정을 가졌고 나라를 가질 수 있고, 아버지가 가정을 가졌고 나라를 가질 때는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찾아 세울 수 있고, 아들의 힘을 가지고 찾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일본의 현재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일본 사람은 성본(말씀)을 참부모 이상 사랑하고 일본을 사랑하라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해와입니다. 이 성본(聖本)을 중심삼고 제주도에 777명이 왔어요. 살겠다고 허덕여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자고

해서 내가 만나 주었다구요. 바쁘는데, 대회를 하는 때에 시간도 없는데 몇 시간도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만나 준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방황하고 쫓겨나는 해외를 수습해야 돼요.

그래, 성분을 선생님 이상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탕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본 나라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상 일본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집가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남편 찾아가기 위한 거라구요.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되어 가지고는 뭐냐 하면, 남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 전의 소유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의 혈통의 인연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수 있는 축복한 그 시간 이후에 만물의 소유권이 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도적질한 물건들입니다. 도적질한 물건을 뭘 하겠어요? 고물장사, 고물 뭐라고 그러냐? 「장물입니다.」 장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인이 찾아오면 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생축 뭐라고? 「헌납제입니다.」 헌납해야 됩니다. 교회의 소유로 해야 됩니다. 문총재에게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라를 찾기 위한 전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 자체가 백성이 되고, 교회 책임자가 지도자,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성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20일까지 연장돼요, 20일까지. 유정옥! 「예.」 5일로 기념 했기 때문에 10일 한계선에서 20일까지, 19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일본의 책임은 말씀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나라가 찾아지지 않은 이때에 있어서 남북통일에 일본 식구가 앞장 서서 주력을 하지 않고는 살길이 없다 이거예요. 남북을 갈라놓은 것이 누구예요? 해외지요? 「예.」 일본 민족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통일교회의 한국과 일본 사람, 세계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조국이 생겨 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조국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던 모든 성현 현철, 도인들이 비로소 고향 땅에 자리잡고 천년 만년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대우주 가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느니라! 아시겠어요? 「예,」 (박수)

남북통일을 이뤄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오늘 이와 같은 참부모의 날에 모여 가지고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지난날을 축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아진 최후의 장벽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온 세계의 통일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참부모의 나라, 참가정의 나라, 참가정의 세계, 참가정의 하늘땅을 일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하나님이 이상으로 했던 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천국이 아닙니다. 수천만년 역사한 천국이 비로소 소생하는 것이요, 이 소생한 천국이 그냥 그대로 천국이 비어 있던 것, 아담 해와가 실패해서 구멍이 뚫어졌던 것을 한꺼번에 갖다가 다 맞춤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가지고 만국의 주인으로 통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가 영원불변 살 수 있는 천국 땅이요 조국이었더라! 아멘! 「아멘!」 (박수)

자,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第一) 수고했고, 참부모님이 제이(第二) 수고했으니 여러분은 제삼(第三) 수고할 수 있는 왕자 왕녀가 되어야 할 것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지금 하고 있

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알겠나, 한국 놈들? 「예.」

한국 사람이 언니예요, 언니. 형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형님이 동생을 사랑해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이 가르쳐 주고 다 이러니까, 일본이 쫓겨날 것인데 선생님이 방패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것이 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미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합해서 천사장 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북통일을 하게 되면 미국 국무부가 나한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걸려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머리에요, 비상한 머리에요? 「비상한 머리입니다.」 아, 늙은 사람의 머리가 다 구새통(속이 썩어서 구멍이 난 통나무)이 되고, 보로(ぼろ [襤褸] 남루. 오래 써서 소용이 없어진 천. 누더기)가 되었을 텐데 뭐가 비상한 머리에요? 정상적이 아닌 것을 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구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자, 남북통일을 결정하는 대이동이 벌어져요. 이제 입주식입니다. 자르딘에 가서 선생님에게 축복받은 것은 입적 수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복받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세계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동해 오게 되어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 한 4천만의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전쟁이 나겠나요, 안 나겠나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 땅을 다 사 버립니다. 원리가 아니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해야 됩니다.」 일본 녀석들!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통일은 우리 조국광복이라는 것입니다. 고향도 찾고 말이에요. 고향은 지구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하늘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국광복을 위한 의용군이요 용사로서 출동명령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행진을 더디 하겠어요, 바빠 하겠어요? 「바빠 하겠습니다.」 그런 용사가 되겠다는 사람

은 쌍수를 들어 맹세할지어다! 와! 박수해 보라구요, 박수. (박수)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이만큼 하자구요. 나도 배가 고프다구요. 내가 입맛을 잃었어요, 약기운 때문에. 눈도 붓고,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서 하면 선생님이 불쌍하니까 이만하자구요. 당신들은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고 싶고 나는 피곤하니까 그만 두고 싶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원리원칙을 따라가는 사람이니 여러분을 위해서 물리갈지어다! 아멘! (박수) 「부모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까. (황선조 회장)」

뭐 할 것은 다 하네. 다 주워먹겠다고 하는구만. (웃음) 도적놈이 저축한 것을 축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자, 우리 기도 한번 해요.

<기 도> 천지의 회동을 이루어 놓은 당신의 봄 동산이 꽃이 만발한 5월의 봄과 같이 되시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벌과 나비가 나는 새로운 우주적인 동화권(同和圈)을 그리워하신 아버지의 창조이상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으로서 만물을 사랑하지 못한 미안함과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미안한 마음 뿐이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효자의 도리가 무엇이며, 충신의 도리가 무엇이며, 성인의 도리가 무엇이며, 성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사옵니다. 단 하나 이와 같은 도리의 길을 전부 엮어 가지고 하나님께는 만민 해방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해방이요, 참부모를 중심삼고는 천지부모의 승리권을 찬양할 수 있는 봄 동산, 화려한 그 동산 가운데 꽃 피고 나비와 벌이 나는 데서 자유롭게 해방된 모습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만민을 바라보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아옵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참부모도 어화둥둥 내 사랑을 노래하고 춤출 수 있

는 자연의 동산을 그리워해야 할 인간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역사 시대에 하늘을 수고시키고, 모든 인류의 비참했던 참상, 피를 흘려 가지고 이 땅 위에 핏자국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는 원한의 땅을 해원 성사해 해방의 땅으로, 피눈물이 맺혔던 인류를 해방하여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역사적 소망의 터전이 내 한 몸에 저끄러져 있고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통일가의 식구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세계 구도의 길을 개척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자신만만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하늘이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늘이 더 투입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복종의 심정의 뿌리를 움직여 낼 수 있는 그런 용사들, 용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있어서 당신을 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왕자 왕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 만 40주년을 맞는 참부모의 날을 기하여 부모로서 원하오니, 만민 공히, 온 우주 전체가 해방한 자리에서 하늘 왕을 모시고, 하늘의 황족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가정을 중심삼고 영원 무궁한 당신의 창조이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분부하고 결의한 모든 전부를 받아, 승리의 한 날을 재촉할 수 있는 걸음을 가면서 낙심하는 무리가 없게끔 지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기하여 온 세계에 널려서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영계 자체도 마음을 모으고, 부모님을 모시고 축하드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영계도 그렇고 지상도 그런 줄 아오니 그 모든 자들 위에 같은 은사를 나누시어서 축복의 은사와 그 후손 앞에 만민 해방적 은사를 풍성히 주어 가지고 자주적인 자각으로 실천하여,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 성자의 도리의 책임을 하겠다고 몸부림쳐 생애를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바치고 갈 의욕과 결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

리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온 세계의 만민까지도 그들이 축복을 받게끔 인도하시어서 해원성사, 만국의 만민들이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참부모도 원하고 모든 통일교회 전체,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가정 전체, 아버지 전체가 바라는 소원이오니 이 일을 촉진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그리워하고 노력하면서 전진에 전진을 재차 각오할 수 있는 무리들이 되어, 승리의 패권을 하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만 40주년을 맞는 참부모의 날을 중심삼아 가지고 축원하오니 소원대로 이루어지소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박수)

<말 씬> 끝날 때는 모두 간절한 마음이 밥을 향해 간다구요. (웃음) 그것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세워 주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선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오늘이 부모님의 40주년 결혼 기념일이예요. 이것을 영원히, 40이 1차, 2차, 3차, 100차, 1000차 계속할 수 있기를 이날 하늘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 2차 40년, 100차 40년,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과 더불어 일체가 될 때는 사탄세계는 그 40년 탕감 승리권 내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위를 역사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부모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40년 기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제2차 40년에 충분히 채워 가지고 후손들에게 또 새로운 40년을 빛나게 맞이할 수 있게끔 역사를 통해 남길지어다! 아멘! 「아멘!」 약속하지요? 「예.」 그렇게 전수시켜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확장환? 「예.」 황선조! 「예.」 그 뜻을 알아? 「예.」

1차, 2차, 100차, 1000차... 이렇게 하면 몇천 년이 가겠어요? 「영

원히!」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하나 된 사람, 말씀의 실체가 된 사람은 천국에 직행합니다. 약속한다구요.
(만세 사창) *

하늘 주권을 성립해야 할 때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2000년 4월 6일 오후 6시 10분 이스트 가든에 바로 도착하였사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60일 기간 동안 여러 행사를 거치고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을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남기신 경륜의 뜻을 품고 한국의 모든 식구들이 일치 단결해 움직이는 길과 환경 여건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역사적 전환시대에 있어서 한국이 하여야 할 남북통일 문제를 중심삼고 심각히 상하 전체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하늘의 섭리적 대전환시대에 요구하는 소명적 사명을 한국 백성이 완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기초적인 모든 내용들을 제시한 것이 아버지께 힘이 되시고, 그 터전이 모든 하늘의 원하시는 소원의 근본이 되시어서 확대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남북과 아시아, 전세계에 미칠 수 있는 승리적 결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 미국에 도착한 이제부터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주도하여 주

2000년 4월 6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한국에서 이스트 가든에 도착하신 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시읍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같이 보호하신 은사를 감사하오며, 새로이 미국의 발전을 위하여 움직이는 미국 식구들이 소망하시는 바 이상의 축복의 은사를,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더불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세계 국가 앞에 대 전환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삼은 새로운 전통의 역사를 이 나라를 위해서 심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이 시기적으로 이 봄절기를 맞이하여, 모든 만물이 화창하게 무성하고 승화하는 이런 시기에 피어나는 모든 꽃들과 날아드는 나비와 벌들이 화동하는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영계 육계가 일체가 되어 새로운 우주적인 봄절기를 맞아 참부모의 이상권을 중심삼은 하늘과 땅이 화답 일체가 되게 하시어서 승리의 전권을 전개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남겨진 날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과 해원성사의 날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전체를 맡겼사오니 이제 경륜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열두 곳을 중심삼고 미국에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일체를 아버지께서 주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언제나 보호하시는 그 중심 마음과 일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남기려는 하늘의 선물과 축복을 흠뻑 이 백성이 역사를 넘어서 간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의 기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저녁 식탁을 같이 흠향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 씬> 미스터 주, 밥 다 먹었어? 미스터 주! 「예.」 보고 좀 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양창식의 보고는 세밀히 내가 다 들었다구. 혼독회 이후의 영향과 앞으로에 있어서 상부층의 움직이는 그 방향과,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라구.

내일부터 세미나 하잖아, 9일까지? 「예.」 「아메리칸 리더십 컨퍼런스(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미국지도자대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사업적 보고가 되고요.」 「아저씨, 긴 얘기라도 짧게 해주세요. (현진님)」 (웃으심) 너무 짧아서 안 되지. 길어도 다 들어야지.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 보고)

미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여

워싱턴이 움직이면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요,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4권 분립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언론기관인데, 언론기관과 그 다음에 학교 교육문제를 중심삼아 가지고 워싱턴 자체가 따라갈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면 세계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통일교회는 신앙적인 관에 있어서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정치세계 혹은 학자세계, 경제세계의 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이 외적 면을 포용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이 혼독대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정상들이 경쟁해 가지고 참석한다는 사실은 미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스피리트 파운데이션(spirit foundation; 영적 기반)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상의 기준이 출발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미국에 와서 30년이 됐다고요, 30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30세에 출발해서 3년 동안을 중심삼고 나라를 찾으려고 하던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제2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재림시대를 맞이해서 30년을 중심삼고 2003년까지의 이 4년 기간에 모든 역사적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 하나의 주권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 차원

으로 넘어갈 때가 왔다구요. 예수가 실패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세계 주권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 차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나라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왔다 이 거예요.

이 시대는 가인 아벨의 싸움을 중지시키기 위한 여성시대

그러면 앞으로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내가 한국에 간 것은 뭐냐 하면, 동서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동서, 남북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쟁 상대가 되어 있다구요.

세계를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 남북의 빈부의 차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결렬된 이것에 대해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고향과 조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남북한을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 기독교 문화권으로 포괄된 모든 세계가 이제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환영할 수 있는 때가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이뤄 하나만 되면 세계는 일시에 하나의 중심 국가를 세워 가지고 세계 무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국가적 기준을 찾으려 했던 것을 실패했던 것을 세계적 차원에서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주권을 세워 넘어갈 수 있는, 대전환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가 가지고 생일축하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서 남북통일의 환경적 모티베이션(motivation; 동기)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국 전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놀

라운 거예요.

그래,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해와를 중심삼고 벌어진 가인 아벨 문제, 그 다음에 천사장이 개입해 가지고 아담을 쫓아내 버린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탕감하기 위해서 여자시대를 맞아 세계적 최대의 여자들이 첨단에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세계 시대가 왔는데 무얼 하기 위한 세계 시대냐? 가인 아벨이 싸우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 유신론 무신론이 가인 아벨 형제예요. 형제가 싸우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여성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요.

남자들은 천사장이예요, 천사장. 여자들이 지금까지 사랑의,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왔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남자들이예요. 천사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세계적인 가인 아벨인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로서, 아담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인 아벨 형제들이 지금 부패하고 미국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완전히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될 때 제1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여자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라가 가인이라면 교회가 아벨인데, 이 외적인 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서 로마의 풍습을 따라 부패한 자녀들을 하나 만들어 안팎으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미국에 새로운 청교도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그런데 자기 남편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맞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

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적 판도를 중심삼고 제2이스라엘권 기독교가 이 일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여자들은 전부 다 여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때 오시는 주님을 일시에 맞이했다라면, 세계의 대표 여성으로서 공산주의 세계와 민주주의 세계를 하나 만듦과 동시에 부패한 청년남녀를 하나 만들고 남편들을 회개시켜 접붙여 가지고 참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세계 무대가 벌어졌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시대에 하지 못한 것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루어서 지상천상천국을 해방해야 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라를.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재림주가 올 때 여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 미국의 여자들은 여왕들이예요. 2차대전 이후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때는 여자들이 눈물의 깃발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40년 동안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다 썩었어요. 프리 섹스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다 썩었어요. 프리 섹스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호모, 레즈비언까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여자들이.

이걸 선생님 시대에 반대로 뒤집어 박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요.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고요. 지금 실제적인 기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180도 혁명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전부 빼앗겨 버려요. 전부 빼앗겨 버린다고요. 기독교 문화권이 공산당에게 빼앗겨 버려요. 보라고요. 여기 기독교인 천주교와 신교가 공산당하고 하나돼서 통일교회 레버런 문을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반대로 현재 중국과 소련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대신

백퍼센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 썩은 여자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2세를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2세들을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내가 미국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타락한 사탄세계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신앙 재무장 운동을 하도록 한다구요. 그런데 지금 들어갔다가는 1년도 안 돼서 후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구요. 그러니 그들에게 반드시 통일교회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전국적인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통일교회의 세계적 무대를 대표한 미국의 여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2차대전 직후에 전세계적으로 전권을 중심삼고 구가하던 최고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느냐 비교할 때, 그때는 신앙 기준의 전통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현재는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주변의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없는 실상을 보게 될 때에 새로운 종교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깃발을 들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품고 삼을 수 있는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자 대표로 선택된 여러분이 어머니의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 위에 새로운 청교도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개인주의를 180도 부정해야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박아야 돼요.

보라구요. 현재 미국은 개인주의 교육이고, 아시아는 전체주의 교육이
라구요. 달라요. 전체주의 교육을 상속하지 않고는 개인주의는 없어지
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주의 힘을 가진 개인적인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주어
서 정신적 기반인 동양까지 전부 지배했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80도로 전환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부정해야 돼
요, 완전히.

그렇게 하기가 미국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쉽고 소련도 쉬워
요. 사상적 공백기에 이것으로 완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히.

재미있는 것은 북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도 ‘문선생님,
북한에 와 계시지, 남한은 별의별 오만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왜 거기
서 그러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될
텐데, 북한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
러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어때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내노라하는 사람들
을 보면 전부 달라요. 순금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의 금이라든가 바윗돌
의 금이라든가 감탕 속의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잡된 것을 다 태워 버려야 돼요. 거기
에서 안 타고 남는 것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
넣으면 안 탈 것이 없어요. 밀창까지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순금이
없잖아요? 순금을 갖고 있어요? 순금이 없으면 다 타 버린다는 거예
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도 현재 상태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아이구, 이래도 되겠구나.’ 하겠지만 안 돼요. *순
금은 영원히 순금입니다. 그런데 미국 여자들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변화무쌍한 여자들이라고요. 그렇지요? 직접 미국 여자들의 대답을 들

어 보고 싶다고요. 그렇지요? 제일 변덕스러운 것이 미국 여자들입니다. (웃음) 정신차리라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걸 생각하라고요.

미국에 와서 가르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아시아는 센터 컨셉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딱 세워놓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해요. 태풍이 불어와도 통한다 이거예요. *파더가 말씀을 하면, 미국 여자들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망쳐 났어요.

미국 여자들, 알겠어요? 정신차리라고요.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재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온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2004년까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통일 국가를 찾아 세워야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레버런 문 한 사람이 와 가지고 30년 동안 미국의 전 국민을 움직일 수 있고, 최고의 톱 리더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돼요?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예요?

상원 하원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나라를 재차 부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교도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관, 하나님의 이상관을 중심삼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청교도 정신은 신약시대의 정신이에요. *성약시대에는 새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야 미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여자들이 되었느냐?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딸을 교육하고 남편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실권을 책임졌느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과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과 남편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여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섭리관입니다. 그렇지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여러분의 책임이 그러한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가정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여자들이 국가와 세계를 책임지게 될 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관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예스, 노? 「예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한 30세부터 34세가 될 때까지는 나라를 만들어 로마를 굴복시키기 위해 출발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30세에 모세노정의 40년 기반을 통해서 찾아 이루지 못한 것을 탕감해야 된다고요. 천하통일의 나라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40년의 가정적 모세 노정을 통해 가지고 정착했으니 예수는 세계적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수는 국가적 기준이지만 선생님 시대는 세계적 통일 지상천상천국을 위한 책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완성해야 됩니다. 탕감복귀예요, 탕감복귀.

그래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기간에 종적인 역사를 전부 탕감해 나가야 돼요. 세계를 정리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은 1945년에서 1952년까지 7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세계적 기준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이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선생님이 40세에 이루고 남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 팔십 노인이 되어 이 놀음을 하고 있는 거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통일하면 세계적 기준이 통일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한국에서 제2이스라엘권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오는 거라구요. 제2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제1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제2이스라엘도 잃어버렸는데, 제3이스라엘의 때에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기독교 문화, 한국 전통을 세워 가지고 제1이스라엘, 제2이스라엘을 합해서 세계적인 제3이스라엘권 승리적 기반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시대로, 지상·천상 세계를 넘어서 탕감해 나오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책임 못 하면 러시아와 중국한테 빼앗긴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부모의 나라와 장자권 나라를 세운 거예요.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가지고 장자권 나라를 세워 새로운 천년을 맞이 위한 준비를 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환영을 받고 한국에서 환영해 가지고 천주참부모연합을 중심삼고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제3이스라엘권 출발을 선언한 거라구요. 제3이스라엘권이 출발하려니 남북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 워싱턴 국회에서 선생님을 초청했다구요.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서 제3이스라엘권 국가를 출발하려고 하니까, 제3이스라엘권을 출발하려니까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남북통일 문제를 책임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제3이스라엘 왕권시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기독교는 나라가 없다

구요.

그런데 아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건 누구나 하면 말이
예요, 해와하고 천사장이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조국을 잃어버
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국이 없어요. 그 조국은 완성한 아담
의 조국입니다. 창조주가 아버지이고, 그 아들딸이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딸의 사이에 혈통이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혈통이 연
결되지 않으면 부자의 관계가 뗫어질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
씀하심)

하나님의 혈통을 아담 해와가 받지 못했어요. 선생님 시대에 와 가
지고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
금) 경제위기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해와 나라인 일본하고 미
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될 때는 중국과 소련이 달려들
어요. 빼앗겨 버려요. 빼앗겨 버린다고요.

*중국과 소련이 하나되게 되면 미국을 앞선다고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파더가 그것을 알고 미리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소련의 젊은이들이 원리를 듣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더 빠르다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
심) 미국이 책임 못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망할 수 없으니 기리카에 해
야 된다고요.

선생님 말대로 부모의 나라를 따라가라고 할 때에, 미국이 빠르겠어
요, 사상적 공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찾아가던 공산권
의 사람들이, 이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 남녀들이 선생님
을 따라가는 것이 빠르겠어요? 「공산권이 빠릅니다.」 알긴 이는구만.

부모님을 절대신앙·사랑·복종하지 않으면 접붙여지지 않아

*지금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하면 미국이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

하심) 정신차려야 돼요.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여자들이. 누가 그들을 교육할 거예요? 통일교회가 교육하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가 너무나 적어요.

미국이 부모의 나라 뒤를 따라가야지, 부모의 나라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답변해 보라고요. 지금 장자 나라가 됐으니... 지금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요. 80이 되었다고요. 이제 선생님이 하던 모든 것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선교하던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금까지 일본이 충당해 왔어요. 일본 식구들이 죽을 놀음을 하면서 해 나왔는데 이제 숨이 막힐 경계선에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할 수 있어요? 워싱턴 타임스나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것을 미국이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말이에요.

과거에 가인이 장자가 되어 사탄세계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가진 모든 소유권을 전부 빼앗아 갔어요. 이제 미국은 뭐냐 하면 하늘 편 천사장이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찾아다가 부모님 앞에 전수해야 됩니다. 반대예요.

*장자는 하나님 편 천사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은 가인 편이에요. 지금 복귀의 때에 있어서는 하늘 편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편 천사장이 사탄의 모든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한테 복귀하고, 또 참부모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참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부모와 하나님을 중심삼고 조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 국민, 그리고 소유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그러한 기반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 편을 잘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나

라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헌법이 없잖아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예요. 나라가 없어요. 종교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물리고 그런 거라구요. 알겠어요? 교만한 미국 여자들, 알겠어요? 「예.」 암만 교만해도 선생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교만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보나, 심정으로 보나, 권한으로 보나, 무슨 면으로 보나.

그러니 선생님 말을 절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절대·유일·영원·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말들은 쉽지. 그 길을 가려면 ‘어어어어...!’ 이러지요? 내가 미국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지하에서부터 싸워 나왔어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도 말라구요. 여러분 조상의 밑창까지 꿰뚫어보고 있어요. 미래까지 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잔소리 말고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서 창조했으니... 선생님이 개인시대 가정시대로부터 8단계를 전부 다 압축해 가지고 여기 평면에 놓았으니, 이걸 절대신앙을 중심삼고 꿈무늬를 붙들면 접붙여 주는 거라구요. 잘라 가지고 접붙여 주는 거라구요. 부활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기준이 아니고는 접붙일 수 없어요. 몇천년이 지나도 태어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었으니 부모님의 꿈지를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 부정(不正)한 것을 태워 버리고 순금만 남아야

여러분, 돌아가 가지고 말이에요 뭘 하느냐? 여기 노라(Nora

Spurgin)면 노라를 중심삼고 배운 칸셉이 얼룩덜룩하게 많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임자가 백 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겠다고 하지만,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부정한 것은 다 태워 버리고 금만 남아야 돼요, 금만. 어때요? 동서남북을 통해 360도 회개해 가지고 눈물이 전부 다 나를 뒤집어씌우더라도, 회개의 눈물과 콧물이 뒤집어씌우더라도 그 속에 있는 나는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노라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도 네 마음속에는 나라는 것이 남아 있다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을 뭐 하러 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지. 쉽지 않다는 말을 왜 해, 사실인데? 다 웃지 말라고요. 미국 여자들이 다 그래요. 꼬리를 젓고 이러는 것들이 천국을 어떻게 따라 들어가겠어요? 걱정이 태산 같다고, 이 짱 것들아!

여러분, 과거에 누구 사랑하고 관계 맺은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루에도 배우 같은 그놈의 간나들은 별의별 놀음을 하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남아 있으면 천국 문에서 재까닥 걸려 버립니다. 선생님 말이 맞나 안 맞나 영계에 가 보라고요. 거짓말을 하나. 죽어 보라고요.

*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워 버리고 제로 포인트(영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예' 했다고요.

이제 다 알았으니 주인 노릇을 하라

내가 미국에 와 가지고 칭찬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칭찬해 주면 좋아하지요. ‘이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임자들을 남북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 내세워야 돼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공산당 패들을 상대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절대 신앙이에요. 김일성을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존경해요. 김일성을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보다 몇백 배 더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희미해 가지고 되겠어요? 송곳 깎트머리로도 뚫을지 말지 한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뚫어놔요. 그래서 내가 떠나기 30분 전까지 교육하고 왔어요. ‘이놈의 자식들, 선생님이 길 만들어 놓은 것을 망칠래, 안 망칠래?’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번에 국가 메시지 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하고 왔다 이거예요.

미국 여자, 일본 여자, 여자들을 앞장 세워야 된다고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못난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똑똑한 여자들, 답변해 봐요. 첨단지식이 있는 사람이 출동해야 되겠지요? 대학 졸업 이상의 사람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불리하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낙제짱이에요, 낙제짱. 그걸 알아야 돼요.

노라, 어때? 노라! 대학원을 나온 임자 같은 여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안 가면 궁둥이를 후려갈길 거라구. 그래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들을... ‘왜?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나를 지옥 가게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 못하게 때려서라도 내세워야겠다고요. 지옥에 가면 그런 불평을 하겠나, 안 하겠나? *파더는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를 내몰지 않았소? 내가 안 들으면 발길로 차서라도 내몰아야 되지 않소?’ 하

면서 왜 출동을 안 시켰느냐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강제로라도 왜 안 시켰느냐고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남자들은 천사장이니까 전부 다 여왕같이 모셔 가지고 필요한 돈을 벌어서 보내고 다 그래야 됩니다. 재산도 팔든가 해서 말이에요. 도와야 돌아와 가지고 제2 아담 동생과 같이 취급받아 가지고 축복받아 영원한 천국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깨끗해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피도 흘리고 땀도 흘려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물들여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 나라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몰랐으면 벌써 도망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 밀창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젠 꼭대기까지 다 왔어요. 미스터 주, 그렇게 생각해? 「예.」

말씀이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지금 말씀이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다 역사를 모르는 통일교회 간부들에게 말기면 다 흘러가 버렸을 것을 내가 다 책으로 출판했어요, 내가 다. 역사를 모르고 후대를 모르고 말이에요.

여기 필그림 파더(pilgrim father; 청교도)들이 명년에 씨앗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식량을 남기겠다는 그런 사상이 통일교인들에게 없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이 썩어 어디에 박혔을 것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 주인 노릇을 해야지요. 알고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알고 종살이하는 것은 천대해야 돼요. 알고 종살이하는 것은 천대해야 된다고요. (이후 말씀은 녹음되지 않아 수록하지 못함) *

천주 통일은 몸 마음의 통일에서부터

그거 뭐야? 「네 개가 있습니다。」 번역했나? 「예, 네 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에 관한 것은 3번입니다。」 3번을 읽으라구. 효율이, 얘기해 주라구. 「예.」 이젠 선생님이 80회 생일 축하식이 끝나 가지고 전국 21개 도시 순회강연한 내용이라구요.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이예요.

타락으로 창조목적 완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 세계 문제가 동서문제, 그 다음에는 남북의 빈부 격차문제라구요. 세계적인 그런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영계와 육계가 자녀 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이 여섯 가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조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국. (녹음이 잠시 중단됨)

*남북통일, 남북통일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것뿐만 아니라 영계가 분열된 것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일본 나라가 있지만, 그

2000년 4월 16일(日), 벨베디아 수련소.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것도 일본 천황을 중심삼은 나라이지 하나님을 중심삼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의 출발과 더불어 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를 편성해서 통일의 심정권을 가지고 일체권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주는 가족같이 사랑으로 묶어진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그렇게 그것을 잘못 사용한 문제가 말이에요, 천주를 전부 다 혼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정해 버려서 모든 만물이 부정되는 입장에 서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라고 하는 거라구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못 사용한 것이 이렇게 천주를 파괴해 버려서 천주를 창조한 하나님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완성한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출발해야 할 것이 창조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성해서 최악의 뿌리를 뽑아 버리고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해방권을 이루기 위해 영계의 성인과 살인마를 축복해 줬다

결국에는 아담 자신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의 일체권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미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주의 책임이고 참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

요?

참부모가 천주를 대혁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3일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영계의 대혁명을 지시한 것입니다. 4대 성인들을 축복했지요? 그 반대의 살인마, 역사적인 최고의 악한들과 결혼시켜 준 거라구요. 그러니까 원수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이루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만수(滿水)가 될 때는 말이에요, 수평을 이루어서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렇게 돌아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평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수가 되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흘러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거라구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물에 밀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수권에서는 수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해방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만수권과 같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성인과 살인마의 축복이었습니다.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최고의 살인마지요? 그것을 하나님과 참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책임질 수 없는 거라구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욕심을 가지고 파괴해 온 것인데, 그러한 사탄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참부모밖에 없지요? 그래서 평등하게 묶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악인들이 형제의 입장에 서게 된 거라구요. 그 원수들이 평등하게 되어서 횡적으로 탕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부모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의 8단계를 탕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한 승리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악인들도 성인과 같은 입장에서 역사에 없던 축복의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비참한 사건은 아담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악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끝날에 있어서 모두 다 탕감했기 때문에 참소조건을 사탄이 하나님한테 걸 수 없고 참부모한테도 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적인 모든 죄악을 선생님의 승리권을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참부모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계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바로잡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사탄과 하나님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정상에서 그것을 묶어 주었습니다. 참부모가 횡적인 것을 종적으로 묶어 줌으로써 횡적인 악인들이 종적으로 통하게 된 거라구요.

그러한 역사적인 대전환기가 작년 6월 13일에 있었던 3억6천만쌍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사건이었다구요.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천상이 개문되어서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참부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가 탕감조건을 치르고 인류와 더불어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은 대사건이었다구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40년 동안 탕감을 치러 나왔다

섭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본은 무슨 나라라구요? 「하하(母)의 나라입니다.」 하하? (웃음) 하하는 웃을 때 나는 소리지요? 그런데 ‘하하-!’ 할 때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하’ 할 때는 기쁜 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구요. 본래는 영국이 해와 국가의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2차대전 후 해와 국가였던 영국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유럽을 중심삼은 구교와 신교가 미대륙으로 대이동을 해온 거예요. 구교는 남미, 신교는 북미로 이동해 것입니다. 30년간 선생님이 그 신교의 국가를 중심삼고 남미를 묶음으로써 가인과 아벨로부터 분열된 역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교와 구교가 하나되어서 참부모를 모셨더라면 선생님의 가정이 그토록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혼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구요.

선생님의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40년 동안 복귀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벨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모셔야 했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신교국가의 중심인 미국을 본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의 해방권까지 이르게 된 것이 40년의 역사라구요.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고국을 찾아온 것이 40년간입니다. 선생님은 축복가정을 이끌고 세계적인 탕감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조국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라구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 없고, 하나님의 민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족이 없고, 하나님의 종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없고, 하나님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탄은 국가 이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은 전부 다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 가지고 박멸운동을 펼쳐 나왔는데, 그것과 대처해서 일선에서 싸워 나온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공산주의를 소화하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정을 이끌고 공산주의 박멸운동을 해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정들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기반부터 모든 영계와 지상이 평등해집니다. 그렇게 된 기반 위에서 지상의 해방과 영계의 해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성인과 살인마를 평등한 형제권에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대전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개문해서 영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개문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통일권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와 종파간의 싸움을 수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어

불교·기독교·마호메트교·유교가 전부 다 서로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종파 결속운동입니다. 초교파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기독교가 수많은 교파들로 갈라진 것도 선생님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 등 세계의 종교권이 갈라져서 싸우는 종파의 싸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그러한 기준을 넘어섰다고요. 종파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권이 하나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권이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라구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 있어서 국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학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는 비참한 입장에 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 둘만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저지른 죄가 말이에요,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죄악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해방하고 종파를 해방해야 되는데, 그 종파를 중심삼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전부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방해서 하나로 수습하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종족은 어떻게, 민족은 어떻게, 국가는 어떻게, 세계는 어떻게, 지상천국은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목적관이 철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 문제에 쫓겨서 터무니없는 입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성에 의해서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옛날의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인류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탐감노정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해명한 주인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있는 비밀로부터 악마의 비밀까지 전부 다 알게 됨으로써 좌우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이 필요 하다고요. 그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계를 알면 세계의 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영계를 모르면 안 돼요, 영계. 몇천 년 이전의 조상들이 영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운명에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이 땅 위의 어려운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예요. 그러한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구요. 영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안 죽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틀림없이,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마리든 뭐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말이예요. 한번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참새도 거미줄에 걸려들면 어쩔 수 없지요? 참새가 거미줄을 문제없이 날아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아들었다가 잘못해서 걸려들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느 누가 구원의 손길을 뻗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방해공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구요. 하나님은 타락권에 내려와서 간섭할 수 없는 거라구요. 원리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가 어떠한 환경인가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예요, 사탄에 대해서 ‘부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잖아? 원리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부모의 승리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천만 번 죽더라도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고생했고, 수많은 종교권이 피를 흘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탕감을 치러 나온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빛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일신으로써는 갚을 길이 없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하이.」

모국어(한국어)를 공부하라

그러한 것을 알면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알겠어요? 「하이.」 응? 「하이.」 응? 「하이!」 큰 소리로 대답하라구요. 40대 이상, 손 들어 봐요! 없지요? 40대 이상은 뭐 죽어도 좋다구요. (웃음) 시집도 가서 아들딸도 있으니까 쓸 데 없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처신해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구요. 40대 이전의 사람들은 아직도 미래가 남아 있고, 아직도 확실한 습관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공부하라구요, 공부.

뭘 하라구요? 「공부!」 무슨 공부예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천국어입니다.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말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집이 많지요? 지금부터 말씀을 안 하면 좋을 텐데 말이예요, 계속 말씀을 하게 되면 500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그거 큰일일 거라구요. 그거 일평생 다 읽기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전부 다 죽지 않았다구요. 영계에 가면 전부 다 표준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생님이 재세기간 동안에 몇 번이나 반복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을 못 진다구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구원의 헌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여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장시간 말씀을 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잇쇼켄메이(一生懸命; 목숨을 걸고 노력함), 반(半)쇼켄메이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음) 왜 웃어? 공부하지 않기를,하기를? 「하기를…」 그러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 ‘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써요?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은 쓸 모가 없다구요. 알겠어요? 「예.」 공부하지 않기를! 「하기를!」 (웃음) 모두 다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니까 희망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구요. 자, 그러면 네 차례다!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어서 2000년 2월 10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참부모님 탄신 80주년 기념식 때 강연하신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 훈독)

세계를 하나 만들려면 내 몸 마음을 하나 만들면 돼

질문 없어요? 질문해 봐요, 질문. 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구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싸우지요? 영원히 싸우면, 영원히 싸우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싸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예요.

여러분의 눈도 1.2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 눈이 서로가 있어서 느끼지 못해요.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구요. 하모니 하게 되면 느끼지 못해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도 말이에요, 두 코가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땡땡하잖아요? 하나돼 있으면 그걸 안 느낍니다. 귀도 그래요. 전부 다 하나돼 있어요. 손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가면 편안하다고요. 앉아 가지고 이게 하나되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들일 때, 불교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다 그러잖아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눈도 시각이 여기에서부터 전부 들어와 가지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요, 사위기대. 사위기대, 사위기대.

‘나는 참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원히 내 몸 마음은 싸우지 않고 하나돼 있다, 하모나이즈(harmonize;조화를 이루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하모니(harmony;조화)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상충이 없어요. 다 하모나이즈 되었다, 같다 이거예요.

하모니 되게 하는 핵, 코어(core;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혼란하더라도 전부 다 안정적이예요. 여러분의 몸 마음이 왜 하나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하나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와요.

사람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삼고 하모나이즈, 하나됨으로써 생명과 사랑과 혈통의 근본 된 하나님께서 핵이 돼 가지고, 근원이 말이에요, 근원과 결과가 딱 하나돼서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며칠 동안이나 몸 마음이 하모나이즈돼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쉬고 싶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

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남편도 들어오고 싶지 않고, 아들 딸도 들어오고 싶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남편을 대해 가지고 이해 상충이 돼 있어요, 하모니 돼 있어요? 「하모니 돼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몇 시간? (웃음) 그러니 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모니 된 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 화합하려고 하지만, 싸우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여편네한테 사랑해 달라고 할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흠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며칠 가겠어요? 결혼해 가지고 1년도 못 가서 이혼하고 웅가 당쟁가당 다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몸 마음이 하나되기 전에는 큰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하기도 부끄럽고, 부모를 대하기도, 형제를 대하기도, 나라를 대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테예요? 싸움을 계속할 거예요,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길을 찾을 거예요?

몸 마음 통일의 방법

그래, 몸 마음의 통일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세계 전쟁이 휴전하는 것보다도 나를 중심삼고 몸 마음이 싸우는 이 원수를 해소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하나될 수 있는 쉬운 방법, 방편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거 찾아보자 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할 거예요? 「예.」 나를 죽이고 위해서 전부 다 높여 주라는 거예요. 위해 줘야 돼요. 위해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 오늘부터 해보라고요.

1년 동안에 ‘내가 원수 중에 제일 악한 원수를 매일같이 만났다. 아

이고, 죽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래요? 1년 동안, 360날 360명의 원수를 위하겠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좋은 돼야 하겠어요? 좋은 사람이 됐겠나, 나쁜 사람이 됐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 보내겠느냐, 모셔다가 같이 살고 싶어하겠느냐?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야, 네가 나보다도 낫다. 내 선생으로 모시겠다.’ 그런다구요. *‘그거 어때? 대답해 봐라! 제발 그렇게 되어 나오!’ 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예스, 노? 「예스!» 그거 생각해 보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한 여자 식구에 대해) 이렇게 하면 신경질이 나요. (웃으심) 요만큼만 해도 ‘아이구 싫어요.’ 하고, 요만큼만 해도 ‘아이구, 싫어요.’ 하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싫다고 한다구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열 사람이 다 싫어요. 그러면 친구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 사람을 전부 다 친구 하겠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지옥이 그거예요. 아무도 친구 될 사람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손만 벌리면 전부가 ‘아이구 나 좋아, 나 좋아!’ 이럴 수 있는 곳은 위해 사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한 10년 동안 매일같이 원수 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와 모신다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자기를 위해서 주려고 다 이러니까 전부 다 ‘좋아, 좋아.’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하느냐? 일생 동안 해보라구요. 한 7대 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을 통일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어디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라구요. 내가 며칠이나 가는 나쁜 녀석이나, 몇 푼짜리나 하는 걸 한번 테스트해 보라구요.

선생님도 본래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예요. 원래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헛

바늘을 물고, 이렇게 억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원수들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원수시하고, 아내가 원수시하고, 부모가 원수시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적인 사람은 뭐 사흘 나흘, 몇 밤만 자면 끝나지만 말이에요. 같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구요. 그러나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해요? 「둘 다입니다.» 어디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같이 대하는 하나님인데, 레버런 문만 특별히 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문제 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반대라구요. 반대로 싫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하고, 위하고 위하고 또 위해야 각도가 180이 되면 착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맨 끌레미가 레버런 문이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반대하더라도 참고 꼭 대기에 올라가는 것이겠어요? 「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대해서 잔인한 하나님이예요. 맨 아래에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레버런 문이 없으면 하나님이 외로우니까…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다 해봐도 그 시험에 패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시험을 패스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믿겠어요? 마찬가지로예요. (박수)

박사 학위를 주는 지도 교수가 말이에요, 논문을 잘 썼으면 그 박사가 ‘내가 선생으로 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박사 전체가 사인하고 역사에 자랑하고 그런다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도 ‘내가 잘 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박수)

상하좌우전후관계를 통일하려면 원수끼리 결혼하면 돼

자, 내가 한국에 갔다가 여기 이스트 가든에 처음 왔지요, 금년에?

「예.」 그래서 한국을 보게 되면, 경상도 전라도의 동서,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땅이 가인 아벨이 거든. 이 상하관계·좌우관계·형제(전후)관계가 갈라진 것을 전부 다 통일해야 돼요. 타락한 세계하고 영계가 가인 아벨이에요.

그걸 통일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최고의 상징적 표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원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구요. 원수하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결혼하면 다 끝나고, 남북이 결혼하면 끝나고, 영계와 육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차결혼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해 주고... 우리 패들은 전부 다 하나돼 있다구요. 그래, 남북이 결혼만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계와 육계를 결혼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생님이 ‘야, 너 경상도 사람이니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 ‘야, 싫소!’ 안 해요. ‘그러지요.’ 이려고, 또 전라도 사람도 ‘그러지요.’ 하고, 남북한 사람도 ‘그러지요.’ 하고, 영계 사람도 ‘그러지요.’ 이렇게 되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스!’ 할 수 있는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전부 다 갈라져 사는 거예요. 그래, 참부모가 와 가지고 결혼시켜 주니 ‘예스, 예스!’ 합니다. 누구든지 혼자 사는 것보다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수 원수끼리 결혼해 가지고 사랑한다면 옛날 자기들끼리 사랑한 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가정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고, 나라보다도 하늘땅을 위해서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해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관이 달라요.

미국 러시아 중국도 서로 바꿔 결혼하면 하나돼

앞으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중국, 알아요? 그래요? 「예.」 소련하고 중국하고는 어때요? 소련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어떻게 하나돼요? 중국 사람이 14억이니까 소련 사람, 뭐 미국 사람 한꺼번에 전부 나눠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아량만 있게 된다면, 전부 다 그런 사상만 되면 완전히 하나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구요. (웃으심)

그 세 사람, 세 나라가 문제예요. *그 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중국 사람들만 ‘그 원수의 나라들과 결혼하는 것 오케이다.’ 하면 ‘원 월드 언더 갓 (One World under God;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은 문제없다구요. 미국 사람들이 원 네이션 언더 갓 (One Nation under God; 한 하나님 아래 한 나라)이라고 하는데, 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웃음)

이번에 영계의 어린 사람들을... 영계에서도 크다구요. 영계에 간 16세 이상 돼서 결혼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나 나라로나 원수 될 수 있었던 사람들하고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가진 모든 민족도 국경을 중심삼고 원수가 돼 있으니 앞으로 교차결혼만 하면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원수의 아들딸을 데려다가 원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 보는 거예요. ‘결혼할 거야, 혼자 살 거야?’ 하고 물으면 ‘아하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했다구요. 땅 위에서도 국경 국경이 원수니만큼 국경을 중심삼고 바꾸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교차결혼한 것 알아요? 서

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교차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끼리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원수 아니예요? 전부 원수예요. 아담 해와가 원수고, 하나님과도 원수고, 아들딸도 전부 다 원수예요. 원수 원수끼리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수 원수끼리 결혼해서 하나돼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감복귀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유관순이 일본 사람한테 몸뚱이가 여섯으로 잘려 죽었는데, 그 유관순을 일본 사람하고 축복해 줬다구요. (박수) 성인하고 살인마하고 결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인하고 살인마인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이러한 관계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수평이 되는 거라구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 축복받겠다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생활을 했고, 그런 방향을 취해 나가니만큼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처녀 총각들은 전부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교차결혼은 아무 문제없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보게 될 때, 해와가 버리고 가서 간부(姦夫)가 된 사탄의 핏줄을 받은 여자를 다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이 다시…」 해와가 원수 아니예요? 원수인데, 하나님 자신이 그 해와를 찾아다가 아내 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상대로 맞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

어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이것이 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통일교회도 반대하던 남편을 전부 다 찾아다가 잘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반대하던 남편과 맺어 주고, 부모들도 다 같이 맺어 주려고 그런다구요. 반대하던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된다구요.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 지옥 갔는데, 그들을 찾아다가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반대했어도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자기가 봉사하고 실천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전부 사돈 삼고... 그러니까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을 중심삼고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대표했고 몸뚱이가 사탄 편이 됐으면, 사탄 편을 대신한 몸뚱이가 마음에 절대복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되는 거예요. 3년, 5년만 지나면 다 하나되는 거예요.

절대사랑의 키(key)는 오직 하나

그래, 이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웃음) 그런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해요, 형제가 좋아해요, 일족이 좋아해요, 나라가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던 그 친척들, 여편네 또 얻어 결혼하고, 그걸 열 번 했으면 열 번 친척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다른 색시들이, 그 친족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저놈의 자식!’ 하고 말이에요.

여자 남자의 그 기관이 하늘땅을 녹여 먹었어요. 하늘땅을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종교가 희생을 당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생을 했고, 영계가 얼마나 추잡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쓰레기통이

에요, 쓰레기통.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한다면 아담 하나를 놓고 여자 열을 만들고 그 이상을 만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여자를 열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절대적이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절대적이요, 유일·불변·영원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사랑의 키(key)는 하나, 오직 하나라구요. 둘이 아닙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지금 미국 여자들이 얼마나 바람잡이예요? 아이쿠! 얼마나 쓰레기통이예요? 세상을 망쳐 놓은 거예요. 한번 잘못해 가지고 세상을 망친 거예요. 뭐 프리 섹스? 아이쿠! 그것은 나라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종족, 그 누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 누구하고도 근접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은 종적이고 아들딸은 횡적이예요. *모든 인간의 생식기의 주인은 하나님, 종적인 파더입니다. 횡적인 파더는 완성한 아담과 해와입니다.

어떻게 그 둘이 하나될 수 있느냐? 생식기에 의해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그 센터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사랑의 코어(core; 핵), 그 센터에 임재하는 거라구요. 그것이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코어를 중심삼고 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횡적인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움직여서 영원히 돌게 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아니예요. 결혼은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센터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결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아내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이예요. *남편과 아내의 센터가 무엇이나? 생식기가 센터입니다. 그 센터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가지고 중황으로 확장된 것이 영계와 지상세계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가정을 확대 적용하면 세계 통일이 가능해

생식기를 숭배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숭배해야 돼요. 그 나라의 왕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 남편도 그걸 원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지요? 「예.」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주가 내 것이 된다고요. 그 사랑 가운데는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나라의 사랑, 세계의 사랑, 하늘땅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것이 확대된 것이 영계예요. *가정이 지상천국의 모델입니다. 모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전부 다 큰 것을 같이 적용하면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딸이 있으면, 백인 가정이면 황인 아들딸, 흑인 아들딸을 데려다가 셋이 같이 살더라도 자기 아들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통해요. 어디 가든지 환영 받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 젓 있지요? 하나는 백인 아기, 하나는 흑인 아기에게 젓을 물리고, 황인 아기는 입을 맞추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생

각해 보라구요. 하나님께서 보게 될 때, 기념촬영을 해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박수) 그래야 하나님이, 저나라가, 세계가 환영하고, 어디 가든지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온 우주의 핵이기 때문에 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 선생님이 있는 데 같이 가고 싶어요? 「예.」 3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나를 반대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전부 다 살려 주겠다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방향을 다 잡아 준 거예요. 이제는 레버런 문 사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독교계가 알아요.

자, 주동문! 「예.」 5분 동안만 수련한 얘기 좀 해주라구. 얼마만큼 미국의 지도층이 선생님에 대해서 감복을 하고 위하려고 하는지 말아야. 수련을 했다고요, 수련을.

자, 여자들, 한 10년 동안 매일같이 사탄을 만나 가지고 사랑하고 위하겠다고 하면 사탄도 굴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사탄하고 결혼해 주면 어떻게 할래요? (웃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구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구요. 영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인들,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기독교의 33퍼센트를 빠른 시일 내에 6월 이전에 축복해 주라고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니 영계에 야단이 벌어졌어요. 저 영계에서 통일교회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자기들은 참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같이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 어디 갔나, 주동문? (박수)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이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아메리칸 리더스 컨퍼런스(American Leaders Conference; 미국지도자회의)’에 대한 보고)

*무엇이든지 모델만 만들게 되면,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우주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려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쉽다구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도 천국과 통하는 것이 문제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박수)

자, 일어서서 가야지. (김효율 기도) (만세 삼창) *

하나님의 조국

(1997년 5월 1일에 말씀하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벨베디아 가정교회' 낭독함.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아 수록하지 못함)

축복받은 우리 가정 하나만 있으면 통일천하는 문제없다

세밀히 다 가르쳐 줬다구요. 그걸 다 이를 자신이 있느냐가 문제지, 모른다는 말을 못 할 거라구요.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거 다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사탄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뭐냐 하면 재생입니다. 축복가정의 부부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정한 대표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다시 부활한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혈통이 연결된 사위기대는 내 가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니

2000년 5월 1일(月), 벨베디아 수련소.

* 이 말씀은 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무슨 참부모니 다 부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종적 횡적인 대표입니다. 그래, 나만 있으면, 축복가정 나한 가정만 있어도 통일천하를 만드는 것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내가 완성하면 완성한 가정이 생겨나고, 완성한 종족, 완성한 민족, 완성한 국가, 완성한 세계, 완성한 천주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런 씨예요, 씨. 알겠어요? 타락한 세계의 모든 씨는 없애 버리고 깨끗한 씨로 남아진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이 뭐 일본 축복가정, 독일 축복가정, 한국 축복가정, 미국 축복가정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교회가 없더라도 우리 가정이 통일교회다, 통일 나라가 없더라도 우리 가정이 통일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가정이 얼마나 된다고요? 「4억3천만입니다.」 왜 4억3천만 만이에요? 영계에 가면 수천억이 있습니다. 영계의 축복가정들이 전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영원히 하나됨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해

자, 그런 가정들인데 선생님이 필요해요? 「예.」 선생님과 같은 열매인데 선생님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열매는 뿌리가 필요합니다.」 (웃음) 이 녀석아, 4차 아담시대가 뭐야? 여러분 한 쌍이 4차 아담이에요.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거짓 부모인 사탄 마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굴복해야 된다고요.

통일교회를 문 닫아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여러분 한 쌍만 남아도 세계는 전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한 그 말씀하고 선생님이 지내온 탕감복귀노정만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고 사탄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선생님은 혼자예요, 혼자. 말씀을 갖고 그 전통 내용으로써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의 8단계를 다 넘어섰어요. 평지에서는 필요 없다구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앞으로는 기도할 때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기도도 필요 없다구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돈을 달라면 돈이 푹 떨어진다구요. 기도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절대사랑, 유일사랑, 불변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하나님이 주체이니 나는 상대가 되어 영원히 하나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동서와 남북의 싸움을 보여 주고 있는 한국

횃수로는 47회지요? (판서하심) 횃수로는 47회고 46주년이라구요. 80에서 47을 빼면 얼마예요? 「33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중심삼고 가던 세계적 기반의 축복을 완료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축복을 완성해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33년을 중심삼고 지난 4월 13일에 뭘 했느냐? 4대 성인이 있다구요. 지금까지 영계가 낙원이니 뭐니 해서 계급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석가가 계신 곳, 마호메트가 계신 곳, 그 다음엔 공자가 계신 곳이 전부 다릅니다. 또 철인들이 있던 곳도 있고, 지옥 밑창까지 수많은 계열이 되어 있었다구요.

4월 13일이 말이에요, 한국의 총선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전환기입니다. 4수도 제일 나쁜 수고 13수도 제일 나쁜 수예요. 제일 나쁜 수입

니다. 세상에 나라의 선거를 하는데 이 날짜를 잡았다는 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좋은 날로 잡아야 되는데 제일 나쁜 날입니다. 제일 나쁜 날이에요. 여기서 4층이 없대요. 요거는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예수가 죽던 때예요.

(판서하심) 한국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이게 북이고 남입니다. 세계가 지금 이렇게 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양 서양의 싸움입니다. 남북문제가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입니다. 문화의 격차, 빈부의 격차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딱 그와 같대요.

지금 한국에서는 동서가 문제인데 동양과 서양이 하나 못 된 것과 똑같대요. 동양은 마음세계를 대표하고 서양은 몸세계를 대표하는데 몸과 마음이 싸우는 거라구요. 그래서 성인은 전부 다 동양에서 났습니다. 물질문명은 끝이 되는 거예요. 수평이니까 끝에 가게 되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적인 것은 개인에서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문제입니다. 이건 공산당 유물세계인 사탄세계이고, 이건 남한이에요. 김일성, 북쪽 사탄세계의 아버지하고 남쪽 세계의 아버지, 두 아버지가 싸우고 있어요. 동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디가 이겨야 되겠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반대입니다. 북이 플러스가 되어야 할 텐데 남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되게 된다면, 동서가 하나되게 된다면, 이것(남한)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북한)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동서문제 남북문제의 해결은 참사랑으로 바뀌쳐야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느냐, 어떻게 하나되느냐 이거예요. 바뀌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쪽이 필요하고 너는 서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동쪽은 서쪽을 동쪽보다 더 좋아해야 하고, 서쪽은 동쪽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놓고 보게 된다면 말이에요, 서양이 지금 외적인 면에서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동양은 빈곤해요. 못산다구요. 바꿔쳐야 돼요. 남북문제도 남쪽이 잘사니 북쪽하고 바꿔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 마음이 하나되듯이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되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참사랑으로! 참사랑으로만이 하나돼요. 참사랑을 가지게 되면 알고 보니 이것이 형님이라는 거예요, 형님. 형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자리예요. 나라 가운데 아들의 자리고, 이것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김일성이예요. 이것은 서로가 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가 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가 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들딸이 하나되면 부모는 자연히 하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과 동양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바꿔치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양의 부잣집 아들이든 딸이든, 동양의 가난한 집의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만 하면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두 집밖에 없어요, 두 집밖에. 두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갈라져서 살 거예요? (웃음)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태어나기를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갈라지겠다고 하겠어요, 아이구, 죽어도 안 갈라지겠다고 하겠어요? 지금까지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희생시켰느냐 이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고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구요.

그러니 이제 형제들끼리 죽이는 것보다도 나보다도 동생을 위해서

죽고, 형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제지애(兄弟之愛)만 생겨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같이 가려고 한다구요.

그러면 아들이 이리는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알고 보니 여기가 형님이예요. 이게 형님이예요. 이게 동생이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이라구요. 참사랑 가운데 있으니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라도하고 경상도인데, 동서를 하나 만들면 세계가 하나됩니다.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양사람들은 잘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식하고 이런다구요.

여기 서양사람으로 배 나온 사람은 들이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나와서 치라는 것입니다. ‘부르주아는 죽어라, 죽어라!’ 하고 말이에요. (웃음)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같이 잘 살라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통일하는 데 사탄이 도왔기 때문에 끝날에는 사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탄까지도 지금 해방했다구요. 알겠어요? 누시엘이 자연굴복하고, 그 줄개새끼들도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면 통일되게 돼 있어

미국에서 유니언(union;노동조합)이 필요해요, 유니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No;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No)예요. 유니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없어진다구요. 공산당이 없어져요. 사탄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엔 미국의 잘사는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하고 교체해라 이거예요.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겠다, 신랑

찾아가고 사위 찾아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요. 이제 잘살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다구요. 미국도 다 망하게 됐어요. 사는 길은 별거 없습니다. 못사는 데 가서 내가 잘살게끔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즈 병이 잘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돈이 많은 부자 녀석들이 돈 가지고 뭐 해요? 향락주의, 프리 섹스 하고 다니니까 에이즈 병 주 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여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미인들이란 전부 다 에이즈예요, 에이즈. 그거 망해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일교회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면 고생시키는 거예요. 너희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가지고 세계를 도와라 이거예요. 이거 일본 놈들도 말이에요, 전부 다 돈을 빼앗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평균주의자가 누구냐 하면 트루 페어런츠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맺어요. 우리 한 집이, 여기 남편 아내 아들과 딸, 이 네 사람이 완전히 하나되어 세계의 표준이다 하게 되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 말입니까?」 그래. 이거 아니야, 동서남북?

예수님을 중심삼고 열두 나라 왕, 이랬으면 13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수하고요?」 4수하고, 예수의 열두 제자, 12지파하고 예수 하나까 13수 아니예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4월 13일을 중심삼고 선생님은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한 거라구요. 그래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대회를 끝낸 날이 12일입니다. 3월 12일이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의 정상이 회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암만 해야 안 돼요. 선생님이 거기에 합쳐져야 하나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참사랑, 참부모가 없으면 통일 못 되는 거예요. 트루 러브는 뭐예요? 위하고 위하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라구요. 남한에 있는 모든 재산을 북한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중심삼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북쪽세계의 선진국가가 아프리카에 전부 주겠다고 하면, 그 물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정말로 도와주고 그러면, 통일교회 전세계의 축복가정들이 북한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쭉욱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고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해 살면 천하는 통일돼

이제부터 대이동이 벌어져요. 통일교회 사람, 축복가정들은 부모의 나라하고 장자의 나라, 한국 일본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딘에서 수련받는 것이 뭐냐 하면 총생축헌납제입니다. 전부가 아담 가정 대표가정으로서 내가 본국에, 아버지 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이제 북한과 연락해 가지고 전세계의 통일교회 교인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도 환영한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와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서양 사람들이다.' 이래 가지고 환영하게 되면 북한까지도 축복가정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보통강 호텔에 말이예요, 일본 식구가 17쌍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 사람보다 좋다고, '저와 같은 일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북한은 환영합니다.' 이라고 있다구요. 그 전통을 세웠다고요. 그거 김일성이 만든 제일 큰 호텔이에요. 「아멘!」 (박수)

보통강 호텔은 말이예요, 서구사회의 웨라톤 호텔과 마찬가지로 뉴요커 호텔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서구사회의 모든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북한에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간부들도 와 가지고 우리 허락을 맡고 명단을 기록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구요. 옛날에는 혼자서 이불 쓰고 비밀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 모가지였는데, 이제는 공개해 가지고 보통강 호텔에 가서 밤을 새워서 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웃음과 박수)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공산당 누구보다 열성도가 낫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에 가 있는 17쌍이 공산당 최고 간부보다 낫다, 이라고 있다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원수인데 레버런 문이 원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저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레버런 문 사람들은 공산당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라고 있다구요. 공산당은 감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선전하는데, 레버런 문은 말도, 전화도 한 번도 안 하는데도 몇십 년을 그러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세상의 통일교회 패는 다 좋으니까 북한은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든 교회를 만들든, 통일교회 좋다!’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교회도 허가가 나와서 짓고 있는 거예요. (박수) ‘레버런 문이 미국의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환영이다!’ 그래요. 알겠어요? 미국 사람도 통일교회 교인이면 환영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을 한국에 투입할 텐데 북한에 완전히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잡아먹겠어요, 도와주겠어요? 통일교회 패들이 들어가 가게 되면 잡아먹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도와줍니다.»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흑인도, 백인도 정말이에요? 「예.»

그래, 통일교회 교인은 다 똑같다는 거라구요. 싸우지 않고 자동적으로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해 살겠다는 이런 놀음만 하게 된다면 천하

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되는 국경을 넘어서 교차 결혼하면 천하는 통일된다 이거예요.

4대 성인에게 33퍼센트를 축복해 참부모의 전통을 교육해야

예수님이 33세에 통일천하의 축복을 하늘과 땅에 이루어야 할 것을 선생님 시대 80세에 와 가지고 예수님 33세의 한을 풀어 영계 육계를 통일하여 지상천상천국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 완전한 이상적 정착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계 육계, 사탄까지도 해방을 다 했다고요. 지금까지 4대 성인한테 33퍼센트 이상을 축복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4월 28일에 끝났다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사흘 전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예수님 33세에 통일천하 되어 가지고 영계의 해방이 평준화되었다면 모든 종교의 계열이나 지옥까지 해방되어 평준화로서 일방통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림주는 예수님 대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 되었던 것을 참부모가 아담시대와 예수시대를 전부 해원성사하고 영계와 육계의 통일천하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의 자주적인 천하가 되었다고요. 영계에 국경이 없으니 지상세계에도 국경이 없어요. 여기에 아담 가정, 예수 가정, 야곱 가정과 같이 기존 축복가정, 실패한 가정, 처녀 총각으로 결혼한 가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계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장성을 끝내고, 완성은 33퍼센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성시대가 왔으니 모든 종교권 성인들은 33퍼센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면, 참부모 전통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장자의 자리, 차자와 같이 하나되어 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거라구요. 그래서 영계 해방, 지상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아담, 아까 말한 여러분 가정입니다. 사위기대라구요. 13수, 12지파 대표를 여러분이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축복해 주지 못했다구요. 네 나라를 중심삼고 열두 나라만 하면 세계는 통일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역사적인 한, 시대적인 모든 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것을 해원성사 해방권으로서 종결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천주가 된다는 거예요.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이걸 미국을 중심한 칸셉이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칸셉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 이거 잊지 말라구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영계도 해방하는 것입니다. 33퍼센트!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후계자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같이 축복받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대전도 70퍼센트, 2차대전도 70퍼센트에서 망하는 거예요. 3차대전도 70퍼센트에서 망하는 거예요. 완성권은 하늘이 주관하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33수, 예수를 해원해 주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모든 연한의 때라든가 모든 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시대, 제4차 아담권시대로 넘어간다구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진리 말씀을 찾아서 말씀한 그 말씀하고 여러분 두 가정만 되게 되면 천국을 누구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으로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일생동안 갖고 있는 전부를 팔아 가지고 투입하던 거와 마

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서라도, 이 세계를 팔아서라도 하늘나라를 찾겠다고 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나가면 천하는 순식간에 다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국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조국.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홈랜드(homeland; 고향), 하나님에 있어서는 파더랜드(fatherland; 조국)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홈랜드는 우리가 태어난 이 땅 지구성이고,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해와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여자들이 온 세계의 명승지를 전부 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라든가 일본 국민이라든가 한국 국민이 한 나라가 되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 비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무사통과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 이거예요. 미국은 비자가 필요 없지요? 일본 사람도 비자가 필요 없다구요. 또 사상적인 제1 책임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참사랑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이라구요. 그러니까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부부끼리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부가 전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트루 트루스(true truth; 참진리)! 「트루 트루스!」 트루 러브! 「트루 러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하늘 편이 아들딸이 원하고, 하늘 편의 가정이 원하고, 하늘 편의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둘을 가지고 어디든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 나는 천지의 해방된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다 이거예요. 그래, 부모가 필요 없어요. 한 쌍만 있더라도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몇천년 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 재림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그런 대표적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4차 아담시대라구요.

*그러한 4차 아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칸셉이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로서 결실되고 완성된 것이 축복받은 부부입니다. 총체적인 가치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한 가정은 우주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라구요.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룹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예.」 환영해요? 「예!」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의하자

모든 만물세계가 푸른시대, 통일교회가 오월달 푸르른 여름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푸르러 가는 동산들을 볼 때에,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자유해방인 동시에 하비 라이프 웨이(hobby life way;취미생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국경선이 없어요. 고향이 이 지구성입니다. 어디 가서 살아요? 미국 비자 필요 없어요. 미역국, 미역국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라구, 미역국. (웃음) 미국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미국은 지옥에 가장 가깝다고요. 그것이 미국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이에요, 다음 해는 통일교회 창립 48회 기념식 이런 거 집어치우라구요. 천하를 다 가질 왕자 왕녀가 뭐 하러 지난날을 기억하겠나 말이에요.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큰 나무에서 꽃이 피어 가지고 열매맺어 세계에 퍼진 싱싱한 나무들이 많은데, 늙어서 썩게 된 그 나무가 뭐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 영양소, 뿌리 모양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하고만 하나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독회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나도 싫어요.

나도 싫다구요. 여러분이 졸업할 때, 시험 백점 맞을 때까지 이 놀음을 하지 백점 맞은 후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알겠어요? 「예.」 아직은 여러분이 패스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고 해서 빨리빨리 패스해야 돼요.

이제 시험을 칠 거예요. 선명 문 단과대학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천지 이치를 환하게 다 안다 이거예요. 패스해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오면 선생님이 좋다고 하겠어요, 차 버리겠어요? 「좋다고 합니다」 좋으면 뭘 하겠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은 결의하고 맹세하면서 오늘 이 축하의 날을 기념하고, 앞날에 이런 축하의 날을 잊어버리는 승리자가 되겠다, 아멘 할 사람 일어서라구요.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 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박수) 잠깐 기도하고 마쳐요. (김효율 보좌관 기도) *

미국 청소년 교육과 체육분야 육성 방안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제2장 제5절 ‘참부모 가정과 영계’부터 혼독. 《마지막 인생이 가야 할 길》 ‘제3장 영계의 참자녀님의 메시지 1. 흥진님이 참부모님께 올리는 메시지’ 그리고 ‘통일영계권을 대표한 박종구 선교사의 메시지’ 혼독. 다시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제4장 제1절 ‘5. 영인 해원’까지 혼독. 양창식 북미대륙 회장의 기도)

영계의 사실을 전부 밝혀 줘야 돼요, 통일교회에도.

3개국 대학원생 대회를 에이 엘 시의 방식대로 하라

양창식, 이번에 5월 17일부터 소련과 중국과 미국의 대학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데, 잘 들으라구. 소련과 중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주로 대학원 학생들이지? 거기에서 교수들이 3분의 1이 되면 좋을 거라구. 이번에 브리지포트 대학에서 대회 하잖아? 「예, 5월 31일입니다. (양창식)」 5월 31일부터야? 「예. 현진 형님이 돌아와서 합니다.」 원래는 17일부터 한다고 했지?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허락하셔서 현진님의 세계순회가 끝나고 5월 3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5월 4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다.]

대회 하는데 현재 에이 엘 시(ALC;미국지도자회의)에서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종교권과 사회권이 합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가야 할 목적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종교 색채가 농후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종교를 모르니까 에이 엘 시를 중심삼고 활동하던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구소련에서 석박사가 하는 것은 부대적으로 참고만 하고, 내용은 에이 엘 시에서 하던 것으로 하라고요. 주동문, 듣지? 「예.]

에이 엘 시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실시했는데, 미국의 고명한 사람들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져서 별의별 주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완전히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 버린 사실을 두고 볼 때, 그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삼고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요.

이렇게 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지도하던 교수들이 3분의 1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최고 학계의 중심 영향권을 여기에서 심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실적 결과를 본 그 과정적인 모든 것을 지녀 가지고 결과를 따라서 가는 것이 제일 직단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현진이가 지금 세계 순회하는 것은 카프(CARP;전국대학원리연구회)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12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청년시대예요. 가정 기준을 확보해야 할 이 시대가 아담이 타락한 원한의 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대에서부터, 12세 이후로부터 16세 단계를 거쳐서 18세, 24세까지 4단계 기준을 중심삼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제 앞에 내세워야 돼요.

4차 아담 이전 사람들을 천사장권이라고 하게 되면, 4차 아담권의 새 시대 사람들은 아담시대라고요. 횡적으로 그렇게 보야 된다고요. 그

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내세워서 나라라든가 사회의 저명인사를 따라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본 될 수 있는 전통적 기준을 지금까지 에이 엘 시(ALC)를 중심삼고 교육한 실적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총결론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예.」 주동문, 알았어? 「예.」

이번에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양창식과 주동문, 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광정환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돼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종교권으로 볼 수 없어요. 감동하게 되면 우리 말씀을 중심삼고 원칙적인 훈독대회를 거쳐 나가야 돼요. 종교적 색채를 띠고 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비적인 외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한 것이 지금 뜻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려 준다고요. 알겠지? 「예.」 주동문, 알겠어? 「예.」

이것을 놓지 말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소망적인 터전이 돼요. 소련과 중국과 미국, 3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앞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을 계몽해야 할 전통을 어떻게 규합시키느냐 이거예요.

미국 최고 지도층 인사 12명을 교육해 청소년을 지도하게 해야

그리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지도층의 최고 열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연구소라든가 제일 권위 있는 단체의 장(長)을 중심삼아 가지고 교육해서 이들과 하나될 수 있게끔, 이들을 교육시켜서 이들과 이 청소년들이 하나될 수 있게끔 묶어 나가야 된다고요.

소련은 그것이 없다고요. 소련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있다고요. 교수들이 뻘더라도 전반적인 종교권의 내용을 중심삼고 움직일 수

있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그런 주도적인 열두 사람을 엮어 가지고 12지파와 마찬가지로 대표형을 중심삼고 이들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면 종교 상태를 벗어난 제4차 아담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알겠어요? 의논해서 잘 해야 되겠다구요.

대학원생 대회를 중국과 구소련, 인도에서도 해야

이것도 언론기관이 소개해야 돼요. 주동문, 알겠어?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론기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양창식)」 그렇지. <워싱턴 타임스>가 활동하는 것, 이번에 유 피 아이(UPI)를 우리가 인수했는데 그것까지 중심삼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3권 분립시대가 아니에요. 4권 통합시대를 중심삼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기관이 선두에 서야 된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1차를 미국에서 했으면 2차는 중국에서 하든가 구소련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도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승공연합의 깃발을 어디에 갖다 꽂아야 된다고 했느냐? 인도에 갖다 꽂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종교권이예요. 제일 잡종교권이예요. 별의별 종교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기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종교 판국을 믿을 수 없어요. 혼란이 벌어진다구요. 앞으로 인도권까지도 흡수해 나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구소련과 중국과 인도 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게 종교권 내에 들어와 있다구요. 우리는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일 직단거리라고 본다구요. 인도가 요즘에는 중국보다 인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무제한 출산이예요. 중국은 한 가정에 한 자녀예요.

동양에서는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큰일났어요. 여자들은 잡아먹히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중국이 유명해지면, 중국을 중심삼은 방대한 세력 기반이 된다면 서구사회나 흑인사회나 인종 차별하던 사람들이 상대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백인들은 천사장이 돼서 상대 없이 혼자 늙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다가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성 혼란시대, 성 개방시대가 온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한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종말시대에 맞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카프가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면 중국과 구소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김정일은 자연히 포섭된다구요. 김일성대학의 요원들을 중심삼고 구소련 중국, 3개국으로 해서 북한에서 한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주도해서 3일 동안 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3일 동안 하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을 포위해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구소련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북한도 하고 싶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소화시킬 수 있나? 틀림없이 우리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서둘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획이 그래요. 중국과 구소련까지 하고, 인도까지도 하는 거예요. 인도는 맨 나중에 해도 돼요. 이 세 나라 중에 미국의 아이비리그(Ivy League; 미국 북동부의 오래 전통을 지닌 명문 8개 대학)를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이 내용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삼고 몇만 명 교육한 것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지도요원으로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능가하는 통일권 세계의 바탕이 벌어진다구요.

주동문, 알겠어? 「예.」 이번에 곽정환이 돌아오게 되면 의논하라구. 곽정환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구. 열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큰 연구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싱크 탱크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치계 경제계의 열두 사람을 모아서 우리에게 호응될 수 있게 해서 이걸 해야 돼요.

5차가 끝났지? 「5차가 끝났습니다.」 6차는 이제 여기에 필요한 외적인 사람들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종교계 정치계, 일반 무신론의 세속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꼭대기에 끈을 꿰 가지고 달아매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나, 주동문? 「예.」 워싱턴에서 무슨 연락이 왔나? 「오늘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 시야, 두 시야? 「한 시가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우리의 책임, 스트라이프트 배스(striped bass; 줄무늬농어)를 잡고 한 시에 워싱턴에 갔다 와야 되겠구만.

예술과 체육분야를 묶어 세계를 지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리고 흥태! 내가 앞으로 남북미 축구연합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그 연합회를 소유하면 참 좋겠다구요. 그러니까 <티엠포스 델 문도>도 전적으로 울타리가 돼서 옹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구요. 벌써 힘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남북미축구연합회라고 해서 핵심 요원들을 그 세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쓰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면 위원회의 인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없다구요. 이럴 수 있는 준비를 알아보라고 주동문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둘이 의논해서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요.

이게 대단히 큰 일이에요. 선생님이 현재 체육계를 묶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 하면 일반 육상경기거든.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축구 같은 것은 세계적인 올림픽 대회와 같은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로서 사업적인 면에서 올림픽 대회보다 더 크다고요. 세계의 경제인들이 묶어져 있다고요. 이게 더 크다고 본다구요.

여기예다가 예술분야의 유니버설 발레단이라든가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동양 서양을 대표해서 세계 정상에 올라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가 금후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이 국가를 넘어 챔피언십을 중심삼고 갈라놓아야 횡적인 연결이 되어 전쟁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림픽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 쓰고 있잖아요? 두 세계, 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묶는 데 있어서 올림픽이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선문컵(Sun Moon Cup)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해와 달의 컵, 부모의 컵, 천지부모의 컵이에요. (웃으심) 그 컵은 예술분야와 체육분야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분야를 중심삼고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세계 챔피언십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분야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시대회도 일본과 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왕 중 왕 남시대회를 지금 시작했어요. 축구의 월드컵 같은 남시 컵, 남시 세계 올림픽 대회를 만들려고 한다구요. 축구하고 남시대회만 해놓으면 취미산업의 패권을 완전히 쥐는 거예요. 그런 방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 나가려고 하니까 잘 해야 되겠다고요. 알겠지? 「예.」

구라파와 남미의 축구 스타일을 한 스타일로 합해 세계를 제패하자

그러면 흥태는 갔다 왔던 얘기를 좀 보고해요. 「예.」 (브라질 축구 클럽에 대한 김흥태 회장의 보고)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만 이 축구대회는 매년 하는 거예요, 브라질을 중심삼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판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구요. (보고가 대화식으로 계속되나 난청으로 수록하지 못함)

그러니까 참 좋은 때라구요. 좋은 찬스예요. 가만 보니까 전세계의 재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축구선수 한 명에 3천3백만 달러예요. 5천만 달러가 나간 선수도 있다구요. 선수 한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판도가 어디 있어요?

현재 브라질 전국 청소년 축구 4개 대회 of 챔피언 팀을 우리 소로카바(Sorocaba) 축구클럽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놀랐대구요. 이번에 이태리 가는 것도 챔피언팀이 간대구요. 우리 패가 간대구요. 앞으로 세계적 선수들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축구 유학하는 데 있어서 브라질이 남미의 중심이 돼 있다구요. 이제 남미를 못 따라가요. 이래 놓으니 구라파가 따라오게 돼 있다구요. 구라파가 남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남미가 구라파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입장에 있으니만큼 우리는 뭘 하느냐? 브라질과 남미를 중심삼은 축구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라파 중심한 축구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구라파에서 유학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전부 여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딘하고 상파울루를 지방과 본부로 나눠서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구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르딘팀도 이제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에이(A) 그룹, 전국 최고 48개 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야 되겠어요. 그러려니까 학교도 기숙사를 만들어야 돼요. 기숙사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학교야 강당만 있으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필요해요.

중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구라파 유학생을 가르치는 축구학생, 혹은 남미 유학생을 가르치는 축구학교, 두 개를 만들어서 연합적인 한 체제에 있어 종합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축구경기를 보는데 구라파 축구는 장거리예요. 20미터 이상을 차요. 남미 축구는 센터에서 삼각패스예요. 10미터 이내예요. 이러니까 볼을 머리로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라파는 3분의 1이 발로 차는 것이고, 3분의 2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볼이 날아다녀요.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둘을 합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중앙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 넓기 때문에. 20미터 거리를 차는 것도, 중간에서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저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콤바인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구라파 팀하고 할 때는 구라파 팀에 대처할 수 있고, 남미 팀하고 할 때는 남미 팀에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콤바인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두 곳을 전부 제패할 수 있다고 본다구요. 이렇게 되면 세계 축구연합회의 주도적인 자리를 잡는다고 본다구요.

축구경기의 문전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방법

그리고 대개 보면 문전에서의 볼 처리가 문제예요. 구라과 축구도, 남미 축구도 문전 처리가 문제예요. 중앙에서 몰고 나가는 공격수와 수비수들이 문전에 20명이 모여 있으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문전에서 반드시 옆으로 쏘야 된다고요. 좌우로 보고 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몰려 있으면 볼을 뒤로 빼서 뒤에서 쏘는 이런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 남미 축구도 문전 처리가 문제고, 구라과 축구도 문전의 처리가 문제예요. 원거리에서 쏘니까 골을 넣기가 힘들거든, 몇 사람만 서 있으면 막기 때문에. 그 뒤로는 선수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서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수비만 강화하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전 처리가 언제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전 처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수십 개의 점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각도를 잡아서 차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볼이 오게 되면 골대 앞에 몇 도 차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눈 감고 차더라도 넣을 수 있게끔 수만 개씩 밤낮 훈련하자는 거예요.

대개 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있으니만큼 자기가 볼을 차는 데는 그걸 경계하고 차는 거예요. 골문을 지키고 있는 선수를 밀고 나간다고는 생각 못 하거든. 전부 다 그걸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가 골대를 넘어가요. 그걸 전부 아래로 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내가 보고 있는 거라구요.

그런 큰 구상을 하고 있으니만큼 이번에 마르코 폴로를 중심삼아서 워싱턴 타임스 재단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티엠포스 텔 문도>를 중심삼고 남미에서 후원할 수 있게끔 체제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 배경을 중심삼고 선전은 우리가 해주니만큼 자동적으로 지도 체제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동문, 알겠지? 「예.」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예술과 체육분야를 묶기 위한 것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해 나온 것은 뭐냐? 어떻게 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묶느냐 이거예요. 예술분야에서 유니버설 발레단과 리틀엔젤스 예술단으로 아시아와 서구사회에서 최고 대표 정상 위치에 올라왔다구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대환영이라구요. 이제 체육분야만 해놓으면 돼요. 이 두 분야의 정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상적 기준만 세워 놓으면 세계는 한 곳으로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요.

박상권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중심삼고 북한에 우리 팀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금년 올림픽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으면—우리 축구단이 있잖아요?—소로카바(Sorocaba) 클럽에 가서 훈련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국가 국가의 권이 돼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완전히 하나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 평화의 세계로 묶는 데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알겠어, 박상권? 「예.」 북한 팀과 남한 팀이 협력하면 두 팀을 우리가 데려다가 브라질 축구, 속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비해서 구라과 축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하자는 거예요.

이제 남북한 축구팀을 강팀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 팀이

이태리 팀을 이겨서 이태리 선수들이 6개월 동안 고향에 못 돌아가서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웃으심)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그것을 제안해 봐요. 「예.」

남북통일 방안은 문 총재의 방안이 최고

자, 이제 먹자구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경평 축구 경기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팀이 가서 훈련하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비용을 대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대중이 가서 고려연방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는 통일 방안이 이미 다 훈련돼 있다고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문총재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문총재의 가르침은 무기를 안 쓰고 사랑으로 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전부 훈련돼 있다 이거예요. 고려연방제는 국경의 이익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돼요. 통일방안은 문총재의 방안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대통령에게 얘기해요. 「예.」 책자를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곤란할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부딪힌다구요. 한국에 또 가야 되겠구만. (이후 말씀은 식사하시면서 대화식으로 하신 데다 녹음상태가 나빠 수록하지 못함) *

세계 통일은 종교권 통일로부터

몇 장이야?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4장 1절의 6번입니다. (양창식 북미대륙 회장)」 몇 페이지 남았나? 「30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읽으라구. (훈독)

재림시대의 160가정은 사두시대의 가정

『육적 세계는 사탄의 활동무대이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되어 언제나 엇갈려 나왔습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보게 되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전부 다 원수입니다. 국가 국가간에 얼마나 원수 영들이 많습니까? 그 원수 영들이 전부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초하루에 뭘 했느냐 하면 총해원식을 했습니다.』

국가를 연결하고 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4월 13일이 한국의 선거일이었어요. 뒤님이치는 이 기간을 중심삼아서 4대 성인에서부터 영계의 계열이 다 있는데, 이걸 평준화시킨 거예요.

2000년 5월 5일(金),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제1차 아담, 제2차 아담, 제3차 아담, 소생·장성·완성인데, 참부모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참부모의 혈통적 인연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담 가정을 대표하고 예수 가정을 대표하고 재림주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천국에 가서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해줘서 참부모 혈연관계 평준화 가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일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월 28일을 중심삼고 대대적인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의 120명, 예수님이 120문도를 중심삼고 120국가의 장(長)들을 축복해서 세계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선생님 시대에는 180가정을 축복해 줘야 돼요. 160가정이나 180가정은 재림시대의 가정으로 사두(司頭)시대의 가정이에요. 사도시대가 아니라 사두시대예요. 모든 머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두’ 하게 된다면 머리인데, ‘머리’ 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머리나 부모님의 머리나 자녀의 머리나 제자의 머리는 같다는 거예요. 평준화 가치를 가져서, 도리어 부모의 머리보다 나올 수 있고, 선생님의 머리보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준화 시대, 사두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시대가 아니라 머리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80가정을 중심삼고 축복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185개 선교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180국가예요, 삼 육 십팔(3×6=18), 6수의 3배예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6천년 역사를 따라서 1800수를 중심삼고 연결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축복가정도 1600가정이 아니고 1800가정이에요. 그걸 중심삼고 6000가정에서 6700가정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감 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평준화시켜야 되는데, 가정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준 이 모든 전부가 가정끼리가 아니라 종족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메시아를 중심삼고 그 일족과 그 나라의 고위층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초국가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참부모를 중심삼은 승리권이, 종적 승리권이 수평,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덩이가 되어 있던 것을 뒤집어서 평준화시켜 놓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권 성인들도 지금까지 차별이 있었지만, 참부모를 중심삼고 형제권으로서 묶어 놓아 가지고야 하나님을 중심삼은 혈통적 인연을 중심삼고 참사랑으로 위할 수 있는 천국 개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상세계나 천상세계나 경계선이 없는 통일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권이 연합해서 한국을 해방해야

그래, 지금 때는 도 세계, 종교권 연합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불교에서 정성들이거나 다른 종교에서 의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기운이 빠져요. 그 대신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성경 말씀 외에 성약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아침 햇빛과 같이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평준화된 도인들이 지상에 와 가지고 사탄세계를 완전히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사장 세계의 타락 환경을 도인들이 영적 천사장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참부모를 모시고 와서 쫓아 버리고 참부모 가정 대신 가정들을 전부 축복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수평적으로 들어가요. 개인이 들어가고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아야 지상천상세계에 통일권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통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국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통일을 해야 돼요. 종교가 합해 가지고 국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번에 ‘남북통일전진대회’ 한 것은 초종파적이예요. 이제 종교권이 합해 가지고 사탄세계의 선거권을 전부 다 때려잡아야 될 때가 왔다구요.

유엔을 중심삼아서 종교권 전체가 권한을 합해 가지고 사탄세계의 세속적인 선거권을 완전히 뒤집어 박아서 하늘나라의 전권 통치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천상·천국 통일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권 통치시대, 신권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래서 작년(1975년) 5월 초하룻날 뭘 했느냐 하면 총해원식을 했습니다. 전체를 해방해 주고, 전체를 용서해 주는 해원식을 한 것입니다. 사탄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해원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원수로 대할 수 없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보게 된다면 사탄이 원수인데, 사탄까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듯이 그 이상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총해원식은 어머니를 대표한 사탄세계의 어머니, 복귀된 어머니의 입장에서 전부 책임지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자리잡아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들어 보면 영계의 사실에 대한 것을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저렇게 세밀히 다 얘기해 줬다구요. 여러분이 무관심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된다구요. 생명의 골격과 마찬가지로요. 주류예요. 뼈에는 골수가 있어야만 피도 생산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자, 읽으라구.

『.....한국을 중심삼고 개인 기준을 닦았고, 가정 기준을 닦았고, 종족 기준을 닦았고, 민족 기준을 닦았고, 국가 기준을 닦아 세계로 왔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랴부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국가가 연합하는 종교 연합권이 이제부터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주력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엔의 결의에 의해 종교들이 합해서 선거에서 연합전선을 취할 수 있게끔 지시만 하면 순식간에 세계는 통일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자!

축복가정은 영계에 가더라도 지상에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통일식을 해놓고 보니, 금년 선생님의 생일은 역사적인 생일이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입장에서 영적 세계에 있는 영인들이 저나라에 갔지만 참부모의 생일을 한 번도 못 맞았습니다.』

총해원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기준에서 세계 기준에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양키스타디움 대회가 그거예요. 미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총탕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40분 동안 내리는 놀음이 벌어져요. 그리고 선생님 사진을 걸어놓은 게 떨어졌어요. 가미야마는 실패했다고 통곡을 했어요. ‘이놈의 자식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뭐냐?’ 한 거예요. 다 파탄시켜 놓은 것을 수습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비라구요, 한 고비. 자!

『……영육을 중심삼고 그러한 혜택권이 벌어져서 영계가 가담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후손을 통해 복귀하지요? 그건 원리적 입장에서 선조는 천사장 형이요, 후손은 아담 형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을 창조하는 일에 협조했거든요. 영계에 가 있는 선조들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아담을 창조하는 걸 협조할 수 있는 권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영계의 축복을 전부 해준 거예요. 지상도 전부 해준 거예요. 이제

미혼남녀 축복을 완결해야 돼요. 이 4년 동안에 말이에요. 성주를 전부 마셔야 된다고요.

『금번에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생일을 축하하는 이 날은 역사적인 하나의 기원을 마련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 간 수많은 영인들이 참부모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는 동참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아직까지 통일교회를 모르는 후손들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협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조들을 동원해서 후손 아담과 같은 입장인 지상 사람들을 재창조해 출발할 수 있는 시대권으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본래 영계에서 살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 와서 살아야 돼요,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의 축복받은 사람을 형님 가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장자에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자 자리의 지상에 돌아가서 형제적 축복의 인연을 중심삼고 형님을 따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계 축복을 완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축복이 완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의 반대라고요. 안 하면 조상들이 들어와서 들이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뒤두면 자기 조상들이 갈 길이 막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지 그 이상 떨어지지 않거든. 그 이상 떨어지면, 잘못하게 되면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반대하게 되면 180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선조들의 길이 막혀 버리니 데려간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들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병이 나서 죽어가요. 암에 걸려 죽어가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 돌아갈 거예요. 뜻에 어긋나면 비참하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간부들을 보게 되면 전부 암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다 못 한 거

라구요.

지금은 가인 세계에 통고해 줘야 할 때

『.....선생님 자신이 문중, 문씨 종중에서 족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종중이 자진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거나 했어요? 만나기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하여튼 인연이 되어 종씨 문중들이 선생님을 한국의 하나의 부모로서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뿌리찾기연합회예요. 지금도 내가 책임자예요.

『.....이제부터는 지상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영계는 우리 움직임을 밀어 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확정지어 발표하는 식이 ‘일심식(一心式)’입니다.』

일심, 일심, 일심식이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여기는 ‘일심정착(一心定着)’이에요, 일심정착. 그게 표어라구요. 이것이 1987년 7월 20일에 쓴 거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13년째입니다.」 ‘승한성취(勝恨成就)’는 1974년 5월 1일에 썼지요? 「예.」 그래서 둘을 갖다 붙여 놓았다구요.

일심정착, 여기에 앉게 되면 보여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일심정착이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 마음으로부터 가정, 일족, 지상 천국에 환하게 길이 열려요. 그런 책임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구요.

앞으로 120명의 통하는 사람들의 문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120국가 대표를 못 세웠기 때문에 120명의 세계 영통인들이 들어오

는 길을 지켜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때는 180명의 세계의 통하는 사람들이 재까닥 재까닥 밝혀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뭘 해먹었다는 것을 환하게 바라보고 '이 자식, 뭐 하러 들어와?' 이렇게 가려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고를 해야 돼요. 통고를 안 하면 안 된다구요. 그래서 박상권에게 김정일한테 통고하라고 한 거예요.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라 이거예요. 내 책임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 섭리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쳐 가지고 '아이구, 적당한 때에 하겠다.' 하겠지만, 적당한 때에 돼요? 비가 와야 할 때 와야지, 봄에 와야지, 겨울에 비가 와요? 눈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놀음을 이 땅에서 전부 정리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에서 세계를 뒤집어 박는 놀음을 했다구요. 세계를 뒤집어 박아야 돼요. 할머니가 손녀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웃으심) 어머니가 딸이 돼야 돼요. 자기 상대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권을 축복해 주면 세계를 통일할 수 있어

『……그래서 영계가 우리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조하고, 가정적으로 협조하고, 종족적으로 협조하고, 민족적으로 협조하고, 한꺼번에 협조하여 통일 운세를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이 3년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 평면이 차는 거예요. 이 7년 간에 모든 것이 교차되는 거예요, 7년 간에. 1997년부터 2004년 4월까지 7년 간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중심삼은 사상의 혼란시대가 오는 것과 더불어 영계의 악령들이 내려와 영육이 혼란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영들이 내려오게 되면 악령들 주위로 뺨어나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 내려와서 악령들을 해치고 악령들이 점령한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령들이 이 지구성을 점령하게 될 때는 악령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내려오느냐? 축복받은 가정의 영들이 내려와요. 사탄세계의 더럽힌 핏줄들을 뒤집어 박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 찾게 되면 유엔을 움직여 가지고 법으로 쓸어버려요. 영계도 법으로 쓸어버려요. 지상의 참부모의 권한으로 영계의 모든 뿌리까지도 불을 놓아서 쓸어버릴 수 있다구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도(道)의 세계를 혁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초민족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권끼리 축복해야 돼요. 종교·국경·인종을 초월해서 세계적인 친족으로 축복권 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이 벌어져요.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꿈같은 얘가지요. 오시는 주님이 혼자 와 가지고 언제 40년 동안에 하겠어요? 기독교가 다 믿게 되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7년도 안 걸려요. 자, 읽으라구.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기보다 하늘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해야

『.....참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이 잔치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계에 수천 조상들이 있더라도 한눈에 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참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랑의 길만이 있다는 참사랑

을 가진 사람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전부 다 기뻐하지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면 누가 먼저 오느냐? 거지들이 먼저 몰려와요.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편안치 않고 야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게 되면 ‘고수레!’ 하잖아요? 살아 있는 것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는 체하는 거예요. 줄 밥이 없더라도 ‘와서 밥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와서 찾아보고 없더라도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일교회 교인들은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사탄세계에서 잘 살겠다고 하면 사탄 편이에요. 우리가 공관을 만들어서 드나들고 있는데, 이 공관은 선생님이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명 재산을 투입해서 대신한 그 이유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거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공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몇 배 수고하고 있어요. 세계 어떠한 나라의 무엇이든 공적인 기준으로 모아서 해야 할 텐데, 자기 사적인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걸 비판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관계없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고 보라고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공관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여기에는 충신들의 피가 섞여 있고, 한의 고개를 넘고 넘은 원한의 핏줄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돈만 생기면 공적인 면에 전부 투입해 버려요. 자기를 위해 안 써요. 자기가 현재 계획한 일보다도, 일년 중심삼은 그것보다도 미래의 것이 있다면 그 미래의 것에 투입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이해 못 해요.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어제도 워싱턴에 갔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늘의 위신이 그렇잖아요? 세계적 기준, 세계에서 제일 갈 수 있는 것, 미국에서 제일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하늘의 마음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정성이라도 들여야지요. 애국심이 앞서야지요. 그걸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요.

사탄세계가 준비한 워싱턴 도성을 볼 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더럽힘을 받았다 이거예요. 전부 때려부수고 다시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길을 가는 거라구요. 그런 것을 주동문은 생각 못 하지? 마음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좋은 집을 사 가지고, 그 샀던 것을 제물로 갖다가 쪼개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제물로 쪼개 바쳐야 돼요.

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것보다도 사탄의 아들딸,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도 쪼개서 바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생축헌납기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조건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자, 읽으라구.

하늘 앞에 바쳤으면 잊어버려라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늘 세계에서 호흡할 수 있고 박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춤추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자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들딸을 위해서 집도 사주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형님이예요, 형님. 알겠어요? 장자권이니 차자권이 다 사줘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고요. 사탄세계가 소생 장성을 취하고 있으니 거꾸로 돼야 돼요. 자기가 3분의 1을 갖고 3분의 2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생님 아들딸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일본 식구들이 현금해야 돼요. 가미야마! 알겠어? 유정옥에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했다는데, 그따위 수작 하지 말라고 들이 까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본이 했다고 말이에요. 제물을 바쳤으면 그 바친 제물이 자기들 것이예요? 몸뚱이를 죽여 피를 흘려서 살라 버린 것을 기억에 남기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비행기의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 「예.」

부모님에게 바쳤으면 자기가 관리할 무엇이 없어요. 선물을 사주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선물한 것을 차소! 어디 가든지 차소.’ 하는 거와 같다고요. 그러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자기 출세와 명예를 세우겠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에게 바쳤으면 선생님이 자기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예요. 전세계를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물어 보면 답변해 주지 말고 들이 까 버려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많아요. 하나님에게 바친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효자의 가는 길에서 잊어버려요. 또 투입할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협조해 줘요. 그런 아들딸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되면 하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십 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못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몇백 배 몇천 배로 해주려고 한다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난한 효자가 하는 효성의 한마디 말에 천년 부모의 한을 풀 수 있고, 천년 복을 갖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심정

의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엔을 움직여 조국광복을 해야

『……이제는 우리를 협조해야 자기들이 복 받게 되어 있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꾸 구렁텅이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운이 급변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선생님의 사진을 걸라고 야단할 것입니다. 영계에서 자기 조상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걸고, 선생님 사진을 걸고 그 앞에 매일같이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걸라고 했어요. 예수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120개를 달아야 돼요. 이제는 종족적 메시아권을 중심삼고 국가 메시아가 되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1천8백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권을 평준화시키자는 거예요.

메시아가 부모권 아니예요? 개인 부모나 세계 부모나 세계 왕의 부모나 가정은 마찬가지로요. 종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횡적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라가 생겨나야 여러분은 입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적했습니까? 여러분은 통일교회에는 입적했지만,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적을 못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도 그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협조하느냐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나라만 있게 되면 재림 현상은 횡적으로…』

부모의 나라가 장자권 나라에 들어와서 조국광복을 해야 돼요. 유엔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런 때가 됐다고요.

『횡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면 수고한 터전이 남습니다. 그 나라를 찾아 올라갈 때는 아무리 탕감을 해놓았더라도 무너지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 밑창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가도 무너지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을 횡적인 기준에서 할 때는, 자기의 실적은 횡적으로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유 피 아이(UPI) 통신사를 잡은 것이 언론계에서는 가인 아벨을 이루는 거예요. 유 피 아이는 영적 가인과 마찬가지로요. 신문은 실체 지상 아벨이에요. 내가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자기들이 자진해서 버리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할 때

『다시 말하면 복귀해 올라갈 때는 탕감해서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나라를 찾고서 횡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탕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남아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 갔다 돌아오면서 조직을 사느냐, 연장하게 되면 사지 않는 대신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5만 스퀘어의 집을 내가 어떻게든지 워싱턴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계보다도 하늘 이상의 자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찌그러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옛 그제 갔다 오고 또 뭘 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양창식, 워싱턴에서 돈을 모아서 사야 돼. 내가 기본금을 주고 왔다구. 얼마나 남았나? 석 장 남았나? 3천 달러에서 2천7백 달러를 줬을 거야. 「예. 어제 스물 몇 명에게 백 달러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님도 스물일곱 살이 중요한 때였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눠 준 거라구요.

「지갑을 왜 가지고 내려왔어요? (참어머님)」 어제 가지고 간 거야.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저를 주세요.」 돈만 있으면 어머니에게 맡긴다구요. (웃음) 아니예요. 아기를 품잖아요? 「3백 달러를 맡기면서…」 (웃음) 어머니가 그래요. 아기까지 맡기니만큼 전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살림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여자들한테 맡겨 놓으면 바람피워서 시집가고 다 도망갔지만, 통일교회는 맡기면 하늘 재산을 보관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여자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국고금을 나라의 비밀 창고보다도 믿을 수 있는 그 동네 이장 집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장 집 어머니한테 맡이예요.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지금 돈을 맡아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야 할 때는 개인을 위할 때는 지나가요. 개인을 도와주고 싶지만 눈감고 나라를 위해야 돼요. 지금까지 누구든지 물건을 잘 사주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개인시대가 지나갔어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공공기관,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본부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북한을 위해 줄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어

자, 읽으라구!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 다 끝났어? 「예.」 《지상생활과 영계》에 세밀히 가르쳐 줬어요. 탕감복귀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할 것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했으니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4월 28일까지.

청평에 전화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영인들을 축복해 주고, 불교권 유교권 3분의 1을, 33퍼센트를 축복해 줘야 돼요. 공신들을 전부 축복해 줘서 부모의 혈족권 내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입적! 형님의 도리를 배워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형님의 도리를 배워야지요? 부모님을 모시니 예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효성의 도리를 배워서 일체화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경을 외우고 다른 종교의 의식을 하다가는 그 장(長)들을 빨리 데려가요. 알겠어요? 통일 안 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세계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게 되면 데려가요. 이북도 그래요. 전부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박상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그냥 되나? 싸움패가 돼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피를 흘려요. 그래서 피 흘리기 전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나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남한의 누구보다도 우리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불쌍한 패들이 됩니다.

방북 당시의 마음가짐

내가 김일성한테 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기도한 거예요. 원수의 아들을 찾아가는데 내가 신세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별 것 아니에요. 참부모의 도리로 주체사상을 뒤집어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으로 보여 주는데 무엇을 보여 주느냐? 살행이에요. 무호동중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라고, 호랑이 없는 동네에서 살행이가 범 노릇 한다는 말이 있잖

아요? (웃음) 딱 그 입장이라구요. 살팽이를 보여 준 거예요.

효율이는 가물치를 잡는 꿈을 꾸었다며? 「예.」 그거 얘기 한번 해보라구.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살팽이를 보여 주는데, 이게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 정권 인수식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지요? 「예.」 녹음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 인수식을 했다고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을 했으니 책임자가 김일성을 높이면 우리가 들이 밀어야 돼요. 내가 남북통일위원장이 되고,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자는 대통령을 하고 차점자는 부통령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말을 김일성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웃으심) 그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군왕이 죽게 되어 원수에게 모가지를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권위를 위하여 천년 만년 공신의 입장에서 죽어가야, 그 나라가 남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별별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상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고 정면도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번 영통인을 세계적으로 조사해서 몇 개국의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를 한 대 내줄 테니 어디 가자!’ 해서 비행기를 태워 데려가서 김용순을 불러 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서 이상현 씨하고 김일성을 불러놓고 김정일하고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반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밀리에 통해서 이래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율이, 얘기하라구. 「예.」 (1991년 방북 전 하와이에서 꾸 꿈에 대한 김효율 회장의 보고)

선생님이 정권 인수식을 하기 전에 그런 꿈을 꾸 거예요. 호랑이 없

는 동네에 살쾨기가 호랑이 노릇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딱 그런 입장이었다구요. 그러니 먹이를 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것을 봤거든. 오래 안 간다고 생각했지요.

김정일은 2세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에는 예물을 보내고 다 그러기 때문에 연명하지, 반대만 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데려가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인도네시아 활동에 대한 김효율 회장의 보고)

아이비 리그 대학들과 협력해서 유엔대학을 만들어야

이제는 꼭대기들이 연결될 때가 왔어요. 거기에서 모슬렘이 먼저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영국을 버리고 일본 원수를 택했는데 딱 그렇게 돼요. 내가 제일 염려한 것이 모슬렘이에요. 그것은 사탄적 종교예요. 이제 와히드 대통령하고 패라칸을 묶어 줘야 돼요.

닐은 총장을 잘 하고 있나? 「예.」 어머니가 이번에 구라과를 순회하는데 같이 갈래? 네가 그 일을 하려면 총장도 필요하지만,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들과 친해져야 미국이 앞으로 감투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감투 쓴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웃으심) 대학 총장으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문내는 것이 좋다구. 이제 총장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한다구.

*그때에 내가 어머니의 장자 총장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예스, 파더!」 예스, 파더? 「예스, 파더!」 예스 마더, 예스 페어런츠! (웃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임자는 아이비 리그(Ivy League; 미국 북동부의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 8개 대학)의 총장들을 방문했나? 「예.」 10개 대학 말이야. 가서 유엔대학에 학생을 보내 달라고 하라구. 협력해서 유엔대학을 만들어

야 돼. 미국이 앞으로 갈 수 있고 미국의 부패하는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협조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비 리그의 우수학생 30명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 계획

내가 천재적인 학생 세 사람씩 해서 30명에게 특별 장학금을 주려고 생각한다구요. 아이비 리그의 특별한 천재적인 학생들이 유엔대학에 오게 된다면 앞으로 유엔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만나 가지고 틀림없이 천재적인 학생 셋을 빼겠다고 하는 총장의 사인을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총장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비 리그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미국을 지도할 수 있는,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니만큼 그들에 대한 계획을 하자고 해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비 리그의 총장들이 ‘야, 이 녀석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아이비 리그의 총장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3천 개 이상의 모든 대학 총장들이 모일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해? 「지금 오기로 했습니다. (양창식)」 어디로 와? 「저희가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 사택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 비(UB; 브리지포트 대학) 학생회가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참부모님한테 기쁨을 드리고자 플랙(plaque; 패,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참부모님께 감사패 봉정. 박수) 「야마우카 씨의 아들입니다, 야마우카.」 그래? 야마우카? 중국말도 배워야겠구만. (웃음)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 발음도 괜찮은데? 되도록 국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자구요. 「다음주 일요일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진경희 박사)」 내 말을 알겠나, 닐? 「예.」 학교에서 계획해서 특별한 사람 세 사람씩 하게 된다면, 특별히 교육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한다구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이비 리그의 학생들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지도자를 길러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도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들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협조하는 날에는 유엔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추천해서 하니까 앞으로 대학교가 전부 추천해서 집어넣는 놀음이 벌어져요. 알겠어요? 「예.」 한 3백 명이라도 우리가 1회만 장학금을 절반씩만 줘도 완전히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번 졸업식에 모두 877명이 졸업합니다. 학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 졸업하는 사람들은 수련시켜서 내보내야 돼. 「식구들은 이번부터 졸업생 수련회를 했습니다.」 식구가 아니라도 그것을 시켜야 돼. 「예.」 (브리지포트 대학 졸업식에 대한 진경희 박사의 보고)

판타날에서 취미 용품과 기념품의 전시 판매 계획

뉘싯대 값이 얼마야? 「뉘싯대 하나가 작은 것은 160달러이고 큰 것은 250달러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작은 것이 4백 달러 정도 됩니다. 열두 세트니까 5천 달러가 되고요, 전부 해서 만 달러 정도 됩니다. (박상권)」 그것을 치부(置簿)해 두라구. 내가 물어줄게. 「예?」 내가 물어준다구. 「저희가 내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든지 공짜로 가져간다고 그럴 것 아니야?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판매 지점을 만들어야 돼. 「예.」 판타날에 좋은 장소를 잡아 빌딩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전부 전시해 가지고 뉘싯대로부터

도구, 운동기구까지도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캠프그란테에 빌딩을 하나 사서 그걸 하면 좋을 거라구요. 들르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선물을 사 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구요. 판타날을 중심삼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새로부터 여러 가지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시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구요.

판타날에 식물로부터 동물로부터 얼마나 많아요? 책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구요. 우리 식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물건도 화분에 넣어서 무슨 종류든 팔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전시 판매장을 만들려고 생각한다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요. 무슨 새 하계 되면 새도 한 쌍씩 전시해 놓고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의 주소를 받아 가지고 보내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명해진다구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박상권? 「예.」 박상권은 판타날에 관심이 없잖아? 「아닙니다. 관심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야 유명해진다구.

세계적인 사냥과 낚시 대회를 열어 취미산업을 확대하자

이번에 40주년 스트라이프트 배스(striped bass;줄무늬농어) 경연대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5월, 6월에는 코디악에서 킹 새먼(king salmon)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미로 가야 돼요.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훈련되면 전세계적으로 일년에 네 번씩 경연대회를 할 거예요.

그 경연대회를 교구장을 중심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장을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계열을 중심삼아 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해도 언제든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니까 호텔이 만원 돼요. 얼마나 붐이 되겠

나 생각해 보라구요. 비행장을 만들고 판매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취미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구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알겠어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묵는 거예요. 사냥을 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 3개월 하는 거예요. 남미를 가든가 아프리카를 가든가 3개월 동안 사냥 다니고 낚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방학 기간에 뭘 해요?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런 놀음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 말이예요. 우리가 오션 챌린지를 샌프란시스코와 엘에이(LA)를 중심삼고 하고 있잖아요? 젊은 놈들이 깡패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처량해요? 오션 챌린지라고 해서 바다에 취미를 붙이더니, 그것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낚시 바람이 불게 되면 색시를 팔아 가지고도 그 놀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지 말라고 해도 교육받게 돼 있는 거예요.

브리지포트 대학에 배가 160척 있잖아요? 그것을 요전에 1만5천 달러 정도면 수리한다고 그랬지요? 수리해서 브리지포트의 훈련이라고 해서 갖다 맡겨 보라구요. 아이비 리그 학생들이 모여서 ‘왕왕왕!’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도 롱아일랜드가 중심 어장이라구요. 보스턴까지 말이예요. 보스턴부터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진 박사! 「예.」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전부 앞으로 유 비(UB;브리지포트)에 소속되는 거야. 어디 다른 데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별동대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과를 중심삼고 몇 학점씩 봉사적으로 가르치게 하라구. 「예.」 그렇게 짜는 거야. 월급을 안 받고 말이야. (학과 과정에 대한 진경희 박사의 보고)

대학에 내가 한번 갈 줄 알아? 가면 뭘 해? 가면 욕을 하고 그럴 텐데? 「닐 총장은 아버님이 꼭 오신다고 나무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

다.」 자기는 총장보다 더 자주 가면 안 돼. 「그리고 널 총장 가정이 대학 구내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밤이고 낮이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이비 리그의 총장들을 중심삼고 동창생들을 껴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껴차기 위한 준비야.

오늘 바람이 안 불어? 「괜찮습니다.」 어제께 바람 부니까 안 물더라고.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안 물어. 「바람 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비 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고기가 영물이야. (웃으심) 「여덟 시하고 세 시에 많이 잡힙니다. 중간에는…」 그게 물때야. 물때를 맞춰야 돼. (이후 말씀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함) *

지상생활의 중요성과 판타날의 자연박물관

앞으로 판타날에 관광지역을 만들어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된다면 관광할 수 있는 순회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요. 우선 여기에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다 모였어? 「예.」 (경배) 내일부터는 30분 빨리 하자구. 「예.」 우루과이에서 온 사람들은 내일 이리로 오라고 그래. 「예.」 연락하라구. 왜 그러냐? 오늘과 내일은 14일을 기념해야 돼요.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으니 지상생활이 귀해

자, 읽으라구. (《지상생활과 영계》 하권 제2장 제2절 ‘재림주와 영계’ 훈독)

이상헌 씨의 메시지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과 내용이 같지요? 「예.」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더 자세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영계가 관념적이었는데 이것은 실상이에요. 그걸 실제로, 입체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2000년 5월 12일(金), 아메리카노 호텔(브라질 판타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사는 환경의 안팎을 중심삼고 세밀히 지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하늘의 권속, 하늘의 축복의 혈통을 통한 고난의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어요. 그 민족은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통일전진대회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이 한 고개를 넘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영계와 육계의 통일적인 권한을 이루고, 사탄도 굴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라를 중심삼고 악을 심판하던 권한 이상 하나님을 중심삼고 나라를 찾아 가지고 지상세계 천상세계를 재창산해야 된다고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가두었지만, 하늘 편은 다 이루어 나라를 찾아 가지고 지옥을 깨끗이 하고 천국세계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과 본연의 부모, 전체가 해방되어 모든 것이 다 해방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이상적 하늘의 사랑과 일체 될 수 있는 권속이 되는 거예요, 권속.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예요.

저 말들, 지상에서 혼독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대개 어떻다는 것을 짐작한다구요. 짐작한 그 세계에 가면 그것이 필수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무관심하고 지상에서 무책임한 자기 생활 기반을, 역사 발판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한이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한과 탄식을 벗어날 수 있는, 지상에서 몸을 갖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생활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런 자기 밀천을 찾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모든 전부,

하늘과 땅, 하늘 부모와 사랑과 혈통, 모든 잃어버린 밑천을 찾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귀한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도 그랬잖아요? 박종구도 체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흥진이도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 효자가 되고 싶고 위하고 싶은 심정인데 체가 없으니, 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영계가 부모님에게 목을 매고 있어요. 전체를 대표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님이 완성한 모든 안팎의 심정권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지상세계 처리와 천상세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종교인도 그것을 바라고 영계에 있는 영인들도 같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이걸 확대시켜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지상세계가 천국으로 화하게 될 때, 천상세계는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지상에서 완결 짓지 않으면 천상세계가 미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방권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이 아니에요. 숙명적인 거예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지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런 표준을 알고 금을 긋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들고 하늘의 영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족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또 해방된 여러분의 일족들이 지상의 후손들을 후원해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지상도 해방되는 거예요. 서로가 돕고 돕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영계를 알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 혼독회를 되풀이하면 많이 깨닫는 거라구요. 상헌 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거 믿을 수 없다.’ 하더라구요. 이놈의 자식! 믿을 수 없는지 믿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4차가 끝났어요. 4차 보고를 받았다고요. 이제 8차의 보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환해질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영계를 몰라 가지고는 지상에서 뜻의 세계를 세울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영계를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선생님은 영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여기서 부딪치고 저기서 부딪쳐 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 창조이상의 참사랑의 본질형이라는 것은 누가 점령할 수 없어요. 그걸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부딪치더라도 부딪친 자체들이 깨져 나가서 비료가 되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지, 자체를 부정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본형과 본질적인 자체를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까지 찾아 나가야 돼요.

한국(한반도)에서 이번에 6월 13일을 중심삼고 정상회의를 하지만 회의가 잘 안 될 거예요. 통일문제가 나와요. 남북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한 8대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다 달랐어요. 김정일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나? 반공법 철폐예요.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권 타도예요. 공산당, 사탄이 원하는 거라구요. 종교권 타도예요. 무신론이에요.

종교권 타도는 뭐냐? 부모니 무엇이니 전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마지

막이에요. 그런 내용을 깨뜨리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 이것을 쳤다가는 뺑가당뺑가당 끝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승리 기반을 세계에 나눠 주는 것이 어머니님 순회강연

내가 여기 원초 성지에 올 때마다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남북통일전진대회를 스물한 곳 넘게 했어요. 그걸 중심삼아 가지고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일본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4차 하는 거예요. 해외 국가의 사위기대예요.

미국은 열두 아들과 같이 열두 곳에서 했어요. 열두 아들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기 때문에 미국 신교를 중심삼고 열두 아들, 가인 구교를 중심삼고 열두 아들딸이에요. 어머니는 열두 아들딸을 포섭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라파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 열두 아들딸이에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40개 나라와 40개 기반을 닦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영계에 가기 위해서도 40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40일 후에 부활했지요? 상현 씨도 그랬잖아요? 40일 후에 자리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40개를 맞춰 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 만드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 해산의 수고를 해서 3차에 걸쳐 아들딸을 규합하는 거예요. 36수를 규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놀음을 해서 36가정을 중심삼았던 조상과 자녀와 세계 판도를 어머니가 다시 책임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것은 아버님의 이긴 모든 기반을 전세계 앞에 어머니를 통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낳아 줘야지요? 그와 같은 섭리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어

머니도 순회 강연시대가 지나가요. 여성 해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결 반지예요. 이름이 순결 반지예요. 참부모.참사랑.참가정이에요. 참부모가 있으니 참사랑이 나오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부가 생기고, 참부부가 생겨 가지고 참다운 아들을 중심삼고 하나의 참된 가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약속하는 반지예요. 그것을 역사시대와 더불어 선언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은 순결 반지예요.

반지라는 것은 약혼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해와 세계를 다시 약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본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지금 본처가 없어요. 천하를 통치하는 본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본처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본처를 차지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축복가정이에요. 축복가정은 세상 나라, 혼란 된 사탄세계의 쓰레기통, 구더기들이 득실 득실 하는 데서 구더기 밥이 되지 않고 구더기 자체가 앞으로 그걸 팔아먹게 해야 된다고요.

사악한 세계를 관리 소화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 부부가 되라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컨트롤해야 돼요. 아무리 프리 섹스니 요사스런 판국이 벌어지더라도, 사악한 음란의 세계가 되더라도 거기에 구더기 밥이 되든가 구더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부부예요.

부처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몸 마음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끼리 싸운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 마음이 싸우는 것은 사탄적 사랑으로부터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몸 마음이 싸우는데 보다 높은 사랑이 오게 되면 합해요. 하나님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눈물 흘려 가지고 과거·현재·미래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심정권을 가지면 몸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 마음이 하나된 남자 여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 마음이 하나된 것보다도 보다 하나될 수 있어야만 우주가 부활돼요. 보다 크게 하나될 수 있어야 그 가정 가운데 나라가 들어가고, 세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사는 가정이 온 하늘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금년 표어가 뭐예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입니다. 참사랑 천주화가 뭐예요? 천주가 뭐예요? 하늘 집이에요. 새천년? 「천국 완성!」 새천년 왕국이에요. 가정이 천년왕국 완성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이 가정에 들어오고 손자도 이 가정과 더불어, 나라들도 이 가정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효자가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충신이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성인 성자가 사는 곳도 가정이에요. 클 뿐이에요. 작은 것이 가정이고, 큰 것이 국가고, 그 다음이 세계고 천주예요. 하늘 가정이에요. 거기의 모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빼면 전부가 틀어져요. 이것을 중심삼고 내려가면 전부 거꾸러져요. 이 가정이 과탄됐기 때문에 지옥과 천상으로 갈라져서 과탄됐어요. 그걸 갖다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크리스털같이 이렇게 보면 우주가 다 보여야 된다고요. 저나라에 남자 여자가 가 있지요? 아들딸 되고 부부 되고 모든 관계돼 있던 것이 전부 엇갈려서 막혀 있다구요. 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몸 마음의, 성상 형상의 사랑에 화동할 수 있는 창조이상적인 본연에 일체 될 수 있는, 화동의 미를 갖출 수 있는 여기서부터 창조세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부가 대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은 일곱 껍데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주의 보물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정 자가 무슨 정 자인가? 「뜰 정(庭) 자입니다.」 뜰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뜰, 그것이 우주예요. 참사랑 천주회는 새천년 천국 완성! 집이에요, 집!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금이 있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지요? 보물이 있다 할 때는 따라다니지요? 마찬가지로요. 우주의 보물이에요. 지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어디 갖다 놓아요? 은행 금고에 갖다 두려고 그래요, 자기 집의 보물 상자에 갖다 두려고 해요? 「보물 상자에 두려고 합니다.」 보물 상자에 넣어 두려고 한다구요. 보물 상자를 여는 데 그게 몇 겹이나? 1차 2차 해서 8단계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집이에요.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다 돼 있거든. 그렇지만 이것은 껍데기예요. 일곱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참부모도 가정을 가져야지요? 족장도 가정을 가져야지요? 민족장도 가정을 가져야지요? 국가의 가정 장(長)은 대통령이고, 세계 가정 장이 성인이에요. 하늘땅의 가정 장이 성자예요. 하나님은 천주 가정의 주인이에요. 이게 전부 가정을 중심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천주의 중심 가정, 하늘나라의 가정, 성자의 가정, 성인의 가정, 애국자의 가정, 효자의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신인 창조 전의 성상 형상의 완성한 분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연결돼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쪽 올라갔다 뒤집어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으니 내려가 가지고 또 펴야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안았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붙들고만 있어요? 사랑하고 나면 떨어져 나가지요? 영으로 돌아가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적으로도 그 운동을 하고 횡적으로도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아들딸까지 합해서 셋을 다 퍼면 횡적이지만, 그것을 연결시키게 되면 구형이 돼요. 그것이 열두 곳, 열두 정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리워야 돼요. 그 가정 가운데는 다 품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잘산다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떼어 가지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한 대표자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숨겨 뒀서는 안 돼요.

내가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로부터, 성인으로부터, 애국자로부터, 효자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해와 분성적인 성상 형상의 분신체, 아담 해와 완성체의 입장에서 관리해서, 그걸 나눠 주면 둘이 되지만 합하면 하나되는 거예요. 합해서 하나되기 위한 핵심의 씨앗이 아담 해와예요.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씨요, 천주의 씨요, 세계의 씨요, 나라의 씨요, 민족의 씨요, 종족의 씨요, 가정의 씨요, 하나님 자체의 동생이에요. 동생의 자리 아니에요? 본래는 동생의 자리이지만 지은 입장에서는 부자지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형님의 자리에 있어요. 또 아버지가 형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미국의 외적 고위층 인사들을 훈독회를 통해 교육하는 ALC활동

이제 밥을 먹고, 오늘은... 옥자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빠꾸들이 불쌍해요. (웃음) 옥자매가 없어지니 나무들이 생겨났잖아요? 나무 사이

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해방이지요. 해방인데 악어 같은 것이 와서 잘 때 잡아먹기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구요. 불쌍한 고기를 내가 또 잡아서 뭘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이 세계를 앞으로 개발해 줘야 돼요.

여기에 와서도 만 3년이 되었어요. 금년이 지나게 되면 만 4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4년 동안 일하게 되면 7년이에요. 1997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7년노정에 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미국 자체가 이제는 선생님한테 완전히 잡혔어요. 현재 고위층 종교인 훈독회를 하는데 15차를 하고, 외적인 사람들도 15차를 하는 거예요. 30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엘 시(ALC;미국지도자회의) 활동을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외적인 세계 사람들을 중심삼고 훈독대회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독회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완전히 돌아 버려요. 도리어 기독교인보다 나아요.

기독교인들은 멋도 모르고 믿고 있어요. 종교는 멍텅구리들이 믿어요. 외로우니까 붙들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주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붙들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듣고 비로소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열렬해요.

그런 패들을 중심삼고 각 주(州)가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15차를 하게 되면 3천4백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34수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복귀돼요. 3천 명만 되더라도 50개 주면 오 육 삼십(5×6=30), 60명씩 되는 거예요. 60명이 결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후원해서 각 주의 법을 고칠 수 있어요. 상원 의원들이 말이에요. 주의 법을 고칠 수 있다구요. 50개 주를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만 된다면 연방정부의 상원 의원이 법을 고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엔과 연결시키기 위한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의

엔 지 오(NGO;국제비정부기구)를 중심삼은, 엔 지 오(NGO)의 주인 자리에 우리가 앉을 거라구요. 유엔이 엔 지 오(NGO) 중심삼아 가지고 꺾데기를 타고 있어요. 지금 배 꺾데기를 타고 놀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엔진 없이 노도 없이 손 가지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를 만들어 주고 엔진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눈앞이 환해요. 그래서 배 타고 피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안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바다와 같이 생각해서 그 걸 건너가야 돼요. 그게 개척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개척할 것을 생각해야

어제 배 타고 오면서 옥자매가 길 막아놓은 걸 헤치고 오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예.」 판타날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고, 길이 막히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엔진을 돌려 가지고 두루룩 자르는 거예요. 이 스크루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뉘어놓으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넓적한 것이 돌아가니만큼 다 갈라 버려요. 갈라 버려 가지고 혹 붙어 버린다구요. 그럴 때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감겨 버린다구요. 그러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김윤상은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지? ‘햐!’ 이러더라구. (웃음) 한 시간 반 걸리던 거리였는데 제시간에 왔어요. 한 5분 차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왔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개척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걸 품고 소화할 것을 염려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자리에 심어서 만물이 소생하면 그것이 세상의 일등품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동식물에 대한 자료를 모아 실물과 함께 전시하는 계획

이제 185개국에서 바다에 대한 것을 모집해야 돼요. 알겠어, 양준수? 「예.」 그 나라의 식물 동물에 대한 출판물을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중심삼아서 자기네 박물관을 중심삼고 소개하거든.

내가 1차 순회 때 40개국을 다니며 본부에 슬라이드 기계를 다 사주었다구요. 그것을 어디에 처박았는지, 누가 다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기념으로 라이카 독일제 시계로부터 불란서 촬영기계를 사주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놈의 새끼들이예요. 국가 기물을 존중시 못 하는 패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릴 때마다 사준 거예요. 이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 각 나라의 박물관에 있는 슬라이드로부터 광고할 수 있는 것,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있거든. 이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자기 나라 것을 남겨야 돼요. 나라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충신이 되든가 세계를 위해... 한번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평가해야 돼요. 어느 나라는 어느 만큼이라고 평가해서 백 점이 되면 그걸 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예술품을 편성해 놓은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백 점 맞은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화보를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마다 박물관마다 다 들어가요. 이게 장사 중에 큰돈을 만들 수 있는 밑천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것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띄워서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앞으로 어느 나라가 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실물을 이와 같은 현지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실물이 없다 할 때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대 지방에도, 온대 지방에도 만드는 거예요. 한대 지방에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온도만 맞춰 놓으면 얼마든지 한대 지방에서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방들을 중심삼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사시대에 있는 모든 남극 중앙을 중심삼고 갈라져 있는 동식물들을... 어종이 다르고 식물이 다르다고요. 그것을 연합 편성해서 모델 동산을 자기 고향과 자기 가정에 만들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을에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나라에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판타날에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재료가 평준화돼 있어야만 지식적인 기준도 평준화되는 거예요. 이론적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타날이 힘들다고 ‘아이구, 편안한 삶을 살겠다!’ 해서 왔다가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캄포그란데에 있는 판타날 개발 대학교의 전단지입니다.」 이거야? 이 이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것은 세계적으로 팔지 못하지? 「예.」 우리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시에 판촉물을 만들어서 선전하면 많이 팔

릴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이 생길 거라구요. 이것 때문에 사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요? 실물보다 더 똑똑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판타날에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데, 제1, 제2, 제3... 제100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박물관을 자랑할 때가 온다구요. 선생님이 손을 댔어요. 알겠어요? 「예.」 화보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의 박물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해 줘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현지 입장, 모양을 찍으면 그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나라를 소개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비디오를 팔아먹어야 되겠다구요. 무진장의 자원이 잠자고 있어요.

현지 환경에 적응해서 개척하면서 살라

여러분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왔다 하면 ‘아이구, 어떻게 먹고살까?’ 해서 지금 걱정이지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몇백 달러 가지고 사니 ‘아이구, 여기에 와서 못 살겠다!’ 그럴 거예요. 못 살겠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지은 그 환경을 개발해 가지고 살아왔지, 도망 다니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선생님 생활이 그래요. 선생님은 어디 가든지 환경적 여건에 지배받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적응할 줄 알아요. 농촌에 가면 농부로서 살고, 어촌에 가면 어부로서 사는 거예요. 사막지대에서는 맨발 벗고 뛰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물이 사는 모습을, 참새가 사는 곳이 있으면 참새가 어떻게 사는가 순회하면서 보고 싶겠지요, 어떻게 사나? 안 그래요? 뱀 새끼도 어떻게 사나 보고 싶어할 거예요.

여기는 천지가 뱀이에요. 뱀 왕국이에요. 스크루 뱀은 25미터짜리도 있다고요. 그것을 진짜 한번 잡아 보면 좋겠어요. 잡아다가 큰못에 가

뒤 놓고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을 보려고 구경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구요. 60살 먹은 노인들까지 한 번씩 다 올 거예요. 알겠어요? 한 쌍을 잡아놓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큰 구렁이가 새끼 낳는 데는 조그만 새끼를 낳아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저렇게 돼서 몇십 년에 저렇게 컸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내가 스크루 뱀을 잡으면 5만 달러, 10만 달러라도 사겠다고 그랬지요? 그것 잡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두 시간이 됐네. 자, 마치자구요.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20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